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No.1042-1043 1983년 1월28일(금) & 29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Friday & Saturday, January 28 & 29, 1983

JAN 28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미국인은 애국심 강하고 이탈리아인은 가장 종교적국민

"캐나다인은 가장 행복한 국민"

95%가 행복하다고 답변…갤럽조사 결과

캐나다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로 95%가 대단히(Very) 행복하다, 혹은 퍽(Quite) 행복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26일 발표된 갤럽여론조사결과에 나타났다.

2백만달러를 들여 전세계를 상대로 조사한 이 여론조사에 의하면 캐나다인들은 전반적으로 자기의 생활에 극히 만족을 표했으며, 만족도를 가장 낮은 1에서 가장높은 10으로 나누었을때 대다수가 8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만약 이 여론조사결과가 정확한 것이라면 캐나다인들은 미국, 유럽및 일본등 그밖의 어느 선진국 국민들보다 훨씬 더 생에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이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가장 애국심이 강하고 또 자기나라에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국가를 위해 싸울 용의가 가장 많은 국민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탈리아인은 가장 종교적이며 또한 가장 고독하고, 프랑스인은 자기 직업에 가장 만족치 못하며, 또한 직업에 프라이드도 가장 적게 가진 국민들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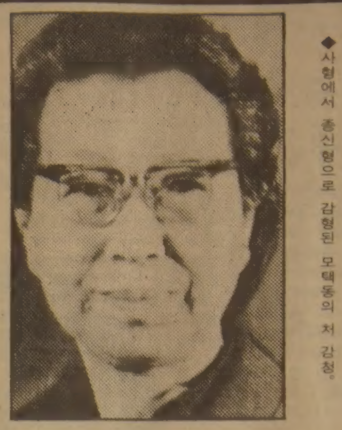
이 갤럽여론조사는 지난 6월 전 세계 2백만명을 상대로 인생관과 가치관에 관한 138개 항목의 질문서를 보냈으며 캐나다인은 1,200명이 응답했었다.

이 조사는 가톨릭조사기구인 사도응용연구센터(The Centre for Applied Research in the Apostolate)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나 가톨릭뿐이 아닌 전체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했다.

이 조사결과를 분석한 오타와대학의 심리학교수 모리스·샤농씨는 "보통 캐나다인은 용의주도하고 마음의 안정을 추구하며, 또한 유쾌하고 가정생활을 중요시하는 사람들"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금까지 캐나다인은 "재미없고 점약하며 조심스런 사람들"이라는 통념을 깨뜨려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갤럽조사결과 나타난 캐네디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경찰에 믿음을 가진다··84%
◉교회에 믿음을 가진다··69%
◉교육제도에 믿음을 가진다···65%
◉법제도에 믿음을 가진다···63%
◉군대에 믿음을 가진다··58%
◉공무원에 믿음을 가진다···49%
◉언론에 믿음을 가진다··44%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감형된 모택동의 처 강청.

강청 무기형으로 감형

중공당국, "융통성 과시"효과 노린듯

(북경)2년전 집행연기 조건부로 사형판결을 받은 고 모택동의 처 강청(69)이 25일 중공최고인민법원에서 종신형으로 감형받았다.

강청과 함께 「4인방」의 주요멤버인 장춘교 전부수상(65)도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지난 80년11월부터 약 2개월에 걸친 「임표·강청 반혁명집단」 재판결과, 81년1월15일, 강청·장춘교 두 피고는 사형(집행연기 2년, 종신정치권리 박탈), 왕홍문(48세·전 당부주석)은 무기징역, 다른 7명은 20년이하의 유기징역 판결을 받았었다.

이번 감형조치의 이면에는 중견지도층에는 아직도 문화혁명기 간부가 많은 실정을 감안, 고 모주석의 부인 처형은 시기적으로 나쁘고, "언젠가는 회개할 것"이라는 교육효과를 기대하여 무기로 감형하는 편이 현지도층의 정당성과 융통성을 과시하는 이점이 있다.

지난 76년 10월 모택동이 사망한지 한달만에 체포된 4인방은 1966년부터 76년까지의 소위 문화혁명기간동안 정부전복을 기도, 수백명을 처형, 중상시킨 혐의로 반혁명집단 조직죄, 정부전복음모죄, 반혁명선전 선동죄, 중상·무고죄등 죄목이 적용되었다.

북미 학자 두뇌 유치

올해부터 이학계에도 확대

캐나다를 비롯한 북부미 학자두뇌들을 한국에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내용이 크게 보강되었다. 한국정부(문교부)는 지금까지 재미학자및 두뇌들을 공학계분야 중심으로만 초빙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이학계(수학, 통계, 물리학, 화학, 생물학등)까지 확대시키기로 했다.

또한 2년이상 한국에 거주예정인 학자들에 대해서는 이사비용까지 부담해주기로 했다. 유치기간도 2년이상의 장기케이스와 2년이하의 단기케이스로 구분했다.

문교부가 재미한국기술자협회로 통보해온 계획에 의하면 이 프로그램은 총1백5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올해는 최소한 60명정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번 계획에 의하면 2년이상 장기유치학자에 대하여는 5인가족을 기준으로 이사비용을 포함해 8천5백달러, 1년~2년은 5천달러, 1년이하는 2천달러를 별도로 지원한다.

또한 보수수준은 유치국내대학에서 교수봉급수준이상의 대우와 주거대책의 편의제공, 특별연구비지급, 연구실, 실험실, 연구조수등의 지원인력공급을 별도로 계획하고 있다.

이 유치계획의 대상자는 미국에서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박사학위과정수료후 학위취득이 결정된 사람, 그리고 석사학위자로 대학에서 전임강사이상의 경력(2년이상)소유자로 못박고 있다.

이같은 유치계획은 1981년부터 국제개발은행(IBRD)의 기금으로 문교부에서 실시하고 재미과학기술자협회가 협조하고 있다.

寫眞記者가 우연히 잡은 「拉致현장」

◆레이크엘시노어밸리의 선트리분지에 근무하는 17세된 사진기자가 오래된 트레일러파지역의 사진을 찍다가 우연히 납치극으로 보이는 현장을 발견, 필름에 담았다. 20대후반으로 보이는 두남자가 10대나 20대초일 것으로 보이는 한남자를 추적끝에 잡아 손을 뒤로 묶었다.(윗사진) 손을 묶인 남자는 땅에 눕혀졌는데 납치자들의 트럭을 운전한 다른 사내가 오른쪽에서 망을 보고 있다(아래) 경찰은 이 사진들과 촬영한 기자의 증언에 따라 수사를 폈으나 아무런 단서를 얻지 못했다.(레이크엘시노어, 캘리포니어)

제18대 한인회 출범

새 임원명단 발표

새해부터 금년 토론토한인사회를 이끌어갈 제18대 한인회 임원명단이 발표됐다.

29일 취임할 장순채회장이 밝힌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장순채
◉부회장: 이기훈·변의섭
◉총무부장: 김진현, 차장: 서만수
◉재무부장: 우기주, 차장: 최연길
◉섭외부장: 김원도, 차장: 김인병
◉기획조사부장: 김병선, 차장: 김영환
◉사회봉사부장: 함효상, 차장: 이송희
◉문화부장: 김상욱, 차장: 정철화
◉교육부장: 김옥자, 차장: 박지연
◉체육부장: 서인현, 차장: 장광휘
◉청소년지도부장: 김명환, 차장: 박원모
◉홍보출판부장: 서만수, 차장: 김현규
◉부녀부장: 오정숙

오늘의 예금금리(1/25부터)

한인신용조합

기 간	신용조합	오뚜기정기예금	시중은행
30일	9%		8%
90일	9.5%		8.5%
180일	9.5%	9.25%	8.5%
365일	9.5%	9.25%	8.5%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한국상품 규제 심화

5개상품에 반덤핑 제소

(서울 27일=연합)캐나다를 비롯한 15개 선진국이 추가로 17개 한국산 상품에 대해 수입규제를 부가하려 하고 있다고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가 27일 발표했다.

KOTRA에 의하면 현재 40개 한국수출상품이 19개 국가에서 수입규제를 받고 있다.

섬유류등 9개 한국상품에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 캐나다는 폴리프로필렌, 스테인레스·스틸제품등 추가로 5개상품에 대해 최근에 반·덤핑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상품에 대해 가장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으로 영국에 수출되는 상품의 61.6%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호주(53.5%), 캐나다(52.7%), 불란서(44.3%), EC(41.1%), 일본(20.3%)등으로 나타났다.

허화평씨

수업차 방미

(서울 27일=연합)지난 12월20일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서 해임된 허화평씨가 워싱톤 D.C.에 있는 헤리티지(Heritage)재단에서 수학하기 위해 27일 미국으로 떠났다.

허씨는 이재단의 객원연구원으로 초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은하 보석
란콤화장품 대리점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귀국선물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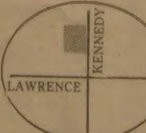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OUT OF THIS WORLD
CARPET CLEARANCE SALE·
SAVE UP TO 70%
FREE INSTALLATION (무료 설치)
FREE UNDERPAD (스폰지 무료)
FREE DELIVERY (무료 배달)
FOR FREE SHOP-AT-HOME SERVICE CALL:
757-2811


STEWARTS CARPET LAND
1200 KENNEDY ROAD
SCARBOROUGH, ONTARIO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벤트러, USED·CAR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조 의 문
☎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Eglinton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TEC
전자계산기
저 울

* 전자계산기… $395부터
* 저울…… $795부터
■계산기 종이(Paper Rolls) 특별세일 4800 per 100
*모든 기계에 써비스합니다.
TECHNIC CASH REGISTER LTD.
1368 Kennedy Rd.
☎: 757-9209

HOGAN GM
Chev Olds Limited
시보레·올스모빌

ㅁ최저 다운 페이먼트
ㅁ저렴한 가격 보장
ㅁ가장 좋은 조건으로 Finance 가능
O새차, 중고차, 트럭등 Leasing
O Trade-in
마이클 손
5000 Sheppard Ave. E., Scarborough, Ont M1S 4L9 291-5054
(세파트×맥퀸)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하키 정상 겨루자"

스탠리·컵 패자와 유럽우승팀 대전 움직임

북미 아이스하키 스탠리·컵(Stanley Cup)의 우승팀과 유럽의 최우수팀간에 연례 정기경기를 열어 하키의 정상을 가늠해 보자는 제안에 따라 구체적인 움직임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NHL(내셔날하키리그) 필라델피아·플라이어즈의 구단주인 에드·스나이더씨는 NHL의 회장인 죤·지글러씨에게 이같은 제안을 하면서 이 문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NHL의 다른팀 구단주들의 반응여하에 따라서 이 시리즈는 84년이나 85년쯤에 개최될 공산이 크다.

스나이더씨는 이 문제가 늦어도 오는 6월 NHL 연례 정기회의에서 정식으로 거론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NHL 선수협회와 국제 아이스하키연맹에서도 강한 호응을 보이고 있다.

성인야간교육 수강비 6월부터 2배 인상

토론토 시교육위원회는 일부위원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성인연장교육의 야간과정(비학점코스)의 등록금을 현행 $20에서 $40으로 인상키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약10만명의 야간코스 수강생들은 금년 후반기부터 2배의 수강료를 납부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토론토 제1선거구출신인 덕·리틀시의원은 "이같은 인상조치가 가난한이들과 한정된 수입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연장교육 기회를 빼앗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리틀의원은 단번에 2배를 인상하는 대신 점진적 인상안으로 기본등록금은 일괄 $20으로 정하고 20시간이 넘는 코스에 대하여 시간당 60센트를 인상하라고 제한했으나 부결당했다.

새 등록금인상은 금년 6월27일부터 실시되여 83~84학년도에 걸쳐 적용될 것이다.

펩시,공동후원 제의 서울올림픽대회

(서울26일=연합)미국의 펩시콜라 회사는 88년의 서울올림픽대회를 공동후원할 용의가 있음을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SLOOC)에 통고했다고 26일 SLOOC 위원들이 밝혔다.

최근 보내온 서한에서 펩시회사는 서울 올림픽에서 펩시콜라를 공식 음료로 쓰는 대신 공동후원을 할수 있을지의 여부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올림픽위원회 관리들은 펩시회사가 후원의 범위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다.

「장학의 밤」 2월5일

캐나다한인장학재단 주최

캐나다한인장학재단(이사장 장공선)이 캐나다의 젊은 학도와 한국의 가난한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최하는 장학의 밤이 오는 2월5일(토) 하오 6시 다운타운 할리데이·인에서 거행된다.

디너와 연예프로및 춤으로 엮어질 이날 파티에는 팝송가수 장미라씨, 최갑석씨와 코메디언 양철씨가 초청되며 배용빈씨의 사회로 진행된다.

디너·뮤직은 윤호섭씨가 담당하며 정철하, 이계민, 김종덕, 신영하씨의 교민 4인조 밴드가 이날의 파티를 이끈다.

이날의 수익금 전액이 장학기금으로 적립되며 회비는 1인당 $30, 연락처는 533-7923, 278-9886이다.

서울고교 동창회 새 회장 이성우씨

서울고등학교 동창회 새 회장으로 이성우(10회)씨가 선출됐다.

서울고 동창회는 지난달 25일 열린 82년도 총회에서 부회장으로 이광언(13회)씨, 총무에 김남수(16회)씨를 선출하고 새해사업계획으로 모교생을 위한 장학금 모금, 친선야유회, 골프대회, 친선운동회및 고교동창 야구대회 참가등을 결정했다.

발성 워크숍 성황

제2회 규모커질듯

빌라델비아장로교회는 지난주에 있은 테너 옥인걸교수 초청, 성가대를 위한 발성워크숍(Voice Workshop)이 각교회 성가대원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자 이번 9월에 제2회 발성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빌라델비아교회에서 밤7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된 발성워크숍에는 160여명의 성가대원들이 등록, 옥교수로부터 기본발성법, 성가대원의 정신적·육체적인 태도등에 대해 강의를 받았다.

빌라델비아교회 성가대지휘자 배효중씨는 26일 "지난번 강좌에 보여준 참석자들의 호응으로 보아 제2회 강좌때는 규모를 확대, 1주일간 2개반으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욕·한글학교 교장에 서병수씨

「욕·한국인학교」의 83년도 정기총회에서 새 교장으로 서병수씨(본학교 재무담당)를 선출했다.

또한 5명의 자문위원으로는 최우현씨, 강신봉씨, 김춘락씨, 안병오씨, 유복영씨가 각각 선출되었다.

또한 지난22일 오후7시 에그링톤 북쪽 제인선상의 에메트(Emmett)의 파티·룸에서 열린 이 모임에서는 작년도 교장으로 수고한 최우현씨와 본교 육성발전을 위해 애쓴 고재혁씨(토론토 총영사관 장학관), 그리고 신임교장으로 선출된 서병수씨에게 각각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주한 미군 주둔 인권보호 도움

— 김대중 회견

(뉴욕-UPI) 미국에서 신병치료를 받고 있는 김대중씨(57)는 한국의 인권탄압정책에 묵과하지않겠다고 23일 뉴스위크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노동조합의 자유결사와 학원의 자유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김씨는 주한미군의 위치가 인권보호에도 도움이 된다고 논평하면서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한국정부는 종전보다 더 강압정책을 수행할것이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날 김씨는 신병치료가 끝난후 하바드대학교의 객원교수초청문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중씨가 말하는 납치진상 ②

양일동씨 행동에 의문점

그는 살해계획에 가담했는가?

납치현장 호텔에서…

1973년8월8일 대낮에 내가 납치당한 도쿄호텔·그랜드팔레스22층 2210호실에는 기묘한 물건들이 있었다. 등산용 룩색 2개, 나일롱밧줄 몇개, 휴지 다발등….

(왜 납치범들에게 이런 물건들이 필요했던가?)

나는 납치되어 서울로 돌아온 뒤에도 그것을 혼자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이 수수께끼는 80년의 「서울의 봄」(정치·언론등이 자유화한 시기)때 범행책임자들의 고백을 듣고나서 풀렸다. 그 소도구들은 나를 호텔내에서 죽이기 위한 「살인용구」였던 것이다.

범인들의 오산

나는 범행날 상오11시쯤 그 호텔에 묵고있는 친지인 선배정치가 양일동 민주통일당수(1980년4월 사망)를 만나기 위해 그리로 갔다.

후에 양씨에게서 들은 얘기지만, 이날 나보다 먼저 나의 친척인 통일당소속 국회의원 김경인씨가 양씨를 찾아왔는데 양씨는 김씨에게))「간다」에 가서 고본책을 사다 달라"고 부탁해서 내보냈다.

그런데 김씨가 정오가 지나자 호텔로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 3사람은 2212실에서 점심을 들었다. 김씨는 쉽게 책을 찾아 예상보다 빨리 호텔로 돌아옴으로서 범인들은 거사기회를 놓쳤다. 그들은 김씨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나를 호텔내에서 죽이는 대신 차로 납치해다가 바다에 던져 죽이기로 작전을 바꾸었다.

당초 호텔내 살해계획은 다음과 같았다.

나를 방에 가두고, 물을 가득채운 목욕통에 머리를 넣어 질식사 시킨후 시체를 토막낸다. 토막들을 휴지로 싸서 두개의 룩색에 나누어 넣고 나일롱밧줄로 칭칭 동여맨다. 이 룩색을 나누어 메고 등산객을 가장, 호텔을 빠져나간다는 것이었다.

살해대신 납치작전

나는 점심후 하오1시쯤 자민당의 기무라·도시오 대의원을 만나기 위해 방을 나왔다. 복도에 나서자마자 나는 5, 6명의 습격을 받고 바로 옆의 2210호실로 끌려갔다. 나를 배웅하러 나온 김씨는 어이가 없어 "뭣들 하는 거야!"하고 소리쳤다. 김씨는 양씨의 방에 감금된 뒤에도 계속 고함질렀기 때문에 범인들은 "호텔 종업원들한테 들킬 염려가 있다"는 판단아래 호텔 살인을 단념하고 말았다 한다.

이로써 양씨가 사건에 관계했는가 아닌가가 당연히 문제시 된다. 김씨를 책사러 내보낸 것은 양씨였다. 또한 양씨는 이날 나와의 회합을 한국중앙정보부의 재일본책임자 김재권공사에게 사전 통고하였었다.

경솔했던 양일동씨

훗날 양씨가 나에게 말한 바로는 자기가 김공사와 만났을때, 김공사가 "김대중선생을 만나 의논할 일이 있는데 어디에 묵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하기에 "나는 요전에도 만났는데 이번에도 만나기로 되어있다"고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알ㄱ 주었다"고 한다.

나는 양씨와 친했으며, 그의 사람됨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가 악의를 품고 KCIA에 협력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하지만 양씨가 조심성없게 KCIA에게 나와의 면담계획을 누설했기 때문에 그날 내가 봉변을 당했던 것이다. (계 속)

◆납치직전 김대중씨등 3명이 점심을 먹은 호텔 2천2백12호실.

名女優제조 監督

큐커翁 他界

83세…심장마비로

▲여배우감독으로 수많은 명여우를 길러낸 조지·큐커감독이 1962년 4월 어느날 「Something's got to·give」의 촬영에 들어가기 앞서 마릴린·먼로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뉴욕-AP)

53년간 監督생활…많은 名畵를 연출

10代부터 映畵入門…헝가리系출신

「개스등」·「어제 태어나다」등 오스카賞수상케

지난1930년대와 1940년대에 걸쳐 캐더린·번등 여배우를 기용, 독특하고 우아한 명화들을 연출해냄으로써 여배우제조감독이란 명성을 얻었던 조지·큐커옹이 사다스·사이나이메디칼센터에 입원중 24일밤 심장마비로 타계했다.

향년 83세.

고큐커감독은 「필라델피아·스토리」 「8시의 만찬」 「작은아씨들」 「개스등」 「아담의 갈빗대」및 「스타 탄생」등 고전적인 작품을 연출, 많은 출연배우들이 영예의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는데 기여했으나 자신은 한번밖에 감독 상을 받지 못했다. 큐커감독은 그의 연출작품이 모두 18번이나 아카데미상후보에 올랐지만 1964년 「마이·페어·레이디」로 단한번 감독상을 수상했던것.

53년간에 걸친 감독생활에서 큐커감독은 많은 톱여배우들을 발탁했거나 길러내 명여배우감독이란 평판을 얻었다.

그러나 자신은 이같은 여성을 별로 달가와하지않았다. 그는 1981년 마지막 감독영화 「부자와명성」을 연출한후 한인터뷰에서 『내가 남성영화도 연출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달라』면서 「필라델피아스토리」(제임스·스튜어트주연) 「공휴일」(캐리·그란트주연) 「이중생활」(로널드·콜맨주연)등을 예로 지적하기도 했다.

박종수밍크농장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이 직영하는 농장에서는
다년간 밍크제품을 경영해온
유명업체와 특별제휴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과
품질을 보장하는 밍크털로써
특히 여러분 기호에 맞는
맞춤 코트로 봉사하오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박 종 수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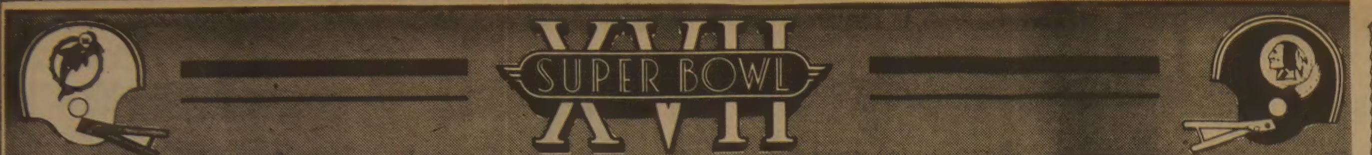
박종수 밍크농장 특 징

- 공장가격보다 더 싼 농장가격
- CUSTOM MADE; 당신의 몸에 꼭 맞게 칫수를 재어서 맞춰 드립니다. (전화만 해 주시면 됩니다.)
- 최신 유행의 다양한 디자인을 선택 할 수 있읍니다.

수량이 제한되어 있읍니다.

연락처·782 Yonge St.(영 × 블로아)

961-7100▸2 모니카 또는 Mr. 박



「수퍼보울」은 어디로

10년만에 재대결

마이애미 돌핀스 · 워싱턴 레드스킨스

수비위주의 競技 펼칠듯

「살인벌」·「컴퓨터」의頂上탈환 한판
30일하오 파사데나서 祝祭무드 일듯

30일 파사데나 로즈보울에서 열리는 제17회수퍼보울에 진출할 행운의 두팀은 NFC 워싱턴레드스킨스와 AFC마이애미 돌핀스로 확정됐다.

22일 달라스 카우보이스에 31대 17로 역전승을 거둔 워싱턴 레드스킨스와 뉴욕 젯츠를 14대 0으로 숫아웃시킨 마이애미 돌핀스는 30일 또 한차례 격돌, 올해 미 프로풋볼의 최종 정상을 다투게 된다.

10년전인 제7회 수퍼보울때 마이애미 돌핀스는 LA에서 워싱턴 레드스킨스를 14대 7로 꺾고 수퍼보울승자가 됐는데 레드스킨스는 다시 10년만에 설욕을 벼르고 있다.

수퍼보울 양강팀이 결정되자 스포츠 전문가들은 이 두팀와 대결은 철저한 수비위주의 게임이며 따라서 점수가 적게 나는 시합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전력을 비교분석, 마이애미 돌핀스가 3점가량 앞서 있다고 점치고 있다.

마이애미 돌핀스는 NFL 제일의 막강 수비진을 자랑한다.

Killer Bee(살인 벌)의 닉네임을 지닌 돌핀스는 전열 수비진 6명의 이름이 B자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별명을 받았다.

워싱턴 레드스킨스는 「컴퓨터 풋볼」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막강한 카우보이스를 뒤엎고 승리한 팀으로 수비력이 강하고 저돌적인 러싱파워를 보인다고 해서 Hogs(돼지)팀으로 불린다.

「살인 벌」과 「돼지」의 대결인 이번 수퍼보울은 두팀 모두 수퍼스타가 없이 수비위주의 팀플레이를 벌이는 「노·네임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전국에서 1억명이상이 관전하게 될 수퍼보울은 단순히 풋볼최강결정전이란 의미를 넘어 미국의 축제로 부각되어왔다.

양팀 선수들은 곧 바로 영웅이 될 수 있고 그들의 신화가 오래토록 기억된다.

두팀 모두 철통수비로 대망의 수퍼보울에 오르게 됐다.

22일 카우보이스를 꺾은 레드스킨스는 수비면에서 카우보이스를 압도했다.

카우보이스의 토니·돌셋을 철저하게 발묶은 대신 레드스킨스의 런닝백 존·리긴스는 1백40야드를 주파,(텃치다운두개 포함)게임의 방향을 바꿔놓았다.

리긴스는 카우보이스팀과 대결할땐 그동안 '평균 50~60야드로 봉쇄되었는데 이날은 완전히 발이 풀렸다.

리긴스는 플레이오프3게임에서 연속 1백야드를 주파, 플레이오프 새기록을 남겼다.

레드스킨스는 전반종료를 약 2분 앞두고 카우보이 쿼터백 데니·화이트를 쌕(sack:쿼터백공격을 차단하는 태클)해서 후반 내내 게임에 뛸수 없었다.

화이트의 뒤를 이은 쿼터백 호게붐은 예상을 뒤엎고 제3쿼터에서 2개의 텃치타운을 보이는등 선전했으나 게임종료 6분여를 남기고 볼을 인터셉당했다.

레드스킨스는 3번이나 턴오버(Turn over:상대편 공격기회를 인터셉 또는 펌블리턴으로 뺏음)를 뺏아 17점이나 점수로 연결, 대승했다.

한편 수비코칭의 대가로 통하는 단·슐라 마이애미 돌핀스코치 지휘 아래 「살인 벌」들은 뉴욕 젯츠와 전반전 0대 0으로 팽팽하게 맞서다가 후반들어 라인배커 A.J.듀이선수가 3번이나 인터셉을 성공, 결국 14대0으로 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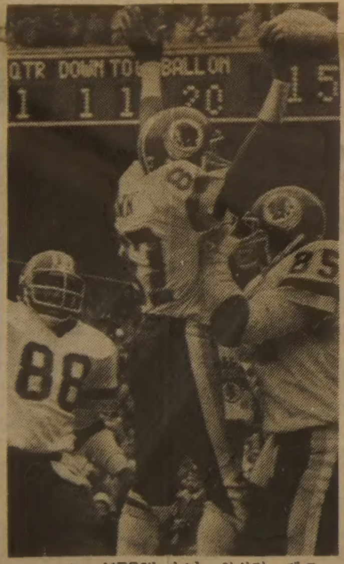
돌핀스는 지난번 샌디에고 차저스와의 게임에서도 단·파우츠쿼터백의 패싱볼을 5번이나 인터셉했었는데 이번에도 젯츠에게서 5번 인터셉을 뺏았다.

돌핀스는 금년들어 3번, 뉴욕 젯츠와 맞붙어 3번 모두 이김으로써 새기록을 남겼다.

제 17회 수퍼보울은 NBC-TV가 30일 낮3시(토론토시간 6시) 중계하게 된다.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AFC챔피언—마이애미 돌핀스는 진흙탕속결전끝에 뉴욕젯츠를 14대 0으로 꺾었다. 마이애미는 5번이나 젯츠팀공격을 인터셉했다.〈마이애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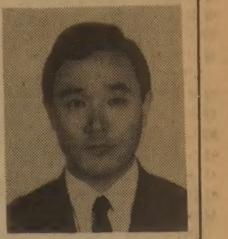


▲ NFC챔피언—워싱턴 레드스킨스는 「컴퓨터풋볼팀」이란 달라스 카우보이스를 31대17로 꺾고 대망의 수퍼보울에 진출했다.〈워싱턴—AP〉

〈소 론〉

이민문학의 정신분석

박 충 도(평론가·전 문협회장)


◆박충도씨

1. 서 언

60년대말부터 시작된 한국민의 캐나다 이민도 어언 20여년에 달하고 있다. 이민이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꾸준히, 열심히 살아온 덕분에 이제는 어느정도의 경제적인 기반과 정신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간 몇몇 인사들에 의해 시도되어 왔던 문학활동도 이민초기의 어려움을 극복, 꾸준히 성장하여 왔다.

이곳 교포사회의 유일한 문학단체인 「캐나다한국문인협회」는 재외 한국교포사회에서도 비교적 일찍 발족, 활동했을 뿐 아니라, 단일 문학단체로써 착실히 성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협회원들의 그간의 문학작품이 어떤 경향으로 변화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개관하여 보는 것도 뜻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이를 정신분석학적인 입장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2. 「노이로제」현상

이민초기에 발표된 문학작품들을 일반적으로 개관하여 보면, 작가의 「노이로제」현상이 작품 속에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이민초기의 어려움과 급격한 환경의 변화로 인한 정신적 갈등, 좌절감, 고독감등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겠다. 언어의 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두절,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겪는 여러가지 불만, 친한 친구나 친척들과의 단절이 빚는 고독감등의 여러가지 심리적 복합현상은 「노이로제」현상을 일으키게 한다.

정신적 「노이로제」현상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볼 수 있지만 특히 문학을 하는 작가들의 「노이로제」현상은 그 작가가 쓰는 작품에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러한 경향은 의식적으로 나타난다기 보다는 작가들의 단편적인 불만, 고독, 갈등등이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초기이민작품 속에는 지나치게 거칠고, 저항적이고, 비판적인 작품경향이 짙게 나타난다.

「노이로제」현상과 함께 초기작품에 많이 나타난 또 하나의 경향은 고향, 부모, 친구등에 대한 지나치리만큼 애틋한 그리움의 정이다. 정들었던 고향산천을, 그리고 부모에 대한 불효를 생각하게 하고, 친구들과 재미있게 지내던 지난 날을 회상시킨다. 이런 한 그리움에 대한 회상과 몸부림을 나타낸 작품은 「어머니」,「설날」,「고향」,「편지」,「망향」등등 수없이 많이 볼 수 있다.

3. 최근 경향

그러나 이상의 경향은 대체적으로 80년대가 시작되면서 차츰 사라지기 시작하여 보다 교민들의 캐나다생활이나 2세들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 그리고 캐나다의 정치, 경제및 사회등을 소재로 하는 작품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향의 변화원인은 경제적 기반의 안정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심리적 변화가 아닌가 본다.

정신적 변화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정신적 불안, 초조, 고독감등이 차츰 사라지고,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자녀들의 문제, 사업 또는 직업상의 문제등으로 캐나다사회에 보다 관심을 갖게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의식을 차츰 망각하게 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은 매몰, 망각하게 되고, 새로운 경험이나 지식이 정신계를 지배하게 된다. 이태준씨의 소설작품도 초기작품은 주로 한국을 소재로 하던 것이 최근의 「귀가」,「블루어·스트릿트의 하루」,「양로원」등의 작품소재는 모두가 이곳 생활을 중심으로 쓰여지고 있다. 유인형씨나 여동원씨의 수필 역시 한국의 그리움, 어머니의 사랑, 고국에서의 경험담, 고국산천의 아름다움, 전통의 자랑등을 다루던 것이 최근에는 캐나다의 사회, 경제및 정치등 보다 캐나다적인 것을 소재로 하고있고, 2세들의 교육문제등 과거 향수적인 것보다 미래지향적인 작품을 많이 쓰고 있다.

또한 시 분야의 유정자씨의 작품경향도 과거의 저항적이고 고발적인 작품에서 차츰 서정적인 작품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과거의 망각과 이곳에서의 새로운 생활체험등으로 인한 무의식적 심리변화 때문이라고 본다. 또한 과거의 한국적인 상황만을 소재로 하던 것이 보다 보편적(Universal)인 소재를 많이 취급하게 되었고, 그 표현에 있어 직접적이고 과격하던 것이 보다 간접적이고 온화한 표현으로 바꾸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이민작가들의 작품은 그 작가의 무의식의 심리세계의 변화와 더불어 차츰 그 작품경향도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작가 자신이 의식적으로 그러한 경향으로 작품을 쓴다기보다 무의식의 심리작용에 의한 것이 더 많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은 「캐나다문학」개관)

생활영어

민병철 담당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HELP YOURSELF, PLEASE

영문과까지 나온 모부인이 남편 친구인 미국인을 자기집 저녁 식사에 초대해 놓고 밥상에 마주 앉아서 「어서 드세요」라는 말을 한다는 것이 Lift this. (lift:물건을 들다의 뜻)를 연발하여 결국은 영문을 모른 미국인이 상을 들어서 옮겨 달라는 줄 알고 다른 자리로 번쩍 들어 옮겨주었다는 웃기는 일화도 있지만 필경 그 부인은 Help yourself. 라는 표현을 몰랐으리라.

「이 사과 좀 드세요」Help yourself to this apple. 「불고기 좀 드세요」Help yourself to Bulgogi. 이와 같이 음식을 권할때 사용한다. 이때 「많이 먹었읍니다」하고 싶은 경우는 I've had enough. 혹은 I'm full. 이라고 하면 된다.

A:Help yourself, please.
B:Thank you, I will.
A:How do you like the food?
B:It's delicious. Did you make it?
A:Yes, I did. Everything is homemade.
B:You are an excellent cook.
A:많이 드십시요.
B:감사합니다. 많이 먹겠읍니다.
A:이 음식 맛이 어떻습니까?
B:굉장히 맛있읍니다. 손수 만드셨나요?
A:네, 그렇습니다. 모든게 집에서 만든 겁니다.
B:요리 솜씨가 훌륭하시군요.

*delicious:맛있는.
*homemade:집에서 만든
*excellent:훌륭한, 뛰어난.
ex)You speak excellent English.(영어가 유창하시군요)

이연재물의 필자가쓴 「생활영어」 1, 2, 3, 4권을 구입하려면 B.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U.S.A. 로 수표나 모니오더를 보내면 됩니다. 가격은 권당12달러(판매세및 우송료포함) 전화:(312)966—4050

제1회 문학작품현상공모및
제6회 수 학 경 시 대 회

본 온타리오주 한인대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학구력의 장려와 우수한 후배 양성을 목적으로 수학경시대회와 문학작품 현상공모를 실시합니다.

제6회 수 학 경 시 대 회

◆참가자격 : 20세 이하(1962년 2월20일이후생)Ontario 고교재학중의 한국학생.
Junior부~9, 10, 11학년 Senior부~12, 13학년
◆시 간 : 1983년 3월 12일(토요일) 오전11시
◆장 소 : University of Toronto Mclennan Physical Lab Room 102 60 St. George St.
◆출제방식및 수준
• 영문으로 쓰여진 수학문제.
• Junior부는 9, 10, 11학년 수준.
• Sinior부는 12, 13학년 수준.(단 13학년 Calculus와 Algebra제외)
• 문제는 선다형(Multiple Choice)으로 틀린답에는 감점함.
• 30문제 제한시간 1시간30분.
◆등록방법 : • 아래의 양식대로 서신으로만 접수함.
• 참가자의 이름(한글, 영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학교, 학년.
보낼곳 : KUSA / 2067 ISLINGTON AVE. NO. #1114 WESTON, ONT. M9P 2R8
◆신청마감 : 1983년 3월9일(수요일)
◆시 상 : Senior부 1, 2, 3등(장학금및 상패) Junior부 1, 2, 3등(상패및 부상)
◆참 가 비 : 없음.
◆문의전화 : 김충수 247-2998, 임정혁 352-1234
◆발 표 : 교포신문에 수상자발표함과 동시에 개별 통지함.

제1회 문학작품현상공모

◆참가자격 : 20세이하(1962년 2월20일 이후생)
Ontario 고교 재학중의 한국학생. Junior·Senior부 구별 없음.
◆응모요령 : 한글이나 영문으로 쓰여진 수필(Essay)을 아래의 양식대로 모집 함.
• Suggested Guideline: 한인교포사회나 이민1세들인 부모님들에 관련된 것을 소재로 할것.
• Length: 한글 200자원고지 15매 내외, 영문 500 Words Typed.
◆등록방법 : 완성작을 우편으로 소정양식에 따라 아래 주소로 보내기 바람.
(참가자의 이름(한글·영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학교, 학년)
◆보낼곳 : K.U.S.A. / 173 Roxborough Dr. Toronto, Ont M4W 1X7
◆신청마감 : 1983년 3월9일(수요일)
◆시 상 : 우수작및 장려상(상패및 부상)
◆참 가 비 : 없음.
◆문의전화 : 이영희(964-6672), 김은희(421-8360)
◆발 표 : 교포신문에 수상자발표함과 동시에 개별 통지함.

주최 : KUSA (온타리오주 한인대학생회)
후원 : 한인장학재단
한인재미과학기술자협회(온타리오 지부)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몬트리얼 소식

◉지국주소:
6715 PLVILLON
Brossad P.Q. J4W 2R8
전화: (514)672-8399

◆정관성 몬트리얼지국장.

현대 "포니"인기 높아

23일 몬트리얼 전시 마쳐…딜러지원 200여명

(몬트리얼)한국 현대자동차의 "포니"승용차는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푸라스·보나벤추어(Place Bonaventure)에서 열린 제15회 몬트리얼·오토·쇼에 참가, 인기를 끌었다.

4대의 포니를 전시한 현대측은 연일 쇄도하는 관람객으로 즐거운 비명을 질렀는데 약7~8명의 현대직원과 교포 박명희양, 캐네디언 에버린·케인양등이 몰려오는 관람객에 설명하기에 바빴다.

현대측이 마련한 포니선전 팜플렛은 마감 이틀전에 동이 났으며 몬트리얼지역 딜러를 지원하는 사람이 200여명선을 넘고 있어 포니의 관심도를 측면으로 나타내고 있다.

한편 현대에서는 포니의 제작과정등을 담은 비데오·테이프를 상영하였다. 이 테이프는 한국명승지의 사진을 곁들여 한국을 소개하는데도 크게 이바지했다.

이곳 교민들은 현대가 캐네디언들에게 한국을 알리는데 크게 도움을 주었다고 흐뭇해 했다.

이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어느 교포는 가격이 얼마나 되든 몬트리얼에서는 자기가 제일 먼저 포니를 갖는 사람이 되겠다면서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면 전액지불을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포니가 앞으로 캐나다시장을 넓히기 위해서는 차형을 뒷바퀴 추진(Rear Wheel Drive)대신 앞바퀴 추진(Front Wheel Drive)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 이유는 앞바퀴 추진 차량이 눈이 많이 오는 캐나다에서는 보다 안전하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의 신항수상무는 금년 6~7월경이면 이곳에 딜러가 생길예정이라면서 앞바퀴 추진차형은 내년에나 생산하게 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상무는 또한 가격은 $6,000~$6,500선에 오토메틱은 약 $500정도 추가될 것으로 보이지마는 실제가격은 좀더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차처럼 매 옵숀마다 가격을 올리는 방법을 쓰지않고 모든것을 차에 부쳐 판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곳 몬트리얼에는 소련의 라다(LADA)가 $5,000선, 일본제차가 $8,000선에서 판매되고 있다.

참전용사회 몬트리얼지부 박동열씨 부회장 피선

캐나다 한국참전용사회 몬트리얼 지부의 금년도 정기총회가 지난 1월17일 몬트리얼시의 아모레(Armouries)회관에서 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메카시(예비역 중령)씨의 사회로 열린 이날의 회의에서 새 집행부와 9명의 이사를 선출하였는데 메카시씨가 회장으로, 파라디스(Paradis)씨와 한국의 박동열씨(예비역 해병준장)가 각각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또 9명의 이사중에는 이원혁씨(예비역 공군소령)와 유병열씨(예비역 육군중령)가 포함되었다.

이날 모임에서 한국측에서는 특별히 전대통령의 캐나다방문기념화보와 올림픽개최기념 칼렌다를 나누어 주었고, 캐나다측에서는 "Canada in Korea"란 한국전 참전소개책자를 배부해 주었다.

이날밤 한 참전용사는 자신이 암에 걸려 생사가 시간문제이나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이를 동정한 동료들이 한국방문을 실현시킬 것을 다짐했다.

경제협의회 개최

몬트리얼무역관주최

(몬트리얼)몬트리얼 무역관은 지난 14일 몬트리얼 총영사관 회의실에서 지역내 경제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차영석 신임무역관장은 캐나다의 경제동향, 최근의 수출입동향, 수출입제도 변경및 대 캐나다 주요품목별 수출부진요인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김창훈 몬트리얼총영사 주재로 대사관의 신 상무관, 초대 무역관장을 지낸 유병일씨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포니자동차를 출품한 현대 신항수상무의 안내로 오토쇼에 참석, 격려했다.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김금출 동양화전시 성공

쾌벡대, 원광대와 자매결연 뜻비쳐

지난 1월9일까지 쾌벡대학에서 거행된 김금출(원광대학 강사)씨의 동양화 전시회는 많은 몬트리얼 사람들의 가슴에 한국의 얼을 심어주었다.

연일 80여명의 관람객을 동원한 김여사의 동양화전은 특히 학생들에 큰 관심을 끌어 거의 매일 워크샵이 실시되었다. 동양화전시회를 처음 시도한 쾌벡대학측은 좋은 반응에 힘입어 내년봄 수명의 동양화화가들을 초청, 동양화전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쾌벡대학총장은 직접 전시회를 관람한후 김여사가 재직중인 원광대학과 쾌벡대학의 자매결연의 뜻을 비춰 김여사는 자매결연에 필요한 사항과 총장이 원광대학에 보내는 서한을 갖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한 관람객은 이곳에서 중국이나 일본의 동양화는 보았으나 거의가 상업적인 것이여서 동양화는 기교만이 있지 예술성이 없다고 생각했으나 김여사의 그림을 본 후 심오한 예술의 경지와 확트인 공간처티에 놀랐다고 말했다.

◆동양화가 김금출씨

전시회를 마친 김여사는 "이곳에 와서 그림 몇장이 팔려 여비정도 빠진 셈이지만 한국을 소개, 특히 고유한 한국의 미를 이들 가슴에 심어준 것만으로 자부심을 갖고 돌아가게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 김금출씨 약력 ▲

◎57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67년 미술협회회원 출품
◎82년 뉴욕 개인전
◎현재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강사.

金聖鍾作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158>

이상한 女人 ③

살인비밀 아는 여자가 朴文子 협박

『무슨 일이야?』
두봉이 두려워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조금 전에 어떤 이상한 여자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무슨 전화를?』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정말 큰일 났어요.』
『가만 있어. 자세히 좀 이야기해 봐.』
『만나서 이야기해요.』
『당분간 곤란해. 전화 끊고 꼼짝 말고 기다려.』
5분쯤 지나 오빠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공중전화에서 거는 거니까 안심하고 이야기해. 회사 전화로는 마음대로 이야기할수 없어. 경찰이 주목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만난다는건 위험해. 차이야기해봐. 자세히 말해봐.』
『젊은여자 목소리데…자기는 비밀을 알고있는 유일한 사람이래요. 처음부터 반말이었어요. 내기뭐를 하니까 살인자는 사형감이래요. 더구나 바람 피운죄에 남편을 토막살해했으니까 정상이 참작되지도 않을 거래요. 도대체 누구냐고 물으니까 그런건 몰라도 된대요. 모세이름까지알고있어요. 그러면서 살고 싶으면 12시 정각까지 경복궁 경회루입구로 나오래요. 자기는 내 얼굴을 잘알고 있대요. 만일 나오지 않으면 지옥행이래요. 전화 한통화면 나는 끝장이래요. 오빠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 이름까지 알고 있어?!』
『이름을 들먹이지는 않았어요.

朴 男 그림

경복궁으로 나올때 남자는 데리고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말은 안 했지만 그 남자라는게 바로 오빠를 가리키는 것같았어요.』
『이럴수가…』
『어떡하죠?』
『경찰이 함정을만든게아닐까?』
『경찰은 아닌 것 같아요. 경찰이 굳이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의심나면 달리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있을 텐데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리고 경찰은 지금 그 정도로까지 알고 있지는 못해요. 경찰은 아닌거에요.』
『그렇다면 누구지? 어떤년이 그런 협박을 했지? 귀신이 곡할노릇인데…』
『어떻게 할까요? 나가볼까요?』
『안 나가볼 수가 없지않아?』
『무서워요. 같이 나가요.』
『혼자 나오라고 했지 않아?』
『오빠는멀리서 감시만하세요.』
통화시간이 다 된 것을 알리는 신호음이 들려왔다.
『알았어.』
전화가 끊겼다.
문자는 땀을 닦으며 시계를 보았다. 11시 5분이었다.
그녀는 서둘러 옷을차려입고 집을 나섰다.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 합니다
각종김장김치 주문환영
해밀톤지점 ☎: 1-385-1485
서부지점 ☎: 243-9544

적은 비용으로 알찬 효과를 보는 한국안내광고란

三國志 551

글·高羽榮·그림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정기총회공고

본 후원회에서는 정관 제4장 15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정기총회를 갖고저 하오니 여러분에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아 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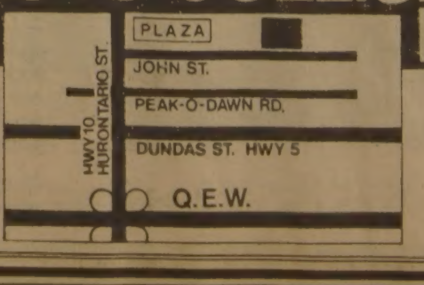
안건 : ①수입및 지출 결산보고
②1982년도 사업경과보고
③감사보고
④회장및 감사선출
⑤기타 토의

때 : 1983년2월5일(토) 오후1시
장소 : 벧엘교회 회의실

온타리오
한국맹인후원회
회장 원 종 필

온타리오 한인상공인협회 회원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완전한 차체수리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수리중 차 대여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LTD.
69 John Street, Missi
Bus. 275•3131, 3133
R 457-1234
정 창 헌



전 세계로 배달하는
Lotus Florist and Gifts

ㅁ고급 품질의 Plant 취급
ㅁ웨딩전문.
ㅁ각국, 각처에 주문 배달함.

◎메트로 전역 : 1일 2회.
◎영국및 유럽 : 3일전
◎한국및 기타 : 1주일전
◎카나다및 미국 : 주문당일 배달

792 Bathurst St.
Bathurst & Bloor Toronto M5R 3G1
533-3884 Sue Kim 533-0705
(R)749-8399

"86년까지 輸入 90%自由化"

企劃院 시작으로 各部處 새해業務계획 보고

"올目標 물가안정 最善"

全대통령指示 投資의욕 높이고 統計 신뢰받게

全斗煥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경제기획원을 시발로 중앙各部處의 새해業務계획 보고를 받기시작, 이날 상오에 기획원, 하오에는 재무부로부터 각각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金竣成부총리와 金周浩조달청장으로부터 소관업무계획을 보고받은뒤 『기업인들의 투자의욕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시책을 펴나가는 한편 물가안정에 성공한 지난해의 교훈을 바탕으로 금년에 목표한 물가안정시책이 차질없이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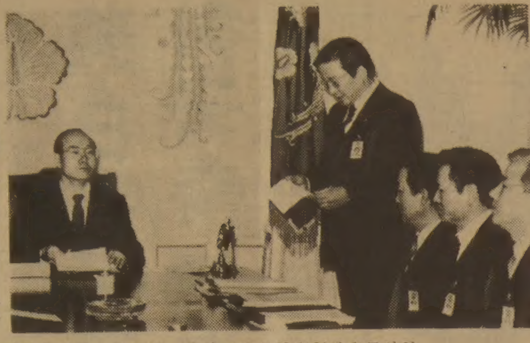
全대통령은 또 『우리는 국제화시대에 살고있는만큼 우리경제에 영향을주는 국제정세나 정보에 대해 시기를 놓치지말고 신속히파악, 대응책을 강구해나가야한다』고 강조하고 『고加品가격의 계속적인 인하등 최근의 각종물가인하현상을 국민보호적인 측면에서 정확히알려 국민들이 속지않도록 해야할것』이라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특히 ▲전국민이 신뢰할수있도록 정부각부처는 통계업무의 정확을기하고 ▲심사분석제도를 형식에 그치지말고 사업을 계획한사람이 반드시 분석, 이제도가 정착되도록해 분석결과를 다음시책에 반영시키도록 하며 ▲해외통계정보를 早期에 입수, 시책에 참고할것 ▲2천年代의 先進조국像을 설계해보는 국가발전을위한 장기계획을 오는6월까지 작성, 보고할것등을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公職者의 자세에 언급, 『모든 공무원은 국가목표로 설정한 「先進祖國의 창조」를 위해 先導役이 돼야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금년은 3大否定의 추방을 정착시키는 해인만큼 공직사회에서 부정공무원이 나오지않도록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하고 각자의식개혁과 主人정신함양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財務部에 指示 "在物조사 완벽히"

全대통령은 이어 이날하오 姜慶植재무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받고 『올해에는 在物조사를 완벽히해 불필요한것은 처분하고 活用할것은 활용토록하라』고 지시했다.



◇全대통령이 姜慶植재무장관으로부터 올해 업무보고를 받고있다.

產業技術大 내년설립

農家소득개발·福祉年金案 마련

企劃院보고

金竣成부총리는 이날 새해업무계획보고에서 오는88년까지 국민총생산(GNP)규모를 1천억달러(82년가격), 1인당 GNP규모는 2천4백달러로 늘리고 현재 76.6%에 머물고있는 수입自律化率을 86년까지 선진국수준인 90%이상으로 높이는 동시에 外換자유화와 資本자유화를 점진적으로 추진, 이를 토대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문제를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급기술人力양성을위해 내년중 產業技術大學을 설립하고 산업보호의점진적 축소와 관세구조의 개선, 구조적不況산업의 자율적 정리등을 통해 산업구조의 선진화를 추진하며 가격, 金利, 換率의 자율화와 공정한 경쟁질서의 정착을 통해 각종제도와 정책의 先進化를 추진해나가겠다고보고했다.

金부총리는 2천년을 향한 국가발전長期구상과관련, 12개연구기관의 부문별 연구결과를종합한 최종보고서를 올하반기중에 마무리지어 오는12월까지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人口대책과관련, 家族法개정문제를포함한 종합대책을 3월중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국민복지연금제도의 早期실시문제에대해서는 2월중에 관계부처실무작업반을 구성, 7월중 개선안을 작성하고 공청회등 각계의견수렴후 12월까지 정부안을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金부총리는 또 농가소득增大시책의 효율적추진을 위해 3월중 農家所得源개발촉진법안을 마련,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88올림픽에 대비한 관광진흥종합계획도 3월중 마련, 8월까지 각부처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하겠다고 밝혔다.

OPEC회의 決裂

產油쿼터·差等값 異見으로

【제네바26日AP=聯】석유수출국기구(OPEC) 13개국 석유상들은 24일 세계원유시장의 공급과잉및 유가인하를 막기위한 방안을 토의했으나 각 회원국들이 自國의 입장만을 주장한 끝에 총산유량및 國別산유쿼터및 차등유가제등 주요 현안에 대해 아무런 합의도 보지못한채 완전한 실패로 이틀간의 회의를 끝냈다고 아메드·자키·야마니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상이 말했다.

야마니 석유상은 이날 회의가 결렬된후 기자들에게 회의가 완전히 실패했으며 아무런 합의도 보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마네하·사이드·오타이바 아랍에미리트 연합 석유상도 『각 회원들이 자기들의 주장만 내세웠다』고 전했다.

석유상들은 23일 회의에서 총산유량감축과 國別쿼터에 대체적인 합의를 보았었으나 이날 차등유가를 둘러싸고논란을 벌인끝에 회의가 결렬되고말았다.

몸베르토·칼데론·베르티 베네수엘라석유상은 기자들에게 회원국들간에 하루 산유량상한선을 현재의 1천8백50만배럴에서 1백만배럴이 줄어든 1천7백50만배럴로 하향조정하자는데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졌으나 차등유가와 國別쿼터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회의가 결렬됨에 따라 일부 회원국들이 유가를 인하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일방적으로 유가인하를 단행하는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말랍·야하야·디코 OPEC의장(나이지리아 석유상)은 13개회원국중 11개회원국이 國別산유쿼터에 합의했으나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가 아프리카산고급원유에대한 차등유가인상문제와 관련시켜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4弗引下 가능성 非會員國 오만

【리야드AP=聯】아랍 에미리트聯合의 WAM통신은 제네바發보도에서 油價가 배럴당 4달러까지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도했는데 OPEC회원국이 아닌 오만이 이같은 가격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극히 높은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앞서 아프리카 산유국들이 그들의 고급원유에대해 기준유가보다 배럴당 1.5달러만 더 받고있는것은 부당하다면서 차등유가폭을 배럴당 3~3.5달러로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日·蘇 外交문제化

蘇 나까소네訪韓·訪美비난

【東京=宋寿鎬특파원】일본정부는 25일 나까소네수상의 訪韓·訪美와 관련, 소련정부가 타스통신을 통해 비난한데 대해 정식으로 항의, 외교문제화했다.

나까시마(中島)외무심의관은 이날상오 파블로프소련駐日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나까소네수상의 방한·방미와 관련하여 타스통신이 비난한것은 근거없는일이며 유럽을 겨냥한 SS20중거리미사일을 시베리아로 이동하는 것은수긍할수없는일이라고항의했다. 이에대해 파블로프대사는 본국정부에 이뜻을전하겠으나 개인의견으로는 일본정부의 주장이 납득할수없는 것이라고 정면으로 맞섰다.

오호츠크海에 배치

蘇 3만톤급 核潛水艦

85년이후

【東京AP=聯】소련은오는85년이후 오호츠크해에 초대형 타이푼급핵추진공격용잠수함을배치할것이라고 일본의 아사히(朝日)신문이24일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방위청소식통들을 인용, 세계최대의 3만톤급 공격용잠수함이 캄차카반도의 페트로파블로프스크를 모항으로 오호츠크해에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신문은 이 잠수함이 얼어붙은 바다속에서도 발사될 수 있는 사정8천㎞의 SS NX20탄도미사일20基를 장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련은 현재 지난80년 완성된 타이푼급 잠수함1척을 유럽해역에서 시험취역중에 있는데 소련太平洋함대에 배치된 소련잠수함은 모두1백35척이며 그중 20척이 크루즈미사일을 발사할수 있다고 이 신문은 말했다.

政府, 銳意 주시키로

日의 "大韓海峽봉쇄포함" 發言

정부는 나쓰메·하루(夏目晴)日本防衛廳방위국장이 24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海峽봉쇄에는 大韓해협의 일본측 領海3해리와 한국측 領海사이인 17.2해리의 公海까지 포함된다』면서 『금명간 시작될 1천해리 海上교통로 방위에관한 美日공동작전가운데 이제4해협봉쇄작전이 연구대상이 될것』이라고 발언한것을 重視, 깊은관심을 갖고 앞으로의 日側의 움직임을 銳意주시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소식통은 25일 『日本側이 大韓해협 公海상에서 海上自衛隊훈련을 하는 것은 우리가 日可日否할것이 아니지만 양국의 역사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우리정부와 사전협의를 갖는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일본측의 對馬島사이의 大韓해협봉쇄에 관한 최근의 발언은 사전협의가 없었던것으로 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소식통은 이어 『極東지역에 있어서의 對共방위전략은 韓美방위조약과 美日안보조약에 의해 이루어질것』이라면서 『우리가 일본을 假想敵으로 생각하여 방위계획을 세운적이 없기때문에 일본해상자위대의 對韓해협훈련이 큰 문제점은 될수없지만 일본측의 假想敵이 우리측의 假想敵과 일치하지 않을경우 해상봉쇄에 있어 문제점이 생길수도있다』고 말했다.

軍縮 조속타결합의 콜首相, 美代表와

【본(西獨)AP=聯】美蘇제네바군축협상재개일을 사흘앞둔 가운데 헬무트·콜서독수상과 폴·니츠美군축협상수석대표는 24일 본에서 회담을 갖고 제네바핵미사일감축회담의 신속한 타결필요성에 합의했다고 서독정부가 성명을 통해 밝혔다.

株價속락세 거래량격감

증권시장이 금주들어서도 속락세가 이어지는가운데 거래량감소를 보이고있다. 최근 장세가 이같이 위축된것은 연초배당락 시세가 예상보다 높게 형성된데 따른 부담과 증권회사특담매물및 신용매물 압박이 작용했고 증권카드제 실시에 따라 심리적위축현상이 나타난데다 최근에 학자금납입등 자금수요가 겹쳐 냉각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종합주가지수도 연일 올들어 최저치를 나타내면서 하락, 25일에는 연초배당지수에 비해 4·27포인트가 내린 1백17·47을 기록했다.

이번週內 개편끝내

民韓·국민地區黨

작년12월중순께부터 시작된 民韓黨과 국민당의 지구당개편대회가 이번 주말까지 모두 끝난다.

25일현재 개편대회를 마친 지구당은 전국 92개지구당중 ▲民正30개▲民韓63개▲국민당61개지구로 국민당은 사실상 대회를 끝냈고 民韓黨은 30일 錦山·論山(위원장金鉉圭의원) 大田東(위원장朴完圭의원) 지구당을 마지막으로 개편대회를 마친다.

民韓黨은 이날 현재 忠南 公州·論山지구당이 지구당사정으로 개편대회를 치르지못했는데 끝내 대회를 치르지 못할 경우 모두 17개지구당이 사고당부가 된다.

한편 국민당은 당초14개未創黨지구와 11개사고당부를 제외한 67개지구당의 개편대회를 마칠예정이었으나 舊共和黨출신의 尹仁植, 韓甲洙, 李昊鍾, 李允約씨등이 개편대회를 열지 않았다.

"地自制 검토용의

民韓서 代案제시해오면 共同으로"

李民正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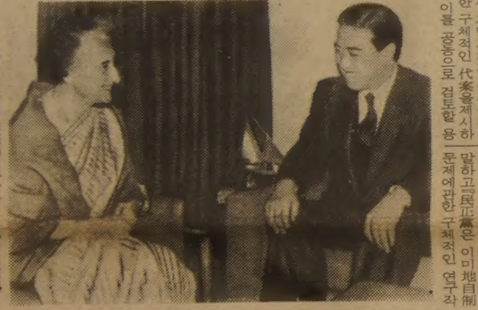
李敏濤民正黨대표위원은25일 『民韓黨이 오는4월 국회에서 지방자치제 실시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代案을제시하면 이를 공동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李대표위원은 이날 麗水지구당(위원장 金在鎬의원)개편대회에 참석하기에앞서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民正黨은 이미 地自制문제에관한 구체적인 연구작업을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52년부터 8년간 地自制를 실시해본결과 현실적인 것에만 신경쓴 나머지 실제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 경험이 있었다』고 지적, 『과거의 경험과 외국의 모델등을 토대로 한국의 실정에맞는 地自制 실시방안을 찾고 있다』고말했다.

李대표는 『民韓黨이 地自制문제에 관한 구체적인代案을 제시한다면 우리당도이에 상응한 검토작업을 끝내게할것』이라고 말해 오는4월말까지는 地自制에관한 연구작업을끝낼방침임을시사했다.

그는 또 柳致松民韓黨총재의 22일 회견과 관련, 『民正黨이 조직·재정·선전등을 독점하고있다는 야당의 주장은 논리에 맞지않는것』이라고 반박하고 『대화와 互讓의 정신을토대로 與野가 협조, 새정치풍토를 이룩해나가자는 것이 民正黨의 기본입장』이라고 덧붙였다.



◇印度를 방문중인 李範錫외무장관이 24일 인디라·간디首相을 예방, 양국간의 주요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있다. 【뉴델리24日UPI=聯】

統一문제·貿易논의 李外務·간디印首相

【뉴델리PTI=聯】印度를 방문중인 李範錫외무부장관은 24일 인디라·간디수상을 예방, 요담을 갖고 南北韓통일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印度의 對韓무역적자를 완화할 것을 다짐했다고 마니·샹케르·아이예르 印度정부 대변인이 밝혔다.

이날회담은 20분간 계속되었는데 지난80~81년동안 印度의 對韓무역적자는 약9천1백40만달러에 달한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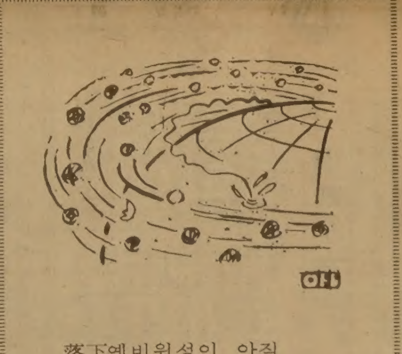
한편 간디수상은 李장관에게 지난해 뉴델리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이 좋은 성적을 거둔것을 축하하였다고 대변인은 말했다.

무인신문판매대 불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社會漫評



落下예비위성이 아직 몇천개가…

地平線

지난해 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양곡소비는 한해에 4㎏이나 줄었는가 하면 고기, 콩, 야채등의 소비가 크게 늘어 났다는 것이다. 즉 쌀밥을 적게 먹고 대신 고기를 많이 먹게 됨으로써 서양사람들의 식성을 닮아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25일자 한국일보 1면보도). ▼아직 분명하게 가려진 이야기는 아니나 이땅에서 처음으로 벼농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기원전 약 5백년께로 추정되고 있다. 그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쌀은 꾸준히 우리의 주식으로 군림해 오고 있다. 그렇다고 아무나 쌀밥을 배불리 먹을수 있었던것은 아니다. ▼형세가 어려운사람들은 잡곡이 주식이었고 한10년 전까지만 해도 화전민촌에선 쌀밥이란 명절·생일에나 먹을수 있는 별식이었다. 부농의 경우 역시 대개는 으레 잡곡을 섞은 상반밥이었으며 흉년이 들면 그마저 초근목피에 의지하는 구황식품으로 연명을 하는것이 50년대까지의 현실이었다. 그틈에 아사자가 생기는일도 비일비재였으니 결코 쌀밥이 주식이라하여 누구에게나 푸짐했던것은 아니었음을 알수 있다. ▼그런 맥락을 이으면서나마 우리의 식생활은 꾸준히 쌀을중심으로 이어져 왔다. 이를테면 구석기및 신석기시대인 선사시대는 완전히 자연식품의 채취가 위주였다. 그러던것이 삼국정립이전의 부족국가시대부터 이미 벼의 재배와 주부식의 분리가 시작되었고 삼국시대로 접어들면서는 식생활의 계층화까지 보이기시작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식생활체제는 정착했고 고려시대에 와서는 한때 몽고풍의 영향을받아 유목민족의육식을 받아들이면서 식생활의 급격한 변천을 겪기도 했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전기인 15·16세기에 비로소 한식의 고유한 발달을 보게되고 조선후기 시대인 17세기서부터 19세기에 걸친기간에 드디어 한식의 완성을 보게된것이다. ▼이어 개화기를 맞으면서 서양문물의 도입과 함께 식생활의 양화시대를 맞자 한식의 입장에서 보면 음식에 혼란이 보였으나 주식인 쌀의 자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우리와 같이 쌀을 즐겨먹던 일본의 식생활이 이미 쌀을 소외하기 시작한 모양이나 이땅에서 그위치는 여전하다. 뿌리깊은 쌀맛의 내력과 식성의 인습을 절로 느끼지 않을수 없다. ▼한데 이제 마침내 우리의 식생활이 쌀을 줄이는것 같은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만큼 그 식성과 식생활사의 변천이 곧 의·식·주로 상징되는 문화의 내실과 어떻게 상관하며 새로운 전개를 보이게 될는지 자못 주목된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Big Sale
※언제나 앞서가는 식품, 삼복식품。
※값이 싸기로 이름난 삼복식품。
※신용 있기로 이름난 삼복식품。

2437 FINCH AVE. W.
☎743-8270

국보 50Lb. ~~$24.95~~ $21.94
갈비 1 pound (frozen) ~~$1.89~~ 98¢
물오징어 per pound ~~$1.39~~ 78¢
(단, 100불 이상에 해당하며 쌀, 라면, 참기름, 갈비, 조기, 물오징어등 Box값은 계산서에서 제외함)
한번 와 보세요! 과연 많이 달라졌어요.

삼복식품

日 有事時 大韓해협 봉쇄

日방위청 "自衛필요따라 公海도 대상"

美·日공동작전 연구키로

한국측 領海문제는 宿題

【東京=宋孝彬특파원】일본 방위청은 나까소네(中曾根)수상의 訪美중 「4해협봉쇄」 발언과 관련, 일본이 유사시 自衛의 필요가 있다면 大韓해협의 일본측영해와 그연장인 공해도 봉쇄대상이된다고 밝혔다.

방위청의 나쓰메(夏目晴雄)방위국장은 24일하오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해협봉쇄에는 대한해협의 일본측영해(3해리)와 한국측영해(3해리) 사이인 17·2해리의 공해까지 포함되며 이것이 방위청의 통일된견해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또한 금명간 시작될 1천해리해상로방위문제에관한 美日간의 작전연구가운데 한국과 쓰시마(對馬島)사이의 이 4해협봉쇄문제가 연구대상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순수한 군사적견지임을 전제, 대한해협의 한국측영해부분이 봉쇄대상에 포함되지않는다면 이지역이 空白수역으로 남게되어 소련잠수함의 대평양진출은 완전히 저지할수없게되고 이로인해 일본해협봉쇄목적이 달성될수없을 것이라고 설명, 이문제에 관해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대처할것인가에 대해서는 알수없다고 말했다.

그의 이같은 발언으로 미루어보아 일본의 4해협봉쇄작전이 韓美日3국의 집단안보체제로 직결되는것은 아닐지라도 일본이 4해협봉쇄목적을 달성하기위해서는 한국의 협력이 불가피한 것임을 시사하고있다. 또한 미국의 축제로 한국과 일본이 4해협봉쇄에 공동대처할 가능성도 없지않다는것이 군사전문가들의 풀이다.

한편 일본신문들은 25일 이같은 일본방위청의 대한해협봉쇄가능성 표명에 대해 「韓美日공동작전의 가능성을 비치는것」이라고 주장하고 일본국내의 새로운 방위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될것이라고 보도했다.

내달 레바논外軍 1陣철수

埃알·아람紙、와인버거 美國防 회견

【카이로AP=聯合】레바논주둔 외국군의 제1진 철수가 오는 2월에 실현될 것이라고 이집트의 유력지 알·아람이 와인버거 美국방장관의 말을 인용, 25일 보도했다.

와인버거장관은 알·아람紙와의 회견에서 이스라엘軍 시리아軍및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잔류병력의 레바논철수여부가 중동평화를 좌우하는 제1차적인 요인이나 레바논軍을 증강하여 이 나라의 평화와 영토를 보전토록 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와인버거장관은 이어 팔레스타인문제는 제2차적인 것이라면서 83년은 레이건美대통령의 중동평화안의 성과가 기대되는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폭탄사건의 현장부근 수색하는 이스라엘軍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일단의 이스라엘 병사들이 24일아침 폭탄공격을 받아 파괴된 레바논·비치호텔 남쪽 4백m지점의 한 건물뒤를 수색하고있다。레바논의 소리방송은 이 건물이 인근의 이스라엘軍 검문소를 향해 발사된 로키트추진 수류탄에 의해 파괴됐다고 주장。【할데 (레바논) 24日 AP電送=聯合】

오늘 年頭教書

레이건、改善策제시

【워싱턴=聯合】레이건美대통령은 그에대한 美국민들의 인기가 하락하고 美경제가 전후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하는등 여러악조건이 상존하고있는 가운데 26일(한국시간) 주로 국내문제를 다룬 금년도 연두교서를 발표한다.

레이건대통령은 관례대로 TV가 중계하는가운데 양원합동회의석상에서 연두교서를 발표하는데 美國의 정치적 분위기는 그가 최고의 정치적 인기를 누리던 지난해 연두교서를 발표했을 당시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

英에 때아닌 食水難

上·下수도勞動者파업…軍非常대기

"세탁기·목욕물등 사용말라" 당부

【런던=AP聯合】영국사상최초로 상·하수도 업무에종사하는 3만여명의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23일밤 (현지시간)부터 파업상태에 돌입함으로써 영국은 때아닌 식수난을 치르고 있다. 이에따라 테임즈·벨리 상수도당국은 런던지역 1백20만주민에게 세탁기나 목욕물사용을 피하고 물은 꼭 끓여먹도록 당부했다.

英국방성은 파업이 시작된 직후 군대가 비상대기 상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장관 톰·킹은 사태가 몹시 심각해지고있다고 의회에 보고하는가하면 정부위기관리팀은 대처수상과 협의를 갖고 국가비상사태선포를 위한 초안을 작성했다고 영국내 통신들이 보도했다. 당국의 7·3% 임금인상안을 거부하고 있는 상수도노조는 15%인상을 요구하면서 당국과 협상을 벌이고있는데 아직 사태가 쉽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蘇위성 爐心부분이 더위험

우라늄 49kg등 核物質

【워싱턴AP·UPI=聯合】현재지구주변궤도를 돌고있는 蘇聯핵추진첩보위성 코스모스 1402호의 나머지 마지막 爐心부분은 24일현재 궤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이 부분은 動力源인 핵물질을 포함하고 있기때문에 대기권에 재돌입했던 동체보다도 훨씬 심각한 방사능오염위험을 던져줄는지 모른다고 미국의 몇몇전문가들이 경고했다.

이 전문가들은 오는2월7일부터 13일사이에 추락할것으로 예상되는 이 爐心부분이 24일에 추락한 동체의 4분의1로 무게는 훨씬 가벼운 수백kg에 불과하나 농축우라늄 235·49kg과 아이오다인 131、스트론튬90、세슘137등 수량미상의 다른 방사능물질을포함하고있다고 밝히면서 美국방성관리들도 코스모스1402호의 나머지 부분이 24일의 동체추락의경우처럼 또다시 전세계적인우려와 관측활동을 불러일으킬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定期간행물 統廢合

정부、예산절감위해

정부는 25일 예산節減을위해 중앙각부처에서 발간되고 있는 정기간행물 2백17종중 중복되거나 단순히 업적을선전하려 발간되는 45종을 廢刊또는 통합키로했다.

公職者 윤리위원에

金澤鉉·權彛赫씨

정부公職者윤리위원회 위원장(金相浹국무총리)은 25일 행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에 金澤鉉대한변협회장과 權彛赫서울대총장을 위촉했다.

행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총리가 위원장、총무처장관이 부위원장이며 내무、재무、법무、국방、문교장관과 2명이내의 학계、법조계대표가 위원이 되도록 규정돼있다.

動資연구소장에

朴肯植씨를선임

한국動力資源연구소는 25일하오 임시이사회를 열고 제2대 소장에 朴肯植씨(한국標準연구소장)를 선임했다。金炳九전소장은 서울大교수로 복귀할 예정.

中共、江青 총살할 가능성

어제 死刑집행유예기간 끝나

【워싱턴=聯合】중공은 25일로 2년의 사형집행유예기간이 끝나는 故毛澤東의처 江青(68)을 총살할지도 모른다고 미국의 더·유·에스·뉴스誌가 24일 보도했다。이신문은 反국가혐의등」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지난2년간 집행유예기간을 복역해온 江이 이번주중 처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社說

OPEC의 瓦解臨迫

—油價下落전망과 우리 當面課題

우리는 요즘 나타나는 국제原油價格의 軟化傾向을 덮어놓고 기뻐만 할것이 아니라 여기에 따르기쉬운 심각한 波及영향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일 또한 중시해야 할것으로 본다.

석유基準價와 연결시키면서 전세계의 관심을 끌었던 이번 제네바OPEC(석유수출국기구)石油相회의는 결과적으로 기름의 총산유량과 그 國別생산량 그리고 差等油價制등 현안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도 보지못한채 사실상 결렬상태로 끝맺고 말았다.

근년에 이르러 원유시장의 공급과잉상태와 이로말미암은 유가의 계속적인 하락경향을 막아보려고 소집됐던 이번 OPEC회의는 사우디아라비아로 대표되는 페르시아灣산유국과 이란 리비아로 대표되는 반대세국가들의 利害관계가 첨예하게 맞서 타협을 보지못한채 사실상 좌초되다시피 됐다。이로써 20年간에 걸쳤던 OPEC支配체계에 마침내 메울수없는 균열이 생기게 된것이다.

그내막을 요약하면 사우디등이 현행 日産1천8백50만배럴수준에서 1백만배럴을 감산하고 國別既定할당을 지킬것을 요망한데 反하여, 이란측등은 사실상의 增産을 뜻하는 既定할당량의 재조정을 주장하면서 差等油價制실시의 수락마저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석유수출국기구의 步調가 맞지않게됨으로써 장차 일부산유국의 增産때문에 석유공급이 더욱과잉상태로 빠져들고 이미 무너진것이나 다름없는 34弗基準價마저 경우에따라서는 30弗이하수준까지 下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석유수입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나라로부터의 수입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있는 우리 석유사정을 크게 호전시키는 계기가 될것임이 분명하다. 동시에 그만큼 外貨負擔이 輕減될것이므로 모름지기 흡족해할 소식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만약 국제원유가격이 배럴當 2弗정도만 引下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年間 약4億弗이상의 外貨를 아끼는 결과가 된다. 그뿐 아니라 物量確保面이나 새 長期購買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보다 有利한 立場에 설수있기 때문이다.

실상 그동안 석유수출국기구는 73년의 中東戰을 계기로한 제1차 오일쇼크는 차치하더라도 79년 利己的인 34弗油價체계를 틀고 나옴으로써 제2차 오일쇼크를 부르게했었다.

그 결과 선진국 경기를 냉각시켜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유발케 한 직접적 「禍根」이었음을 상기할때 이유야 어떠하건 OPEC가 와해위기에까지 빠져들었다는 것은 자승자박이란 느낌마저 없지않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우리로서 반가와할 수만은 없는 다른 경계의 일면이 있음을 또한 잊어 안된다.

그것은 첫째、석유값 하락이 전세계적인 석유소비 즉 수요증가에 박차를 가하는 꼴이 되어 「카르텔」의 횡포를 재연시키기쉽다는 점과 둘째、산유국들의 外換사정을 악화시켜 오히려 국제金融위기를 가속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로서는 산유국의 油價收入불안정이 그들나라의 각종 경제개발계획추진에 차질을 초래、우리建設用役수출에 타격을 받게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것이다。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 또한 없다는 사실을 留意해야 한다.

뿐더러 그동안 높은 석유가격 때문에 석유절약이 절로 이루어지고 代替에너지 또는 에너지節約산업이 활기를 띠어 온것도 사실이다。한데 앞으로 유가하락경향에 휩싸여 이런점들을 소홀히하고 석유낭비 풍조가 되살아나는것같은 일은 결코 있어 안된다.

지금 우리가 우선시켜야 할 과제는 국제원유가 하락에 발맞추어 그동안 不利한 條件에 얽매여 온 원유구매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것이다。또 그引下가 확정되면 국내유가를내리게 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되 그것이 석유소비의 무모한 확대로 직결되는 일은 없도록、깊은 정책적 배려가 따라야 한다。유류절약과 대체에너지개발 그리고 석유탐사사업도 템포를 늦추는 일은 물론 없어야 할것이다.

위험스런 애들집보기

—釜山 세어린이의 죽음이 남긴教訓

밤중에 집을보던 세어린이가 살해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25일자 한국일보 11면 보도)。지난 일요일 밤9시반 釜山영도구에서 父母가 제사지내러 세 어린이에게 집을보게 하고 2시간반후 귀가하던 사이에 아이 셋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는것이다.

이 참사가 강도의 소행인지 또는 어떤 원한관계 때문인지는 앞으로의 수사진전에 따라 밝혀지겠지만 우리는 아직 저항할만한 나이에도 이르지 않은 어린이들을 무참히 숨지게한 그 살인자의 소행을 증오하면서 우선 어린이들의 영혼을 위로한다。범인색출에 수사당국이 온힘을 기울여 빠른 시일안에 검거할것을 아울러 격려한다.

이런 사건이 생겨날때마다 통감하는것은 우리가 평소 어린이의 보호에 좀더 만전을 기하여 그와같은 불의의 사고와 참변을 미연에 막아야 하겠다는 점이다.

강도를 비롯한 흉악범들은 그들이 끔찍한 범행을 계획함에 앞서 대상·시간·방법등에 걸쳐 세밀한 조사와 범행요령을 교묘하게 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량한 시민은 범인들의 그와같은 흉계가 설마 내집을 대상으로 할리야 있겠느냐는 식으로 평소에 안이하게 생각하는데서 필요한 대비책을 마련하지않는 것이 보통이다.

시민들의 이처럼 안이한 생각과 방심상태는 비록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살상을 일삼는 자나 도둑질을 전문으로하는 도배들이 있는 세상 현실에 비추어 보면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는 공교롭게도 祖上의 제사때문에 어른들이 집을 비운 공백시간에 발생、나어린 세아이들이 애꿎게 희생된 것이다.

범인이 아이들만 집에 있는 사실을 알고 그랬는지는 모르나 여하튼 어린애들 끼리 집을 지킨 사실이 그런 참변의 화근이 된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내용은 달랐지만 작년 11월 서울 성수동에서의 노파 피살사건、역시 같은달 仁川서 있은 20대처녀와 4살짜리조카 자살사건등도 범인들이 老幼者만있는 시간을 택하여 범행한점에서 공통적이다.

비단 살인강도가 아니더라도 오늘의 우리 생활환경은 아이들만에게 집을 맡기기에는 사고가 날 要因을 너무많이 지니고있다。누전·연탄가스·화재등은 우리네 가정을 일순간에 파멸케하는 위험요소이다.

그에 따른 사고는 비일 비재했다。혼자놀던 애가 약물을 잘못먹거나 불길에 닿게 변을 당한 일이 없지않았다。목욕탕에 빠지고 이층에서 휘감겨 질식한 사건도 있었다。어린아이들이란 이처럼 연중무휴、잠시도 어른들의 보살핌과 눈길을 게을리 해서는 안되는 실정이다.

이번에 일어난 부산에서의 참변은 물론 전적으로 흉악범의 소행이다。하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평소 충분한 경계나 보호태세에 더 좀 마음을 썼더라면 세어린이에게만 발생에 이르는 참극을 막게 안되었을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불조심에 대해 늘 신경을 쓰듯、그런태도와 똑같이 흉악범과 도범들에 대한 경계를 이제부터 더 소홀히하지 말아야할것 같다。범행자들은 흔히 시민의 허점을 찔러 불행을 몰고 온는것이다.

나어린 子女들에게 집을 지키게 하는 일은 아무리 부득이한 경우라하더라도 가급적 이를 피하여야 할것으로 믿는다。이번 사건의 경우 차라리 집을 비워 두었더라면 한는 아쉬움마저 남기는 것이다.

거듭 숨진 어린 세영혼을 위로하며 흉기에 귀한 子女를 잃은 父母들에게 용기를 잃지말것을 권하고싶다。아울러 수사당국의 기민한 활동으로 범인들을 한시바삐 붙잡도록 한번더 촉구하며 이 사회 모든 이웃들이 서로 어린이를 보호해주는 마음과 손길을 이어야 하겠다.

野의「與獨占」비난에 與 "왜 남의 농사에 曰可曰否하나…"발끈

政局往來

◆키신저著書인용、정치指導力강조

全斗煥대통령은 25일상오 기획원으로부터 올해 첫 업무계획을 보고받는자리에서 『쉬운용어를 쓰라』고 했더니 교통표지의 경우 「좌회전」「우회전」을 「왼쪽돌이」「오른쪽돌이」로 오히려 더 어색한말로 바꾸는 폐단이 있고 농수산부의 경우는 「찐」은 「生薑」라는 어려운 용어를 쓰고 있더라』고지적、이의 是正을 지시.

全대통령은 심사분석제도와 관련 『전해에 작성한것을 적당히 소설식으로 옮겨쓰는 폐단이 없이 內實있는 분석이 되도록 해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또 최근읽은 키신저의 著書중 「경제의 어려움은 반드시 경제전문가에 의해 극복되는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정치적리더십으로 극복된다」는 귀절이 인상적이었다』면서 『미국의 뉴딜정책이 성공한것도 루스벨트대통령의 리더십때문이었다』고 지적하기도.

이날 업무보고는 부총리와 外務長의 보고에 이어 대통령 지시順으로 2시간30분간 진행됐으며 국장이 직접보고한 지난해와는 달리 장관과 外務長이 업무계획을 보고。또 올해부터는 民正黨의 정책위의장과 국회의 관련상임위원장이 참석토록 했는데、이는 黨政협조를 보다 강화하기위한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설명.

◆柳民韓총재발언은 웃기는얘기

李載灐民正黨대표위원은 25일 柳致松民韓黨총재가 光州회견에서 政黨의 균형발전을 주장한데대해 『농사를 지어보지도 않고 남의 농사짓는것을 曰可曰否한다는것은 웃기는 얘기』로서 『야당은 조직강화、黨재정조달등을 위해 더 땀을 흘려야지 투정만해서는 안된다』고 詰責.

그는 『여당이 자금조직 선전을독점했다면 어떻게 53%밖에 당선을 못시켰겠는가』라고 反問하고 『현제도는 여당보다 오히려 야당에서 만족해야할 제도』라며 선거법개정 주장을 一蹴했다.

李대표는 또 『내가 야당할때는 오늘날의 야당이 전혀 겪지못했던 상상할수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만일 야당이 현상황에 불만이 있다면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기자회견등으로는 해결이 안될것』이라고 忠告(?)하기도.

한편 李대표는 이날상오에 걸쳐 열린 麗水(金在鎬의원)順天(柳璟賢의원) 지구당 개편대회 격려사를 통해 『참다운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힘을 키워야하며 그힘은 국민에게 감명을 주는 和合의 힘이어야한다』고 강조.

◆黨총재의出生地는 民正黨의 뿌리

25일낮 慶南陜川에서 열린 民正黨 宜寧·陜川지구당(위원장·柳尙浩의원) 개편대회 참석자들은 이지역이 黨총재인 全斗煥대통령의 출생지라는 점을 始終강조.

柳위원장은 『과거 이지역은 낙후된지역으로서 오랜세월동안 국토개발권밖에 거의 방치돼 왔었다』고 전제, 『그러나 이지역은 全대통령을 배출한 영광스러운고장이 됐고 전국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겠다는 全대통령의 국정 경영방침에 따라 지금은 지역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있다』고 소개.

이어 權翊鉉사무총장은 격려사에서 『이지역을 모범지구당으로 만드는일은 당연한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權총장을 비롯, 이날대회에 참석한 朴銘煥정책조정실장、金炳宇정책연구소부소장、李鍾律부대변인과 裵命國국회건설위원장과 慶南출신의원들은 이날 하오 陜川郡栗谷面에 있는 全대통령의 先瑩을 참배했다.

◆우리에겐 民主回復 意志있다

25일 열린 民韓黨의 全北 全州·完州지구 (위원장 金台植의원) 와 裡里·益山지구 (朴炳一의원) 개편대회에는 柳致松총재를 비롯한 30여명의 당소속 의원이 대거참석한가운데 여당의 獨點·獨走현상등을 계속 공격.

柳총재는 치사에서 『집권 여당은 조직과 자금、행정력을 동원할수있는 막강한 힘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민주질서를 회복시키겠다는 굳은의지가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파국을 막기위해 참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민주질서를 되찾는데 혼신의힘을 기울일것』이라고 거듭천명했다.

林鍾基 총무도 『민주국가치고 地自制를 실시하지않고 국회를활성화시키지 않는 나라를 봤느냐』、高在淸 前총무는 『국회와 언론의 활성화가 되지 않는한 國政지표인 민주주의의 토착화는 口頭禪에 그칠뿐』이라고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

한편 金台植위원장은 『평화적정권교체의 江은 깊고 山은 험하더라도 민주長征을 향해 내디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것』이라고 다짐했다.【全州=金永煥기자】

◆與黨、공격·反駁등 뜨거운攻防戰

民正黨당직자들이 지구당 개편대회에서 야당의 對與비판을 反駁하자 民韓黨측에서는 語不成說이라며 再反擊하는등 場內外 攻防戰은 날로 熾烈.

吳洪錫 중앙상위의장은 25일 『여당의 獨點현상을 비판하는 民韓黨의 소리에 발끈하는 民正黨의 알레르기 반응은 헤아리기가 어렵다』면서 『하루속히 自生力을 회복해 優位정당으로서의 참 면모를 갖춰야한다』고 꼬집었고 孫世一당무위원은 『현행선거법은 야당에유리하다』는 발언을 겨냥, 『比例대표의 配分에서 의석數나 득표율을 무시하고 제1당이 3분의2를 獨占하는것은 非민주적 제도』라고 비난했다

記者의 눈

選擧구경

확실히 선거구경은 신난다。특히 페어플레이로 시종한 선거를 보았을 때는 더욱 뒷맛이 개운하기 짝이없다。—새해들어 잇달아 열린 16일의 한국문인협회선거、20일의 펜클럽 한국본부선거、21일의 한국연극협회선거를 지켜보면서 느낀 심정이다.

이번 문화단체의 선거바람은 狂風으로시작해서 薰風으로 끝난 느낌이다。맨처음 치러진 한국문인협회의 총회는 부위원장선거에서 절반가량의 투표용지를 계표하지않고 당선을 선포했다가 낙선자의 이의신청을 받고 다시 검표를 한끝에 당락을 번복하는 촌극을 벌였다。이를 두고 韓國文學協會측은 『고의적인 농간』이라고 비난했고 집행부측은 『자기들도 감표에 참가해놓고 무슨 소리냐』고 맞섰다.

이로 인한 소음이 가시기전에 열린 펜클럽총회는 문인협선거와 달리 분위기가 조용했다。田淑禧씨와 李佳炯씨가 회장자리를 두고 팽팽히 맞서 선거는 재투표까지 갔지만 고함소리 한번도 들리지않은채 끝났다。田씨의 당선이 확정되고 전임회장인 毛允淑씨가 휠체어를타고 회의장을 나갈때 회원들이 박수로 전송한것도 그날의 분위기에 걸맞는 장면이었다.

연극협회 총회에서 이사장에 당선된 金東勳씨는 『金義卿선배가 저보다유능한분이며 이번 선거에서 페어플레이를 해준데 감사한다』고 인사말을하자 金義卿씨는 당선을축하하는 한편 연극계의 발전을위해 협력할것을 다짐했다.

정초의 과열된 선거분위기를 보고 문화단체의 선거공해를 우려했던 사람들도 그 장면을 보고 『역시 문인들의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입을 모았다。특히 고독한 작업을 하는 문인들이 펜클럽총회를 기해 오랜만에 한자리에만나 담소하는 모습은 보기에도 흐뭇한 정경이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것은 文協선거와 펜클럽선거분위기의 차이다。두 단체가 회원이 거의 비슷한 사람들로 구성돼있고 두 단체의 선거의 「주연」들도 상당수가 중복되지만 한 선거는 시끄럽고 한 선거는 평온히 끝난것이다。같은 문인집단이라도 선거에 따라 과열집단이 될수도있고 양식있는 지식인집단이 될수도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그러나 이번 정초의 선거를보면 문화단체들의 선거수준이 해마다 향상되고 있음을 느낄수 있다。文協선거에서 잡음이 있었지만 과거의 선거에서와같은 무질서는 사라졌다。금전적인 측면이 작용하기도했지만 회원들이 상식적으로 수용할수있는 범위내에서였다。세문화단체선거를지켜본 문화예술인들은 『선거는 자주할수록 좋은것같다』고 입을 모았다.

유일하게 옷점을넘긴 文協도 새이사장인 金東里씨의 주도로 정관을 개정할 계획이다。이것이 성공하여 3년후에는 모든문화단체의 선거가 축제가 되기를 기대해본다.【梁平문화부기자】

人事異動

◆건설부 ▲국립건설연구소장 尹錫吉 ▲수자원국장 柳泰容 ▲裡里지방 국토관리청장 崔炳動

本社來訪

(25日字) ▲崔寅哲씨 (대한야구협회장) ▲盧禎鎬씨 ▲方熙씨 ▲李洪永씨 ▲金宗太씨 (이살롱부사) ▲馮圭明씨 (동경기이사) ▲朴象圭씨 (동전무이사) ▲金得齋씨 (駐이디오피아대사) 부임인사차 ▲新任인사차

새로 개업한
일본식당
"KURI"
栗林

□각종 스시및 일본식요리
□부페식파티등 단체예약 환영
(100명이상 수용함)
□술 면허 있음
(새벽 1시까지 open)
◀ 영업시간 ▶
월~토 11 : 30AM－2 : 30PM
6 : 00PM－1 : 00AM
일요일 6 : 00PM－1 : 00AM
165 Bloor St. E.
(블루어×Church)
☎ : 960－1765

어디에도 비교될수없는
저렴한 가격과
아담한 분위기속에서
고객을 맞이하고있아오니
한번쯤 들려보십시요!

오 멜 백 반	$2.95
칼 국 수	$2.95
우 동	$2.95
짜 장 면	$2.95
김 밥	$2.50
물 만 두	$2.95
곰 탕	$2.95
비 빔 밥	$2.95
불 백	$4.95
갈 비 백	$4.95
생선찌게백	$3.75
두부찌게백	$3.25
만 두 국	$2.95
떡 국	$2.95
떡만두국	$2.95
된장찌게백	$3.25
순두부찌게백	$3.25
통 닭	$4.95
1/2 닭	$2.95

☎537-0432
내고향
통닭집
658½ BLOOR ST. W.

맛사지
DIXIE
HEALTH
STUDIO

Whirlpool * Sauna
Gym * Massage
Luxurious Surroundings
OPEN 10 AM-1 AM
5170 Dixie Rd.
(near airport)
MISSISSAUGA
624-8822

◇「결렬」설명하는 야마니石油相 아메드·자키·야마니 사우디아라비아石油相이 24일하오 제네바에서 이틀동안 열린 石油수출국기구(OPEC) 회담이 결렬된후 기자회견을 통해 그 결렬배경을 제스처를 써가며 설명하고있다。【제네바24日 AP電送=聯合】

「自中之亂」 OPEC 어디로 가나

제네바閣僚會議 결렬의 波長

國別 産油量이 최대 爭點

利害걸린 經濟개발 추진등 팽팽히 맞서

60年10월에 창설

미래학자인 허먼·칸은 지난80년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80년대중에 붕괴될 것이라고 예언한바 있다。그는 석유의 수요감퇴와 공급과잉, 非OPEC산유국의 석유증산등 3가지를 OPEC 와해의주요원인으로 꼽았다。22년전인 지난60년10월 창설돼 70년대들어 3차례의 석유파동을 일으키면서 세계경제에 엄청난 충격을가했던 OPEC는 과연 와해의길을 걷고 있는가?

23, 24일 이틀간 제네바에서 열린 OPEC 13개회원국 각료회의가 결렬됨으로써 이같은 의문과 예상은 그 가능성을 한층 짙게하고있다。

모든 카르텔이 대개 그러하듯이 석유의 생산판매 및 가격카르텔인 OPEC도 석유의 공급이 모자라 가격이 오를때는 카르텔이 제대로 굴러갔으나 공급이 넘쳐 가격이 떨어지자 곳곳에서 불협화를빚고있다。

사실 OPEC만큼 기묘한 카르텔도 없다。회원국인 이란과 이라크가 전쟁을하고 있는가하면 사우디와 리비아는 국교가 단절된 상태다。

이런 나라들이 자리를같이해서 자국의 이익을 협의한다는것부터가 어색하기 짝이없는 노릇인지 모른다。

이번 제네바회의가 실패로 끝난 주요원인은 국별산유량조정문제를 놓고 회원국간에 이견이 첨예화했기 때문이다。

OPEC는 지난해 12월 빈에서 열린 6차총회에서 원유생산상한선을 1일 1천8백50만배럴로 책정했다。이번 제네바회의는 기준유가 34달러를 방어하기 위해 산유량을 줄이고 나라별 생산쿼터를 조정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첫날인 23일 회원국들은 현재의 공급과잉에 대처키 위해 산유상한선을 1천7백50만배럴로 1백만배럴을 낮추자는데 원칙적인합의를 보았다。OPEC최대산유국인 사우디가 자국의 쿼터를 줄이는대신 이란의 쿼터증량요구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선에서 조정됐다。그러나 사우디는 이같은 양보의 댓가로 나이지리아·리비아産등 아프리카産 고급유의 가격을 올릴것을 요구했다。

非會員國이 압력

아프리카는 거리상으로 유럽과 가까와 수송비가 싸게 먹히는 관계로 사우디등 中東産기름과 값이 비슷할경우 中東産은 가격경쟁력을 잃게된다。현재 아프리카産고급유의 가격은 OPEC기준유가 배럴당 34달러보다 1.5달러의웃돈을붙여 팔고있는데 사우디는 최소한 3~3.5달러는더 비싸게 팔아야 한다고주장했고 리비아가 이를 거부했다。이것이 이번 회담이 깨진 주된 쟁점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피차 회담결렬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지난 79년~80년사이 OPEC의 산유량은 1일 최고 3천1백50만배럴에 이르렀다。이것이 지금은 거의 절반정도로 줄어들었다。

석유외에 달리 자원이 없는 OPEC 회원국들은 국가수입의 거의 모두를 석유에 의존하고 있다。이들 나라는 모두 석유이후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석유를 판돈으로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가 팔리지않아 국고수입이 줄어들었다。석유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값을 올릴수도 없다。이에따라 경제개발도 제대로 추진할수 없이 되었다。이란·이라크와 같은 나라는 전쟁을 치르기위해 돈이 궁하기가 이루 말할수 없다。

싼값으로라도 석유를 많이 내다파는도리밖에없다。이것이 이번 제네바 회담이 깨진 진정한 원인이다。

덤핑販賣 못막아

이번 회의의 결렬로 OPEC회원국 사이에 유가의 경쟁적인 인하현상이예견되고있다。매년 5~6%씩 증산을 해온 非OPEC산유국들의 생산량이 이제는 OPEC를 능가하고 있다。非OPEC산유국인 영국이 北海産유값을 현재의 배럴당 33.5달러에서 2~3달러를 내릴계획이다。이미 영향력면에서 非OPEC산유국들에 뒤지고있는 OPEC회원국들은 영국등이 값을내렸는데도 그들의 기준유가 34달러를 고수할수 없게될 것으로 보인다。

기준유가고수를 OPEC존립의 보루라고 믿고 있는 야마니 사우디석유상조차 영국이 기름값을 내리면 OPEC기준가도 내릴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 될경우 현재 기준유가를 무시한채 28달러까지 덤핑판매를 하고있는 이란을 비롯한 여타 회원국들도 경쟁적으로 값을내려 유가의 폭락사태를 맞을수도있다。그것이 OPEC의 붕괴다。

유가하락이 석유소비국들의 부담을 덜어주겠지만 그것은 보다 심각한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OPEC회원국들은 지난70년대의 유가인상으로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였고 이중에서 약 2천억달러를 서방은행등에 예치한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만약 유가하락으로 국고수입이 격감될경우 이들은 예치했던 외화를 빼써야할 입장에 놓인다。이미 그같은 현상은 나타나고있으며 현재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금융위기도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연유하고있다。

金融위기 올지도

오일·달러가 빠져나갈 경우 서방은행들은 그들이 돈을 꿔준 채무자에 대해 빚독촉을 하게될것이고 가뜩이나 원리금상환에 시달리고있는 채무자인 開途國들은 연쇄 지불불능사태에 직면할 것이 우려된다。

특히 이미 지불불능을 선언한 산유국 멕시코의경우 석유판매대금의 인하는 지불불능상태를 더욱심화, 국제금융위기를 가속화 시킬 것이 분명하다。

중동건설수출에 외화수입의 상당부분이 걸려있는 우리나라에도 적잖은 파급효과가 미칠것으로보인다。

제네바회의가 결렬됐다는 소식에 뉴욕및 런던의 증권시장에서는 즉각 석유주식가격이 폭락하고 파운드貨가 기록적인 하락세를 보이는등 충격반응을 나타낸 것도 사태의 심각성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 이같은 금융위기는 막아야한다는 것이 산유국이나 석유소비국 모두의 바람이기때문에 유가의 인하를 막기위한 OPEC회의가 조만간 재개될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OPEC의 한소식통은「페르시아灣 산유국들이 의견통일을위해 다른 산유국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어쨌든 OPEC의 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지금으로서는 판단이 어려운 형편에있다。

【林鍾乾기자】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日政界 颱風의 눈 다나까 求刑

—6年 끌어온 「록히드스캔들」 오늘公判

【東京=宋孝彬특파원】自民黨의 최대파벌 보스이며 나까소네정권을 탄생시킨 다나까·가꾸에이(田中角榮)前수상(64)에대한 록히드사건의 마루베니(丸紅)루트 관련논고와 구형공판이 26일 내려진다。6년동안 끌어온 일본수상의 범죄에대한 구형공판을 계기로 야당은 反다나까운동을 벌이는동시에 정치윤리위원회의 설치등 對與공세를 펼계획으로있어 그렇지않아도 나까소네수상이 訪美후유증으로 먹구름이낀 일본정국이 시끄럽게 됐다。

검찰측은 다나까前수상의 5억엔 수뢰사실을 입증, 법정 최고형인 5년징역을 구형할것으로 전해져 정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있다。

다나까의 록히드사건에대한 1심판결은 오는 가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나까에대한 구형공판은 예산국회의 최대쟁점으로 부각될 것이 틀림없다。

社會黨을 비롯한 야당과 노동관계단체는 구형이 내려질 26일저녁 2만개의 등불데모를 벌여 다나까사저(私邸)를 포위하면서 의원직사퇴를 요구할 계획으로있다。

自民黨은 재판과 정치는 구별돼야한다는 관점에서 록히드공판구형을 무시하려는 주류와 정치윤리를 진지하게 생각해야한다는 후꾸다(福田)·고오모토(河本)등 비주류가 대립되어있어 야당이 내세우는 정치윤리위원회의 설치및 다나까수상에대한 의원직사태권고결의안에 비주류가 동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록히드사건은 76년1월 美록히드社의 코천부사장이 全日空에 트라이·스타항공기를 판매키 위해 정치공작금으로 5억엔을 73년10월부터 74년3월까지 네차례에걸쳐 다나까수상에게 뇌물로 주었다고 증언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이로말미암아 다나까는 도중에서 수상직을 사임, 구속되기까지했으며 6년동안 록히드재판이 계속돼왔다。

록히드社는 마루베니를 통해서 5억엔을 다나까의前비서관 에노모또(榎本夫·56)피고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으나 다나까측은 에노모또의알리바이를 증명하고 수뢰를전면부인했다。마루베니의 창구인 전무 이또(伊藤弘·56)가 법정에서 현금을 넣은 종이상자를 에노모또에 전달했다고 증언한데대해 에노모또는 받지않았다고 맞섰다。

그래서 다나까측이 궁리끝에 내놓은 것이 에노모또의 알리바이였다。

그첫째가 76년 록히드사건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자살해버린 다나까사무소의 운전사 가사하라(笠原)의 차로 현장에 갔다고 주장하는 검찰측에 맞서 에노모또는 수상비서관전용 차인 기요미즈(淸水)운전기사와함께 다른장소에 갔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요미즈 운전기사의 운전기록부에 다른 장소에 간 기록은있어도 그때에 노모또비서관이 탔는지 안탔는지가 불분명해 증서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했다。

다나까측이 내세운 증인들은 모두 기억에의한 증언이어서 별 실효가 없었다。무엇보다도 에노모또의 알리바이에 결정타를 준것은 에노모또와 이혼한 前처 미에꼬(三惠子·34)의 증언이었다。

긴자(銀座)의 호스티스출신인 미에꼬여사는 법정에서『前남편인 에노모또로부터 5억엔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하고『이 증언을 하게된 것은 사회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선것이며, 벌은 한번쏘면 죽는다는 신념에서 이자리에 섰다』고 말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72년8월23일 아침 다나까의 私邸인 사무실에서 마루베니사장 히야마(檜山廣·73)는 全日空에 트라이·스타를 판매하기위해 다나까를 찾아가『잘부탁한다。성공하면 5억엔을…』라고 다나까前수상에게 말을 꺼내자 다나까는『좋아、좋아』라면서 허락했다고 에야마가 법정에서 증언한 것도 결정타가 됐다。

정치가의 수뢰사건은 일본에서 그리희귀한 일은 아니다。

당료파 자민당 간사장으로 이름을 날렸던 오노(大野)를 비롯, 후꾸다前수상, 사또(佐藤)前수상도 기소된바있다。48년 오노간사장은 昭和電工으로부터 20만엔을 수뢰한혐의로 1심공판에서 징역10월 언도를 받았으나 최고재판에서 무죄가됐으며 후꾸다前수상은 大藏省主計局長시절 이사건에 관련, 기소된바있다。

그러나 이번에 다나까前수상의 구형공판은 그가 나까소네정권의 배후실력자라는 점에서 일본政界에 미치는영향이 클수밖에 없다。

◇작년12월22일 록히드 스캔들 재판이 열렸을때 첫 증언을 마치고 東京地裁재판정을 떠나며 손을 흔들어 보인 다나까(田中)前수상。

나까소네、訪美파문 겹쳐 더욱 궁지에

野선 執權기회 겨냥

윤리委구성 총攻勢펼듯

나까소네정권은 사실상 다나까의 힘에의해 만들어졌다는 뜻에서 흔히「다나까소네정권」이라고 불린다。자민당에 나까소네계열은 록히드재판과 정치가 분리돼야하며 또 나까소네정권이 다나까파에 의해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나까소네내각이 성립될 당시부터 각료의 70%가 다나까파라는점에서 각료의 구성이 록히드재판을 의식한 사전포석이라는 의심을 받아왔다。특히 내각을 대변하는 중요각료인 고또오다(後藤田正晴)관방장관과 록히드재판을 지휘할 최고책임자인 하따노(秦野章)法務相이 다나까파라는 점은 이런 의심에 신빙성을 더해주었다。

스즈끼사임후 마지막까지 다나까—나까소네와 맞서 정권쟁탈전을 벌였던 후꾸다—고오모또 非主流는 이러한 당내여론과 다나까에대한 구형공판을 계기로 나까소네정권에 새로운도전을 시도하고 있다。

나까소네측은 정권을 잡을때부터 衆議院해산과 早期總選을 강조해 왔다。이것은 나까소네의 총재당선이 당내의 不和를 더욱 깊게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식한 때문이다。

여기에 訪美결과에대한 議會내의 비판과 록히드재판이 겹쳐 새로운 국민의 신임이 없이는 정책수행이 어렵게됐다는 인식이 더욱 굳어지고 있다。

나까소네 측으로서는 차라리 이것을 계기로 總選에 의한 재신임을받아 당내세력을 재구성해 보겠다는 의욕을 보일만한다。이미 당권을 장악하고 있으므로 선거에서 승리할수 있다는 자신감의표현이기도 한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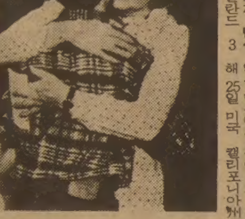
그러나 총선은 社會黨등야당과 후꾸다파등 非主流에게도 세력을 만회할 절호의 기회가 될수 있다。록히드재판을 계기로 정치윤리를 부각시키는 한편 나까소네의訪美결과에대한 비판적인 여론에 편승, 總選에서 나까소네를 패배시키고 대망의정권을 탈취하는데까지 사태를 몰아갈 수있을 가능성도 없지않기때문이다。

날으는望遠鏡 발사

★美·英합작銀河水 탐색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3국은 먼지구름 때문에 지구에서 식별이 불가능한『이름없는 별들』을 찾아내기 위해 25일 미국 캘리포니아州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8천만달러짜리『날으는망원경』을 발사한다。

3국합작프로젝트인 이망원경은 수백만개의 별들(최장거리 3천2백만光年의 별들을 포함)로 이루어진 거대한 은하수들로부터 나오는 적외선을 추적할수 있다고미 항공우주국(NASA) 대변인은 밝혔다。【로스앤젤레스=聯合】



◇「麻藥사용소년」위로하는 낸시 『눈물만 흘리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구해야한다』고 역설하는 낸시·레이건여사가 한 마약사용청소년을 껴안고있다。【24日=聯合】

海外토픽

고추먹으면 심장마비예방

콜레스테롤 급격히 감소시켜

하루에 고추 하나씩 먹으면 심장마비는 피할수있을 것이라고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한교수가 주장했다。

존·네구레스코 부교수는 고추와같은 자극성 식품에 함유돼있는 컵세사인이라는 화학물질은 칠면조의 담즙및 혈액에 포함돼있는 콜레스테롤 농도를『급격히 감소시켰다』고 설명。

칠면조도 사람과같이 고지방분을 섭취하면 동맥경화에 걸리기 쉽다는데 네구레스코부교수는 지난주부터 토끼를 실험대상으로 하기시작했다。

네구레스코부교수는 마늘양파 고추등 자극성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그의 고국루마니아의 농부들이 동맥경화에 잘 걸리지 않는것을 보고 연구를 하게되었다고 말했다。【콜럼버스(美오하이오州)=聯合】

오델로 北京공연

★2年간 고심끝에 결정

셰익스피어의 비극『오델로』가 2년간의 심사숙고끝에 중국식 오페라로 각색되어 곧 북경에서 공연될 것이라고 북경만보가 보도。

이신문에 따르면『새로운 시도』인 오페라 오델로공연을위한 무대, 음악및 의상들은 아직 준비단계에있으나오페라 가사는 중국의 전통오페라전문가들에 의해 이미마련되어 북경실험 오페라단의 분위기를 들뜨게하고 있다는 것。셰익스피어의 희곡은 지금까지 중국어와 티베트어로 공연되어 성공을 거둔바있으나 전혀 다른형태의 예술인 오페라의 경우 성공할것인지 여부는 미지수인데 의상과 분장은 배우의 역할에 따라, 연기나 음악등은 전통적인 중국식 오페라를 따르게된다고。【北京=AP】

◇카르댕春夏服쇼 프랑스의 세계적인 의상디자이너 피에르·카르댕씨가 금년 春夏모드로 내놓은 꽃모양의 기발한 실크원피스가 24일 파리의 한 패션쇼에서 소개되고있다。【파리24日 AP電送=聯合】

메아리

女大生時代

金聖佑 <編輯委員>

중국의 古代神話에는 無繼國이라는 나라가 있다。모든 사람이 남자·여자의 구별이 없는 나라다。남자와 여자가 따로 없으니 당연히 後嗣가 없다。그래서 이름이 無繼國이다。後繼가 없다면 금방 나라가 망할것 같지만 다행히 이나라에서는 모두 長生不死를 한다。죽기는 하되 땅에 묻힌뒤에는 심장이 멎지않고 1백20년이지나면 다시살아난다。살았다 죽었다하여 後嗣없이도 나라는 영원히 번성한다。

그리스 神話에는 헤르마프로디토스라는 非男非女가 있다。처음에는 아프로디테와 헤르메스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었는데 소년시절 그가 목욕하는것을 보고 반한 연못의 妖精 살마키스가 그를 껴안고 신에게 빌자 두몸이 그대로 한몸이 되어버렸다。헤르마프로디토스는 그래서 남성도 여성도 아닌 兩性이다。

神話란 본시 인간의 願望의 일단이 표현된 것이다。인간의 힘으로 마음대로 안되는것을 神話에 의탁한다。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때로는 남녀의 구별이 없거나 남자도 여자도 아니었으면 싶은 때가 있는 법이다。

금년 전기대학합격자에 여학생의 비율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는 보도가 있다。「女大生時代」가 왔다고도 한다。

몰리에르의 희극 「女學者」는 여성의 勉學에 대한 문제를 다룬 작품이다。몰리에르는 이 연극에서 女性의 衒學主義를 비판한다。그는 여성이 학문하는것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너무 전문적인 공부까지 들어가면 여성다움을 잃어 가정은 파괴되고 남녀 모두 불행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있다。2막7장에는 「여자는 겨우 옷도리와 바지를 구별할 정도로만 머리가 진보해있으면 족한것이다」라는 대사가 나온다。

극작가는 예부터 女性無學主義者가 많았나보다。그리스의 에우리피데스도 그의 작품「히폴리투스」에서「나는 똑똑한 여자가 싫다。원컨대 우리집에는 여자가 알 필요 이상의 것을 아는 여자가 없기를」하고 빌었다。그는 다른작품에서 또「착한 여자는 집안에 있어야 한다。아무 쓸모없는 여자가 집밖에 있다」고도 했다。대학을 나와 직장을 가진 현대여성들이 들으면 질겁을 할 말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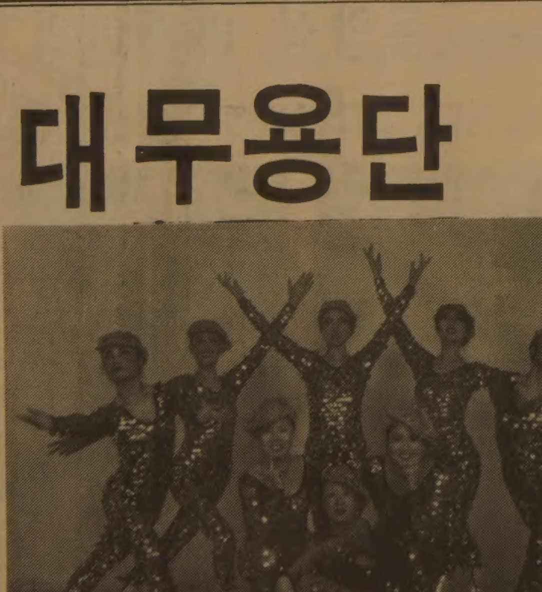
지금 시대는 고대 그리스도 아니고 몰리에르가 살던 3백년전도 아니다。우리나라의 어떤 남녀공학대학에는 신입생의 40%가 여학생인 시대다。

최근의 어떤 조사를 보면 여대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이유중 가장 큰것이 장차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이 지적탐구를 위해서다。여대생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문제는 졸업후의 진로이고 이들의 90%이상이 일단 취직을 희망하는것으로 나타나 있다。취직은 반드시 돈을 벌기위해서 보다는 사회참여와 자기실현을 위해서라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간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대졸업생의 취직의 문은 좁다。대학을 나오면 일단대학원진학이나 해외유학 아니면 결혼을 해서 주부가 된다。막대한 교육비를 투자해서 길러낸 고등인력을 가정에서 死藏시키는것은 국가적 낭비 아니냐하는 논의가 일어난것은 물론 어제 오늘의일이 아니다。그러나 새삼스러운일이 아니라고해서 덮어두어도 괜찮은 일은 아닐것이다。더구나 여대생수가 크게 늘고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남녀학생비율은 남학생 76% 여학생 24%다。이것을 미국의 51%대 49%나 프랑스의 52%대 48%에 비하면 아직 좀 멀었다고 하더라도 올 처럼 신입여대생이 급증하면 영국의 64%대 36%, 일본의 67%대 33%의 수준에 곧육박한다。男女學生比는 이른바「先進國型」이면서 사회구조가 아직도 非先進國型일때 생기는 乖離는 심각하다。消化不良같은 사회적 病을 유발한다。가정주부를 만들기위해서 固體物理學을 가르치고 位相數學을가르치고해야 한다는것은 奇現象이나 낭비이기이전에 健康한 사회가 아닌것이다。「女大生時代」를 맞을 사회적 환경과조건 개선에 감았던 눈을 다시 크게 뜰 때다。이럴때 無繼國처럼 男女의 구별이 없는 나라가 부러워진다。

한국현대무용단



동남아지역·유럽을 거쳐 북미주로는 처음 오리엔탈 파레스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읍니다.

바쁘신중에도 친지와 가족동반하셔서 회포를 푸시기 바랍니다.

인기자매

별자매

1월24일(월)부터

뉴 서울 공연

529 BLOOR ST. WEST
TORONTO, ONT.
예약전화 533-1500

LPG값 引下경쟁에 消費者는 실속없다

국내 정유회사들의 과당경쟁으로 프로판가스의 값이 최고45%나 인하됐는데도 일부충전소의 농간으로 최종소비자들은 종전대로 값을 지불해야하는 기현상이 3개월째 계속되고있다. 일부 충전소나부판점이 메이커로부터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받은후 가정이나 음식점, 택시회사등에는 비싼고시가격으로 판매, 폭리를취하고 있는것.

일부 충전소들 告示價대로
택시會社도 便乘…폭리취해

◇내려도 「안내린값」 국내프로판가스메이커들의 과당경쟁으로 공급가격은 크게 내렸으나 일반가정·택시운전사등최종소비자의구매 공급가격은 고시가격 그대로여서 중간업자들만 폭리를 취하고있다. 사진은 자정넘어 택시 LPG를 넣고있는 모습인데 운수회사의 횡포로 이들이 가장 큰 손해를보고있다.

이들 업자들은 소비자로부터 항의를 받으면 인하폭 범위내에서 할인판매를 해주는 잔재주도 피고있다. 이때문에 가장많은 손해를 보는 소비자는 개인택시와 일부 한시택시를 제외한 회사택시들. 회사측이 인하된 가격으로 구입해주는가스를 사용한후 고시가로 회사에대금을 치러 운수회사만 배불리는 결과를 빚고있다. 프로판가스의 시판가격인하는 서울·부산등전국도시의 공통된 현상으로 서울의경우 지난13일부터 가정용은 부판점공급가격이 정부고시가인 1㎏당7백26원27전에서 최저 4백70원으로 35.2%가 떨어졌다. 또 택시회사—운전사(개인택시와 일부 한시택시제외)로 공급되는 택시용부탄가스는 택시회사공급가격이 고시가인 1ℓ당 4백17원61전에서 최저 2백80원으로 33%나 인하됐으며 지방도 마찬가지로 전북裡里의경우 프로판가스는 1㎏에 4백~5백원까지받고있어 최고45%, 馬山은 부탄가스가 1ℓ 2백76원으로33.9%나떨어졌다.

그러나 택시회사의 경우 1ℓ를 기준으로 고시 가격인 1ℓ당4백17원61전보다 1백37원61전싼 2백80원을 충전소에 지불하고 운전사로부터는 고시가격대로 사납금을 받기때문에 운전사들은 하루평균 6천8백80원50전을 앉아서 손해를본다. 봉유택시50대인 회사의경우 1개월에 9백63만2천7백원의 이득을보는 셈인데다 대량구입에따른 충전소의 할인혜택 외상판매기간연장 자금지원등 실제로는 1천만원이상의 폭리를 보고있다는것이다.

이같은 입장에서 운전사들은 프로판가스 연료비가 줄어든 만큼 사납금(社納金)을 덜 내거나 상여금을 더받는등의 혜택도 입지못하고있다. S운수소속 서울×파2×1×호 택시운전사 金모씨(32)는 지난5일 회사지정 충전소에 갔다가 「가격이 1ℓ에3백40원으로 내렸다」는 안내문을 보고 6만8천원씩 내게돼 있는 사납금에서 하루 사용량 50ℓ의 인하가격 3천8백여원을 빼고 6만4천2백원을 입금하려다 경리사원으로부터 호된꾸중을 들었다.

이에 대해 한국자동차연맹서울택시노조협의회 崔炳鈞간사(36)는 지난해 10월부터 운전사월급제가 실시되면서 사용자·노조간의 임금협정서에 「연료 50%를 회사측에서 공급한다」는 조항과별도로 부칙15조에 「유가변동이 있을때에는 노사협의하에 협정을 갱신할수 있다」고명시돼 있다는점을 지적, 『앞으로는 물론, 지금까지의 사용자측 이득분이 상여금형식으로 운전사에게 돌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정은 프로판가스를 사용하는 일반가정도 마찬가지다. 소매상인 부판점에의 공급가격은 1㎏에 4백70~80원까지 내려갔으나 부판점에서는 각가정과 식당등 소비자에게 정부고시가인1㎏에8백18원에 공급하거나 기껏해야 1백여원을 내려받아 종전보다 1.5~2.5배많은 2백50~3백48원의 마진을 얻고있다.

S가스주인 郭모씨(48·九老區新道林洞)는 『대리점에서 고시가이하로 공급받는것은 사실이지만 인하된가격으로 팔았다가 다른부판점등의 고발로 경고등 처벌을받게된다』면서 『단골에게나 약간씩 깎아서 팔고있다』고 털어놓았다. 하루평균 20㎏의 프로판가스를 사용한다는 D식당주인 李모씨(54·여·서울永登浦區永登浦洞)는 『충전 마진을 생각하면 매일 5천원씩손해본셈』이라며 『정부가 이를 모르는지 모르겠다』고 같은 유통질서의 문란을보고 불평했다.

LPG가격인하는 나름대로 이유가 많다. LPG는 지난해 11월말까지 油公·湖油·京仁·雙龍·極東등 5대메이커에서 정부고시가대로 대리점과 충전소등에 공급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정유회사들의 수입가격보다 보전해주기위해 책정했던 가격을 오는84년부터 국제가격에맞게 높게 판매자유화할 방침이고▲지난해 5월부터 택시연료가 LPG로 전면대체되며 가정수요도 지난81년 19만톤에서 지난해 63만톤으로 급증한데다 올해에는 83만톤으로 늘어날것이 예상돼 매출액이 6천여억원에 달하는 황금시장으로 등장했다. 더구나 지난80년 공업용원료확보를 명분으로 정부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大成에 이어 올해부터 공업용원료의 국내수요가 없다며 시판하기 시작, 국내시장에 끼어들어 이들간에 대리점확보를 위해, 치열한 가격경쟁이 벌어지게된것이다. 그러나 동자부는 이에대해 가격인하경쟁은 시행중인 석유류제품에 대한 최고가격제에 위반되는것이 아니라는점을 들어 『최고가격을 받으라고 종용하는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면서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조정명령을 내릴수있을뿐』이라고 밝혔다. 【金宗來기자】

달리던 「우등列車」에 불

京釜線 清道서 客車1輛전소…人命피해는 없어

【大邱】25일새벽4시35분경 경북 清道郡清道邑高樹4洞 경부선하행선 삼신철교(서울기점360·4㎞지점)를 지나던 釜山지방철도청소속 서울발 釜山행 제65호 우등열차(기관사 오기선·40) 제9호 객차에서 원인모를불이나 객차내부를 모두 태웠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열차는 24일 밤9시30분 서울역을 떠나 釜山으로 가던중 사고지점에 이르렀을때 객차내 세면장배전판에서 연기가 나는것을 승객 최병운씨(37·釜山市海雲臺區 中2洞아파트27동30호)가 발견, 승무원에게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승무원들은 승객들을 다른 객차로 대피시키고 열차를 1·5㎞떨어진 청도역구내까지 끌고가 경찰및소방차2대의 협조를 받아 진화했다. 【聯】

西涯선생 詩文帖등 2권 도난후 5개월만에 찾아

【安東】경북 安東경찰서는 25일 지난해 8월에 도난당한 보물제160호인 政院傳教와 서애(西涯)선생 시문첩등 2권을 도난당한지 5개월만에 회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서적 판매책인 정규씨(25·서울鍾路區益善洞163의743)가 김영수씨(40·충남 牙山郡排芳面北水里)에게 맡긴 보물을 이날 압수했다.

이보물들은 安東郡 豊川面 河回洞 서애선생 유물전시관인 영모각에 진열돼 있었는데 지난해 8월15일하오10시30분부터 16일상오 8시30분사이에도난당했었다. 【聯】

반말한다고 是非 칼로찔러 숨지게

【大邱】大邱 中部경찰서는 25일 사소한 시비끝에 흉기로 직장동료를 찔러 숨지게한 고덕원씨(31·공원·大邱市西區坪里1洞)를 상해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24일 밤9시께 직장동료 이경희씨(26)와 함께 공장일을 마치고 같은 직장의 윤모양(21)집에 찾아가 술을 마시며 놀다 반말을 한다고 시비를 하다 흉기로 이씨를 찔러 숨지게 했다는것. 【聯】

콤프레서 人道돌입

연결고리풀려…1명죽고 4명다쳐

24일하오4시40분께 서울 麻浦區老姑山洞57의4 서울신탁은행新村지점앞 지하철 2호선 4—13공구(시공자 주식회사漢陽)공사장위에서 경기운송소속 경기7아5217호 8톤덤프트럭(운전사 鄭世澤·25)에 끌려가던 1톤가량의 콤프레서가 트럭과 연결된 고리가풀려 분리되면서 인도로 뛰어들며 길가던 閔大泓군(25·崇田大산업공학과4년)을 덮쳐 그자리서 숨지게하고 친구 安丁德군(25·전자과3년)등 4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이날 사고는 지하철공사장에서 흙을 싣어나르는 트럭운전사 鄭씨가 현장감독지시에 따라 약5백m떨어진 염곡장에 있던 콤프레서를 트럭에 연결한뒤 제대로확인하지않고 노면이 고르지못한 복공판위로 끌고가다 연결고리가 빠지면서 일어났는데 콤프레서는 중앙선을넘어 20m정도 멋대로 굴러가면서 때마침 서울모임에 참석키위해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던 閔군등을 덮친뒤 토큰판매점을 받고 멈췄다.

醫療要員 63명 리비아로 進出

우리나라 간호원등 의료요원63명이 아프리카의 리비아에 진출하게 됐다.

25일 노동부에 의하면 리비아 병원협회 회장 칼리드박사가 최근 내한, 트리폴리의 카드라병원등 2개종합병원에 근무할 우리나라 여자간호원55명과 의료기사 8명등 모두63명의 의료요원을직접 선발했다는것.

이들 의료요원들은 빠르면 이달중에 모두 출국하게 되는데 1인당 월평균 9백달러의 보수를받고 앞으로 2년간 근무하게 되어있다.

"女裝호스티스雇用 유흥업소 實態조사 하도록"

서울地檢 긴급指示

속보=서울지검은 25일 女裝호스티스들을 고용해 퇴폐적인 변태영업을 하고있는 소위 「게이바」가 최근성업중인것(한국일보1월25일자11면보도)을 중시, 단속 근거를 마련하기위해 실태를조사하도록 경찰에 긴급 지시했다.

이에따라 서울시경은 이들업소의 퇴폐행위가 현행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허가조건에 위배되는 업태위반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및 경찰은 일단 몇몇업소의 소위 라이브쇼나 스트립쇼가 현행법상의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는 것으로보고있으며 그밖에도 위반사실이드러날경우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大邱 중앙商高서 學校담 무너져 넷死傷

【大邱】25일낮 12시30분께 大邱市壽城區壽城4街1145 중앙상고화장실 뒷담이 무너지면서 담밑에서 놀던 박동주씨(40·大邱市壽城區壽城4街1131)의 2녀 두희양(동천국교 2년)과 원남양(5)이 그자리서 숨지고 장녀 선희양(12·동천국교5년)과 3녀경희양(7)이 중상을입고 인근명신의원에 입원 치료중이다.

이날사고는 학교변소 뒷담 길이20m가량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담밑에서 앉아놀던 4자매를 덮쳤다. 【聯】

연탄가스 새들어 셋방女人 중독死

【釜山】24일밤9시30분께 釜山市南區水營洞449유한근씨(53)집에 세들어사는 나금남씨(29·여)와 나씨의장녀 이은경양(4) 장남 이종헌군(2)등 일가족3명이 연탄가스에 중독된것을 나씨의남편 이규갑씨(33)가 발견, 부산의료원으로 옮겼으나 나씨는 숨지고 어린이들은 소생했다. 【聯】

犯人것으로 보이는 남자머리카락 발견

釜山 세어린이 被殺사건…鑑定의뢰

【釜山】속보=부산萊洞세어린이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影島경찰서는 25일 피살된영숙양(13)의 오른쪽 손아귀에서 남자것으로 보이는 모발2개를 발견, 정확한 성별·혈액·연령등을 알아내기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했다.

경찰은 길이10㎝가량의 이모발이 영숙양이 변을당할때 범인의 머리를 잡고 반항을해 빠진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또 사건발생다음날인 지난24일하오3시께 피묻은 잠바의 세탁을 맡겨왔다는 시내光復洞 J세탁소주인 김모씨(43)의 제보에 따라 피묻은 흰색 나일론잠바 주인을 수배한끝에 최모씨(21·부산시서구완월동)를 찾아냈으나 범행과의 관련사실을 밝혀내지못하고 최씨를 일단 돌려보냈다.

경찰은 사건발생 하루가 지나도록 결정적인 제보또는 목격자가 나타나지않아 정확한 사건현장과 피묻은 장갑이 버려졌던 어린이들의 가족·주변수사등 다각적인 수사를 펴고 있다. 【聯】

기관고장 표류漁船 찾아내

세船員 모두生還

기관고장으로 浦項 동북방70마일 동해해상에 표류중이던 양산수협소속 광진호(13톤)선원 3명이 표류12일만인 24일상오10시 초계중이던 해경항공기에 발견돼 해경정이 출동, 구조됐다.

25일 해군에따르면 이날상오 해경항공기가 동해상을 초계중 표류중인 광진호를발견하고 해군에 연락, 해경정이 출동, 구조에 성공했다는 것. 광진호는 해경정에 예인돼 25일새벽3시 浦項항에 도착했다.

구조당시 3명의 선원들은 표류 5일까지는 미역과 물로 연명했으나 그 나머지 1주일간은 물 한모금 마시지못해 아사 직전이었다. 사고선박은 잡어를 잡기위해 지난12일 부산을 출항, 13일 경남남해대변에 귀항 예정이었으나 출항직후 부산부방해상에서 기관및 통신고장을 일으켜 표류중이었다.

南美, 아콩카과峰도전 孫칠규씨

失踪 9일만에 救助

【부에노스아이레스=聯】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경찰은 24일 한국인 등반가 손칠규씨(31)가 실종9일만에 구조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손씨가 단신으로 南아메리카에서 가장높은 산중의 하나인 아콩카과峰(6,964m)에 도전했다가 길을잃어 실종됐으며 수비대에 의해 이날 구조된것이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구조 당시 손씨는 체중이 8㎏이나 주는등 몹시 고생한 흔적이 보였다.

終末처리장 未備로

분뇨 公海上에 버려

蔚山市 배출량넘어

【蔚山】蔚山시가 설치가동하고 있는 분뇨종말처리장의처리능력이 배출량을 다 커버하지못해 수거한 분뇨를 민간선박을 빌어 공해상에 내다버리고 있다.

25일 蔚山市에따르면 지난 76년 4억원을들여 시내呂川洞 1265번지 1천2백여평에 하루1백㎘의 분뇨를처리할수 있는 종말처리장을착공, 77년 11월부터 가동해오고 있으나 연간 8%나 되는 인구증가율로 처리능력에 비해 배출량이 훨씬 웃돌고 있다는것.

시당국은 현재 상주인구 50여만명이 하루 배출하는 분뇨는 4백여㎘에 달해 처리능력이외의 양은 부득이 공해상에 갖다버릴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聯】

獨立유공자 孫鶴賀씨

독립유공자 孫鶴賀옹(사진·서울東大門區長安2洞37의1)이 25일상오 9시30분 시립동부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81세.

유족으로는 미망인 朴貞德여사와 2남1녀. 발인 28일하오10시. 장지 경북 月城郡江東面吾琴里선영. 연락처 ⑧1621.

大邱 市場北路서 3개 점포에 불

【大邱】23일 하오6시께 대구시중구 시장북로125 고려페인트(주인원종조·37)에서 원인모를 불이나 3개점포 50여평을 태워 1천5백여만원(경찰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20분만에 꺼졌다. 【聯】

少年의 호통

버스정류장 껌팔이 羅相烈군

"창피하지 않아요?" 새치기에 망신줘

서울 시청 앞이나 光化門 버스정류장에서 새치기를 하려고 얼쩡거리다가는 羅相烈군(17·사진)에게 호된 꾸지람과 무안을 당할것이다.

늦게오고도 줄의 앞쪽으로 슬슬 와서 비비적 거리는 얌체들일 경우 정장의 신사거나 요조숙녀거나 관계없이 羅군은 거침없이 호루루기를 불며 소리를 질러 망신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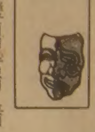
『창피하지도 않아요. 뒤로 가서 줄을서서 차례를 기다리시오』

羅군은 항상 질서잡기의 미무라지같은 새치기꾼들을 정확히골라내 줄의 맨뒤로보낸다. 승객들뿐 아니라 정류장질서를 깨뜨리는 버스운전사들도 羅군에게 수없이 혼이 났다.

정류장표지판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차를세워 승객을 골탕먹이고 기다리던 「줄」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운전사, 남의 차앞을 가로막아 차를대는 얌체운전사나, 손님을 한명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 장시간 정차해서 승객과 뒤차를 골탕먹이는 운전사들을 보면 羅군은 역시 참지못하고 호통을친다.

『남생각좀 하시오. 질서를 지켜야할것 아니오』

이러한 羅군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이 동네에서 껌을 파는 소년 중에 한사람이다.



버스정류장에서 껌을 팔다보니 매일 거듭되는 무질서를 보았고 참다못해 「호통」을쳐서 질서를 잡기로 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별난 녀석 다보았다』고 어기던 운전사들도 이제는 羅군의 꾸지람을 어느정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羅군은 낮에는 좌석버스회사들의 차고로 가 세차를 해주고 하오5시부터 11시까지 정류장에나와 껌을 팔아가며 교통정리를 시작한다.

교통정리를 해주고 차가 출발하기전 껌한통을 운전사들에게 들이밀고 『아저씨 껌한통만』하고 씨익 웃으면 운전사들도 따라웃으며 껌을 팔아준다. 또 새치기하려는 사람을 적발해내면 줄에서 기다리던 승객들도 통쾌히 여기고 껌을 팔아주기도한다.

羅군의 호통과 호루루기소리가 계속되는한 光化門에서의 새치기란 어림도 없다.

한때 껌팔이 소년의 호루루기 소리를 껌파는 商術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있다. 이때는 누가 호루루기를 불어야 할까. 【鄭在龍기자】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주택, 토지, 기업체 부동산 매매
Paul Kim 김 평
Sales Representative
Canada Permanent Trust Co
1560 Bayview Avenue Toronto
(B)488-2444 (R)759-4560

알립니다

토론토지구 한인회의 신임 집행부임원진이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교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회 장	장순채		
부 회 장	이기훈·변의섭	문 화 부 장	김상옥
총 무 부 장	김진현	차 장	정철화
차 장	서만수	교 육 부 장	김옥자
재 무 부 장	우기주	차 장	박지연
차 장	최연길	체 육 부 장	서인현
섭 외 부 장	김원도	차 장	장광휘
차 장	김인병	청소년지도부장	김명환
기획조사부장	김병선	차 장	박원모
차 장	김영환	홍보출판부장	서만수
사회봉사부장	함효상	차 장	김현규
차 장	이충희	부 녀 부 장	오정숙

토론토 한인회 회장 장 순 채

동양식 디자인의 수입품

다양한 색갈과 품질 Rugs·담요·카펱 직사각형 둥근형 8각형

Sarouk

Kirman

Chinese

OLYMPIC CARPET
763-4307
2763 Dundas St. W.
(at the corner of Indian Rd. Cres.)

FREE UNDERPAD
이 쿠폰을 2월15일까지 가져 오시면, 카펱을 살때 under-pad(카펱 밑에 까는 스폰지)를 Free로 줍니다.
COUPON

바둑소식

棋聖戰 2局에 最大관심

1敗한 趙治勳名人、오늘부터 對戰

藤澤、임기응변 뛰어나지만 日棋界선 趙名人 승리예상

사실상「韓·日戰」…이기면 6개타이틀席卷

제7기 棋聖戰7번승부 제2국이 26·27양일간 日本長崎市 清風호텔에서 열린다。「괴물」로 불리는 노장 후지사와(藤澤秀行·58) 棋聖과 통일천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趙治勳(26)名人의 이 세기적인 대결은 1국보다 2국을 앞두고 더욱 주위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있다。

이것은 기사로서의 「停年」을 훨씬 넘어선 후지사와棋聖이 예상을 뒤엎고 13·14일의 제1국에서 趙名人을 꺾었기때문。1국이 있기전 일본바둑팬들은 「슈우꼬」(秀行)의 괴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趙名人의 도전을 꺾기 어려울것으로 보았다。임기응변과 특이한 감각으로 공찰 연결을 타개하는 후지사와지만 제한시간이 9시간이나되는 2일간의 대국에서도 초읽기까지 몰입하는 32살연하의 趙名人 끈기앞에는 맥을 출수없으리란 생각에서였다。

지금까지 두 기사가 가진 대국의 전적에서도 趙名人은 11승2패로 후지사와棋聖에 앞섰다。이 대국들은 대개하룻만에 끝나는 작은 규모의 대국이었지만 趙名人이 2일짜리 바둑에 능한 장고파라는점을 감안할때 후지사와에게 더욱 불리한일이었다。따라서 대국이 있기전 日本棋院이 프로및 아마기사들을대상으로 예상투표를 실시하자 趙名人의 승률이 55%, 후지사와棋聖의 45%를 여유있게 앞질렀다。

그러나 제1국에서 趙名人은 제한시간 1분을 남기는 각박한 초읽기속에 분전했지만 결국은 지고말았다。후지사와棋聖은 제한시간을 2시간46분이나 남긴채 4집반의 여유있는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趙名人이 첫국에서 공찰 패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싸움은 이제부터다。제한시간을 많이 쓰는것도 그의 오랜 습성으로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래서인지 日本의 매스컴들도 2국을 앞두고 더 흥분하는 기색이다。

◇趙治勳名人

◇藤澤 棋聖

日本棋院이 발행하는 대표적인 바둑주간지 「週刊碁」는 1국을 앞두고 보도했듯이야할 두기사의 對戰성적이나 대전일정을 1국이 끝난 다음에야 싣고있다。여기에는 이번 棋聖戰을 「韓·日戰」으로 본다 일본바둑계의 심리가 그대로 깔려있는지 모른다。

趙名人이 이번에 후지사와棋聖을 꺾으면 일본기사들이 지금까지 이룩하지못한 사실상의 통일천하를 하게된다。물론 일본바둑계에는 대소의 수많은 타이틀이 있으며 趙名人이 棋聖位를 따낸다해도 7대타이틀중 棋聖、名人、本因坊、十段位와 鶴聖、秀哉盃등 6개의 타이틀을 차지한데 불과하다。

그러나 상금이 1천만엔대가 넘으며 2일씩의 7번기로 진행되는 棋聖、名人、本因坊등 3대 타이틀을 함께 번에 차지한 기사는 일찍기 없었기에 사실상 통일천하나 다름없다。

이런 영광스런 고지를 향해 돌진하는 한국인기사를 막아내야할 일본인 城主가 회갑을 바라보는 늙은 기사라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결코 즐거울수는 없을것이다。그러나 첫번대결에서 후지사와棋聖이 이기자 이들은 老益壯에대한 기대감과 그의 지구력이 끝까지 갈것인가하는 불안감이 겹쳐 부쩍 흥미를갖고 있다。

◇趙治勳對 藤澤전적

대 전		趙(11승)	藤澤(2승)
▲74년	10傑戰本戰	○	×
▲75〃	〃	○	×
▲76〃	8強戰3번승부	○	×
▲〃	〃	×	○
▲〃	〃	○	×
▲78년	天元戰本戰	×	○
▲79〃	NHK杯	○	×
▲〃	早碁選手權	○	×
▲80년	天元戰本戰	○	×
▲〃	鶴聖戰리그	○	×
▲81년	〃	○	×
▲〃	〃	○	×
▲〃	〃	○	×

◇제7기棋聖戰7번승부日程 ▲제1국=1월13·14일 光市 不動苑▲제2국=26·27일 長崎市 清風호텔▲제3국=2월 2·3일 富山 도야마호텔▲제4국=16·17일 小樽 北海호텔▲제5국=23·24일 姬路市 播龍▲제6국=3월 9·10일 岐阜 杏藍亭▲제7국=16·17일 東京 福田家

◇지금까지棋聖戰도전기戰積 ▲제1기(76년) 藤澤秀行9단(4승0패)—橋本宇太郎9단▲제2기 藤澤(4승3패)—加藤正夫9단▲제3기 藤澤(4승1패)—石田芳夫9단▲제4기 藤澤(4승1패)—林海峰9단▲제5기 藤澤(4승무패)—大竹英雄9단▲제6기 藤澤(4승3패)—林海峰9단 【梁平기자】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 · 2361

제14기 名人战 挑戰者決定리그

第8局第8譜 1—2~130 (각5시간·덤5집반)

白(6段) 徐 能 旭〈1敗〉
黑(7段) 徐 奉 洙〈1勝〉

이들은 현재 토너먼트방식인 最高位戰을 제외하고 도합6개의 신문바둑 본선리그의 단골멤버로 활약하고 있다。그리고 徐7단의 경우는 새삼 전적을 말할필요가 없겠지만 徐6단은 徐7단에 이겼다 졌다하면서 王位戰과 覇王戰에서는 서로 선두다툼을 하여 팬들의 열띤 성원을 받고있다。

누차 말하지만 기량면에서는 종이 한장차이라해도 좋을만한데 徐6단쪽이 역시 관록면에서 조금 뒤지는게 사실인것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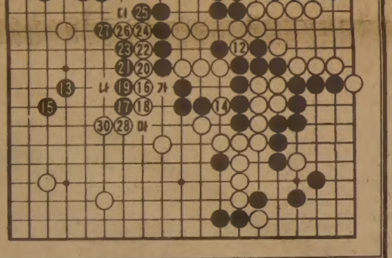
이 바둑에서도 그런점이 현저하여 지금까지 승부수를 강행한 보람도없이 노련한 徐7단에 말려드는 느낌이 짙다。

黑17、기발한 묘수

전보에서 黑13으로 白14를 허락하고 15로 좌변을 견실하게 확보한수가 여유만만했으며 특히 그 한두발 아래까지 육박하지 않은점이 밀도록 침착했다。 黑인가 白16의 삭감수에 대한 黑17은 『기발한 묘수』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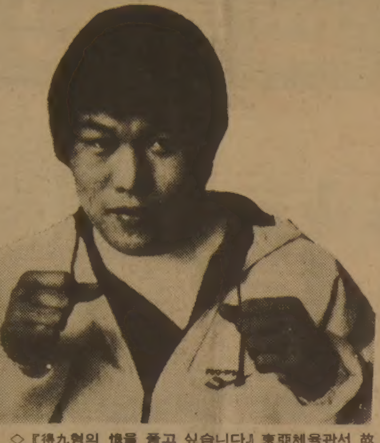
이하 黑29까지 기호지세인 대변화는 일견 黑이 손해인듯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그 이유를 趙南哲8단의 해설로 알아보면 「우선 黑27까지 좌변黑집이 완성되고 다시 黑29로써 상변白집을 파괴한 기틀이 생겨서 黑의 작전은 여기서도 대성공」이라고 한다。

黑17로 「가」에 잇고 白「나」 젖히면 黑「다」로 해가당하는것에 비교가 안되는것이다。白도 28로 계속 「다」하고 「라」로 끊으면 黑「마」의 역습을 당한다。【一凡】



"金得九선배 恨 풀고 오겠다"

黃俊錫·美커리 챔피언 決定戰


◇『得九형의 恨을 풀고 싶습니다』東亞체육관서 故 金得九선수와함께 연습했던 黃俊錫은 WBA웰터급 타이틀 결정전에앞서 다시 한번결의를 다졌다。

◇커 리

"피나는훈련 勝算있다"

WBA웰터級 어제 壯途에…2월14일 一戰

오는2월14일(한국시간) 美國댈라스근처 포트워드(텍사스주)에서 세계정상에 도전하는 黃俊錫(21)이 25일밤 KAL편으로 출국했다。

金煥珍에 이어 올들어 두번째 세계도전에 나서는 黃俊錫의 표적은 프로복싱 WBA 웰터급 챔피언。WBA웰터급 3위에 올라있는 黃은 WBA·WBC 웰터급 통합챔피언 슈거·레이·레너드의 은퇴로 공석이된 WBA왕좌를 놓고 동급2위의 도널드·커리(미국)와 12라운드 타이틀 결정전을 벌인다。포트워드는 커리선수의 고향。지난해 美國의 링에서 숨진 東亞체육관 선배 金得九의 한을 풀고 連敗의 늪에 빠진 한국 프로복싱을 구하기위해 黃은 비장한 각오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12월6일 신라호텔에 훈련캠프를 설치하고 맹훈련을 쌓아왔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14㎞의 로드웍으로 일과를 시작, 하오4시부터는 하루걸러 12라운드씩의 실전대비스파링을 거듭, 지금까지 2백라운드이상의 스파링을 소화했다。

저녁에는 바벨등을 이용한 체력강화훈련을 해왔다。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하면 커리와 비슷한 스타일의 선수를 선정, 스파링을 가질예정이며 시차적응후 대전일주일전에 댈라스로 출발할 예정이다。

黃은 21연승(12KO) 9연속KO승으로 상승세를 타고있는데 『승산이 있다』는게 美측의 주장。

金賢治매니저는 『기술과스피드에서는 俊錫이가앞선다。아웃복싱을 하는 커리는 상대가 들어오면 껴안는데 이를 깨기위해 체력이 좋아야한다』고 말한다。

黃과 나이가같은 커리는흑인선수로 현재15연승(11KO)도 기록, 역시 상승세에 있다。프로복서로서의 경력이 짧은대신 1백승 이상의 두터운 아마추어 전적을 갖고있다。커리는 엉덩이를 뒤로 빼고 들어가는 세련되지못한 복싱을 하지만 펀치력은 좋다。

黃의 가장 큰 난제는 신장의 열세。172㎝의 단신파이터인 黃으로선 7㎝나 더 큰 커리를 어떻게 사정권안에 묶어두느냐가 문제다。

黃은 이번 대전서 우리나라 세계도전선수로는 최고액수인 4만달러(3천만원)를 받는다。

◇양선수대비표

黃俊錫		도널드·커리
WBA웰터급3위	랭킹	WBA웰터급2위
21승(12KO)	전적	15승(11KO)
파이터(훅)	스타일	아웃복서(스트레이트)
21	나이	21
172㎝	신장	179㎝
79년11월18일	프로데뷔	80년12월26일

WBC S밴텀級 鄭巡鉉 2위마크

【멕시코시티(멕)=聯】WBC(세계복싱평의회)는 15개 체급별 1월의 챔피언및 랭킹10위까지의 선수명단을 발표했다。WBC 1월랭킹에는 한국선수가 11명이 올라있다。

◇체급별 한국선수 랭킹

▲수퍼웰터급=챔피언 토머스·헌즈(미국)⑩白仁鐵▲수퍼라이트급=챔피언 레로이·할리(미국)⑦金相賢▲수퍼페더급=챔피언 보비·차콘(미국)⑥崔忠日⑧李日福▲페더급=챔피언 환·라포르테(푸에르토리코)⑥柳煥吉▲수퍼밴텀급=챔피언 윌프레도·고메스(푸에르토리코)②鄭巡鉉▲수퍼플라이급=챔피언 라파엘·오로노(베네수엘라)②金喆鎬⑩裵錫哲▲플라이급=챔피언 엘레온시오·메르세데스(도미니카공화국)④權順天▲라이트플라이급=챔피언 일라리오·사파타(파나마)④張正九⑦金煥珍

李美雨 5戰全勝 선두

卓球대표 선발전 申得花·李眞淑·尹璟美 3승1패

제37회 東京세계탁구선수권대회(4월28일~5월7일) 파견 한국대표 최종선발전이 25일 남녀후보13명씩이 참가한 가운데 文化체육관에서개막됐다。당초 이번 선발전에는 남녀후보15명씩이 출전할 예정이었으나 국가대표 金浣 金琦澤(이상제일합섬) 安海淑(동아건설) 梁英子(이일여고)등 4명이 부상으로기권, 나머지 13명씩이 풀리그로 순위를 가리게됐다。

1、2위에든 선수는 자동적으로 대표로 선발되며 나머지 3명씩의대표는 협회추천에의해 결정된다。

대회첫날 여자부리그에서 왼손잡이 전진드라이브의 李美雨(제일모직)는 白順愛(대한항공) 金貞美(동아건설) 金淑(이일여고) 李慶子(제일모직) 李眞淑(대한항공) 등 5명을 연파하고5전전승으로 선두를달리고있다。

지난 종합선수권 챔피언인 申得花(부산코카콜라)와 李眞淑(대한항공) 尹璟美(서울신탁은) 등 3명이 3승1패로 공동2위 그룹을, 辛庚淑(이상동아건설)이 3승2패로 5위를 마크했다。白順愛(대한항공)는 국가대표 尹璟美(서울신탁은)를 2—1로 꺾어 파란을 일으켰으나 다른게임에서 부진했다。

한편 남자부리그서는 尹吉重(삼호) 李在勳 吳炳萬(이상 제일합섬) 朴昌益(대우중공업) 權五澤(한성대) 安宰亨(부산광성고) 등 6명이 각각 4승2패로 선두그룹을 형성한가운데 혼전을벌이고 있다。

尹吉重은 李昌勳(성무) 權五澤에 패했으며 국가대표 李在勳은 尹吉重 趙東元(국정교과서)에 무릎을꿇었다。

고교랭킹1위인 安宰亨(부산광성공고)은 전 국가대표 盧潤寬(국정교과서) 朴昌益 등을 2—0으로 완파、선전했다。

국가대표 金琦澤은 吳炳萬 李在勳에게 각각 2—0으로 패한후 어깨근육통으로 기권했다。

◇첫날중간순위

▲남자부리그=①尹吉重(삼호) 朴昌益(대우중공업) 權五澤(한성대) 李在勳 吳炳萬(이상제일합섬) 安宰亨(부산광성공고) 이상4승2패 ▲동여자=①李美雨(제일모직) 5승②申得花(코카콜라) 李眞淑(대한항공) 尹璟美(서울신탁은) 이상3승1패⑤辛庚淑(동아건설) 3승2패

◇남자부리그에서 李正鶴(부산光星工高)이 吳炳萬(제일합섬)과의 경기서 드라이브를 걸고있다。

冬季體典 오늘開幕

제64회 전국체육대회 동계빙상대회가 26일 泰陵국제스케이트장에서 개막된다。

이번대회는 26일 상오11시 개회식에이어 캐나다토론토 아이스하키팀(중학부)을 포함한 8백46명의 선수가 泰陵스케이트장과 東大門 실내링크에서 3일간 열전을벌인다。

예년과같이 시도간의 경쟁없이 개인전및 단체전으로열리는 이번대회에서 스피드스케이팅은 낮12시 남자대학부 5백m를 시작으로 거행된다。

피겨스케이팅은 이에 앞서 상오7시 東大門실내 링크에서 막을 올리고 아이스하키는 경기수가 많아 25일 하오 중·고등부 1회전 3게임을 먼저 가졌다。

體育部 새廳舍 江東 新川洞에

果川 종합청사 이전계획을 취소한 體育部는 25일 서울 江東區 新川洞 11의7에 있는 새마을 교통회관에 새청사를 마련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교통회관건물은 앞으로 건설될 국립경기장과 기존南서울종합운동장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대한체육회및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건물 신축부지와 인접、앞으로 조성될 올림픽스포츠타운의 중심부에 자리잡게된다。

印尼대통령盃복싱 첫날 3선수敗北

【자카르타(印尼)=聯】제6회 인도네시아대통령컵국제아마복싱대회에 출전중인 한국은 24일 벌어진 개막첫날 경기에서 페더급의 李春吉을 비롯、3명의 선수가 1차전에서 모두 패해 부진한 스타트를 보였다。

張吉山 〈1649〉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09)

경순의 등뒤에서 마루로 통한 미닫이가 스르르 열렸다。치마 스치는 소리가 멎었다。이경순은 그대로 밭을 향하여 묵묵히 앉아 있었다。묘옥이 잠시 그의 뒤에 선듯 하더니 스르르 주저앉아 경순의 등에 얼굴을 가대었다。

『제가… 잘못이어요』

묘옥은 이제는 없어진 버릇이지만, 예전에는 달쪽이 있게되면 저도 모르게 경순을 도장 나으리라고 부를 때가 있었다。지금도 그 여자는 하마터면 말의 첫마디에 도장 나으리라고 부를뻔 하였다。이경순은 곰방대를 놋재떨이에 소리나게 두드렸다。요란한 소리가 울리니까 그제서야 어둠 속에 묻혔던 집과 밭과 기물들이 제 자리를 얻는 것같았다。이곳은 그들의 가정이었다。

『여분이는 자나?』

경순은 예사롭게 그렇게만 말하였고, 묘옥은 잠시 경순의 등에 기대어 있다가 물러나 앉았다。

『저는 어쩌 그런지 모르겠어요。죽은 이를 얘기만 나오면…』

경순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묘옥은 이어서 말하였다。

『차라리 저승이 없었으면 싶어요』

경순은 어깨를 좌우로 천천히 흔들면서 대꾸하지 않았다。그것은 묘옥의 감정과 느낌에 관하여 알고는 있으되, 모른척하고 있겠다는 표시이기도 하였다。나는 다 안다。그러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몸짓이었다。더 나아가 시조라도한수 읊조리면 되겠건만, 차마 소리내지는 못하였다。묘옥이 나직하게 말하였다。

『저는 천성이 사내를 안분(安分)치 못하게 하는 바가 있는것 해요』

경순은 그제서야 뒤를 돌아보았고, 묘옥의 작고 동그란 어깨를 감싸 안았다。

『누구 탓이 아니오』

경순은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말하였다。

『여분이를 잘 길러야지』

경순은 자기 말에 확신이 없는채로 그렇게 중얼거렸다。자기가 아직도 여주의 인도참이었더라면 거의 틀림없는 말이 될것이지만 일찍부터 세상을 등져온 삶이 아니던가。처음에 여주를 떠나 압성으로 묘옥의 출행을 따라갔을적부터 그의 생애는정해져 버렸던 것이다。입으로는 그렇지않다고 말하고 있으되, 묘옥은 그를 범상한세속의 삶에서 뿌리째 뽑아 내었던 것이 아닌가。묘옥은경순을 넘어마저 뒤흔들 사내로서 사랑하는 것이아니었다。묘옥이 경순에게 품은 것이란 깊은 존경과 육친의 따뜻한 정같은 것이었다。그들의 생활은 묘옥의 꺼진 불꽃이 이미 체념에 이르렀을 즈음하여 시작되지 않았던가。이경순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묘옥이 옥에서도 그러한 경순의 어딘가 모자란듯한 빈 마음을 짐작하였다。경순은 구월산에서 만났던 길산의 어렴풋한 인상을 떠올렸으나, 확실하지는 않았다。묘옥이 그리워하였던 점은 광대는 그 흔적이 없었으나, 경순과 묘옥은 영영 그러한 처음의 마음으로 되돌아 가지는 못할 것이었다。그것은 길산의 탓도 이들 두 사람의 탓도 아니었다。그저 인생이 그렇기 까닭이다。

『주무셔요』

『그래、잡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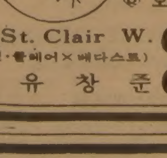
묘옥은 자리를 깔고 여분이가 자는 안방으로 가지않고 경순의 곁에 누웠다。이경순은 묘옥과 나란히 누워서、이 집채가 문산포의 격랑을 따라서 먼 바다로 한없이 흘러가고 있는듯이 느껴졌다。

JAPANESE RESTAURANT
MIKA
みか
⊙일본요리
⊙냄비우동
⊙튀김
⊙사시미
⊙월~금 : 점심 12~2:30
저녁 6~10:30
⊙토~일 : 저녁 6~10:30
2750 Danforth Ave
(at Dawes Rd.) Toronto
Tel: (416) 698-0283

중국 레스토랑
Golden China
(식당 겸 술집)
⊙바베큐 전문(오리 등등)
⊙홍콩 전문요리사로
칸토니즈 음식.
⊙Dim Sum.
195 Dundas St. W. (던다스×유니버스티)
☎ : 977—3777 (오전10시—새벽1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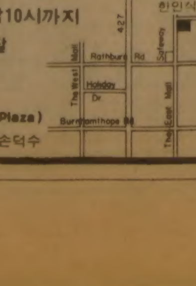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뱅쿠잇 방,
오후 4 : 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W.
781-9122

한국인이 경영하는□홍콩 스타일 전문
Rose Garden Restaurant
■Free 주차장
■각종 술 full-licence 취득
■주문시 배달합니다.
■매일(년중무휴)
오전 11:30~새벽 1:00까지
538 St. Clair W. (세인·클레어×배다스트)
656-0456
유 창 준 654-66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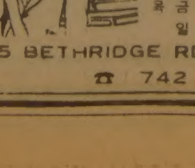


JAPANESE RESTAURANT
Sushi Bar
HAMAMOTO
Authentic Japanese Cuisine
○일본요리
스시, 사시미 덴뿌라.
○소단체 예약 환영.
○Take out도 합니다.
■술 면허 있음. (LLBO)
Dalecliff Plaza
221 Ellesmere Road, Scarborough, Ontario
(just west of Warden) Telephone: 444-2211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 드리는
한인식품
한인에 필요한 식품 생활필수품 일체
연중 무휴 아침10시부터 밤10시까지
시내 전역과 근교 무료배달
15 West Deane Pk. Dr. (east mall Plaza)
Etobicoke Tel. 622-2643 대표 손덕수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금.토.일 저녁
월 화 수 :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YAMAHA
건반악기 Porta Sound
Beginners sound great in minutes.
MOZART MUSIC CENTRE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30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883-9407
LUCAS YUN 윤 호 섭

蘇衛星동체 印度洋 추락

어제 상오7시21분에 방사능落塵여부 조사

原子爐부분은 2월3~8일 大氣圈에

【워싱턴·모스크바UPI聯合】 분해된 소련의 核추진 첩보위성 코스모스1402號의 가장큰 부분인 胴體부분이 24일 상오 7시21분(한국시간·이하같음) 인도에서 동남쪽으로 2천9백㎞ 떨어진 인도양상공(남위25도·동경84도)에서 대기권에재돌입, 20분후 인도양에 추락했다고 美국방성이 발표했다.

소련관영 타스통신은 코스모스1402號가 이날 인도양중심부 상공의 대기권에재돌입한후 소멸해버렸다고 보도했다.

타스통신은 또 코스모스비행관제센터의 발표를 인용, 원자로가포함돼있는이위성의 나머지부분이 대기권에 진입할 시기를 오는2월3일~8일사이로 추정, 당초 예상했던 2월중순보다 앞당겨발표하고 분해된 3개부분중 최초로궤도를 이탈한 한부분은 지난달30일 이미 불타없어졌다고 말했다.

美국방성도 동체부분이 인구가 조밀한지상에 떨어지지않고 바다에 떨어짐으로써방사능오염피해는 일단 우려하지않아도 될것이라고밝혔다.

美국방성은 해군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한 해독팀을 주거반이 코스모스1402호의 동체가 대기권에 재돌입한지역에서 방사능낙진여부를 수색하고있다고 밝히면서 동체부분이 대기권재돌입당시 모두 불타버린 것같다고발표했다.

原子爐 추락때까지 科技處 대책반활동

과기처 방사능 재해대책반은 24일 소련의 핵추진위성 코스모스1402호가 인도양에 추락함에따라 비상사용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책반은 2월초순으로 예상되는 원자로부분의 대기권돌입시까지 위성궤도의 추적과 정보처리등종전과같이 계속 활동하기로했다.

全대통령、比노동相등에 훈장

全斗煥대통령은 24일 상·하오 청와대에서 카타르의알리·아흐만·알안사리勞動사회성장관, 필리핀의 브라스·오플레노동성장관, 말레이지아의 마크·혼·칼 노동人力省장관을 차례로 접견하고 修交훈장 光化章을 각각 주었다.

이자리에는 鄭漢株노동부장관이 배석했다.

빙상選手 격려

全斗煥대통령은 일요일인 23일상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泰陵스케이트장을 찾아 마침 빙상훈련중인 선수들의 훈련모습을 참관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약1시간30분동안 스케이트장 시설을 둘러보고 86년아시아경기대회, 88년올림픽에 대비, 훈련중인 선수들을찾아 강훈련을통해 힘과 기량을 열심히 닦으라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또 金晟集선수촌장등의 안내로 스케이트장 내부시설을 돌아본뒤 예산책정상태를 묻고 시설의 보수, 미비점등을 찾아내 잘 보완, 선수들이 연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吳정무, 네팔등訪問 오늘 대통령特使로

吳世應정무 제1장관은 대통령特使로 방글라데시와 네팔, 스리랑카등 3개국을 방문키위해 25일 출국할예정이다.

吳장관은오는2월1일부터 5일까지 스리랑카를방문, 자예와르데네 스리랑카대통령의 취임식에 경축사절로 참석할 예정이다.

監査院、작년4천1백18건 違法적발

稅務·認許可·금융·인사등 관련 6개不條理 중점척결

監査院은 24일상오 감사원강당에서 올들어 첫감사관계관회의를 열고 금년도 자체감사지침을 시달했다.

감사원은 이 지침에서 올해 자체감사는 公職사회정화, 예산절감, 성장발전저해요인제거, 기관별主機能·主任務달성에 역점을두어 실시하고 감사방향은 자체감사의 內實化와 자율적 시정확대, 綜合감사체제의 기반확충등에 두어 실시토록했다.

감사원은 특히 稅務, 認·許可및 규제단속, 물자, 공사, 금융, 人事등 고질적인 6개부조리에 대해 當該기관과감사원이 공동으로 非理를 중점 척결하고 기관별로 1~3개의 殘存부조리를 선정, 역시 當該부처와 감사원 공동으로 척결키로 했다.

감사원은 또 예산절감을위해 불필요한 人力의 감축과 조직정비및 조직기능의 중복배제, 물자需給및 在庫수준의 適正化를 실시해나가고 대다수국민에게 불편을주는 법령·제도, 국민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 불합리하거나 행정환경변화에 맞지않는 법령·제도등 성장발전저해요인을 제거해나가도록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지난1년동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단체등 모두 1천44개기관을대상으로 감사를실시한결과 4천1백18건의 違法부당사항을 적발, 총 3백2억3백만원을 追徵·회수補塡했고 18억9천8백만원을 還給·追給했으며 5백61명을 징계·問責·고발하거나 非違관련자로 當該기관에 통보했다고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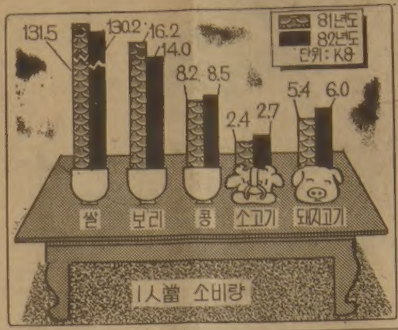
기관별 감사처리 결과는▲국가기관의경우 2천2백47건에 2백20억8천7백만원을 追徵·회수補塡, 1백82명에대해 징계·문책·고발·통보조치했고▲지방자치단체는 1천1백80건 38억1천2백만원을 추징·회수補塡, 2백71명에대해 징계·문책·고발·통보조치했으며▲정부투자기관의경우 4백30건 30억7백만원을 추징·회수補塡, 55명에 대해 문책·고발·통보조치한것으로 돼있다.

쌀밥을 덜 먹는다

—작년부터 달라진 한국人의 食生活

양곡소비 (1人)年4kg감소

콩·야채·肉類 크게늘어



지난82년중 우리나라 국민1인당 쌀·보리·밀등 양곡소비량은 1백92·2kg으로 전년인 81년의 1백96·0kg보다 3·8kg(3%)가 줄었다. 그러나 감자, 고구마를 비롯, 쇠고기등 육류와 야채, 과일소비량은 주식대용으로 급격히 늘어나 상당한 식생활개선이 이루어진것으로 밝혀졌다.

24일 농수산부가 집계한 82년12월말현재 농수산통계에 따르면 82년중 1인당 양곡소비량은 ▲쌀의경우 1백30·2kg으로 전년도의 1백31·5kg보다 1·3kg이 소비감소됐고 ▲보리쌀 역시 81년의 16·2kg보다 2·2kg이 준 14·0kg으로, ▲밀은 전년도의 30·9kg보다 약간 준 29·7kg으로 각각 나타났다.

그러나 주곡소비량 감소추세와는달리 ▲옥수수는 1인당 3·2kg(81년 2·9kg) ▲콩은 8·5kg(〃8·2kg) ▲감자·고구마 4·6kg(〃4·3kg)으로 당초 정부가 예상한 수급계획보다 1인당 0·2~0·3kg씩 늘어났다. 특히 감자·고구마의 경우는 지난71년 1인당 11·4kg에서 매년 감소추세를보이다가 11년만에처음으로 소비증가추세를 나타냈다.

육류소비량(정육기준)은 ▲쇠고기가 81년중의 1인당 2·4kg보다 12·5%증가한 2·7kg ▲돼지고기는 81년의 5·4kg보다 11·1%증가한 6kg ▲닭고기는 81년의 2·4kg보다 4·2%가 늘어난 2·5kg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1인당 육류소비량은 전년도의 10·2kg보다 9·8%증가한 11·2kg이었다. 이같은 소비실적은 역시당초예상보다 0·3kg이 증가한것으로 식생활이 그만큼 다양화된것으로 풀이된다.

1인당 우유소비량은 81년의 14·4kg보다 0·2kg이 증가했으나 계획16·4kg보다는 1·7kg(10·4%)이 감소했고 계란은 81년의 1백14개보다 1개가 늘었다.

일본의경우 지난 80년말현재 1인당 연간 쌀소비량이 78·9kg에 불과, 지난80년 한국의 1백32·4kg보다 59·6%인 53·5kg이나 적게 소비했고 육류는 일본이 1인당 22·4kg을 소비, 당시 우리나라의 11·3kg의 2배수준을 소비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1인당 육류소비량은 외국(81년중)의 濠洲44·2kg, 日本5·0kg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나 쇠고기소비에 편중돼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난해동안 쌀을비롯, 땅위에 열리는 모든 열매가 풍작을 이뤘다고 할만큼 작황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밀·大豆·옥수수·수수등 작물의 과다도입으로 82년도의 식량자급도는 사상 최저수준이었던 81년보다는 약10%포인트 상승했으나 여전히 53·0%수준으로 81년에이어 최저수준에 머물렀다.

쌀의 경우 82년중의 풍작으로 지난65년이후 최저수준이었던 81년의 66·2%보다 26·6%포인트가 상승한 92·8%까지 늘어나 4년만에 90%수준을 다시 넘었으나 80년흉작으로 도입계약된 미국산쌀이 27만톤 도입됨으로써 자급률을낮췄다.

보리쌀 자급률역시 81년의 72·7%보다 13·2%포인트 상승했으나 옥수수는 81년의 6·1%에서 4·9%로, 기타 (수수)는 81년의 89·1%에서 22·5%로 크게 낮아졌다.

감자·고구마는 65년이후 계속 1백%의 자급도를 나타냈고 콩은 풍작으로 전년도의 29·7%보다 다소 높아진 32·4%로 나타났다.

82년말 현재의 농가인구는 각종작물의 좋은작황과 경기침체에따른 도시고용기회의 감소등으로 농촌탈출 템포가 둔화됐다. 그러나 농가구는 전년도의 2백3만가구에서 1백99만5천 가구로 1·7%, 농가인구는 81년말의 9백99만9천명에서 3·2%가 감소한 9백68만3천명으로 여전히 감소추세를 지속했다.

OPEC、産油量 감축

現日産 천8백50만 배럴서 천7백~천7백50만배럴로

【제네바UPI聯合】 석유수출국기구(OPEC) 13개국석유상회의는 23일밤 총산유량상한선을 현재의 하루1천8백50만배럴에서 1천7백만~1천7백50만배럴로 감축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고 루베르토·칼데론·베르티 베네수엘라석유상이 말했다.

칼데론석유상은 24일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일괄타결안중에서 총산유량쿼터를 하루 1천7백만~1천7백50만배럴로 하향조정하고 그범위내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산유량을 현재의 하루7백만배럴에서 4백50만~5백만배럴로 감축하는등 회원국별 산유쿼터조정안이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OPEC긴급석유상회의에 참석중인 각국대표들은 세계석유시장의 수요감퇴에대처, OPEC의 高油價를 유지하기 위한 減産방안이 타결안의 일부로 포함돼있으나 최종결정은 가격구조에관한 구체적인 협의결과에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칼데론석유상은 『우리는 산유량 상한선과 국별산유쿼터문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사우디와 北아프리카산유국인 알제리, 리비아간에는 高級油차등유가문제에대한 이견이 해소되지못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계人士 폭넓게 迎入

金國民총재 創黨2주기념사

金鍾哲국민당총재는 24일 『올해는 국내정치가 量的인 차원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올것으로 전망되며 이기회에 국민당은 理念과 뜻을같이하는 경륜있고 名望높은 많은 人士들을 폭넓게 擧黨的으로 迎入할 계획』이라고말했다.

金총재는 이날상오 중앙당사에서 가진 創黨2주년기념식의 기념사에서 『그동안 국민당은 야당으로서의 자세정립과 국민의사의 代辯, 의회민주주의의 창달을위해 노력해온 결과 是是非非를 가리며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자리를 굳혔다』고 평가하고 『정치활성화는 정치인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에의해 이루어져야하며 이같은 노력이 부족할경우 정치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과 실망은 더욱深化될것』이라고 덧붙였다.

金총재 재선확실 黨務회의서 추대

국민당은 24일 당무회의에서 次期총재후보로 金鍾哲현총재를 提請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金총재는 오는2월3일 정기전당대회에서 다시 총재로 선출될것이 확실시된다.

국민당의 총재는 黨憲上 당무회의의 제청을받아 전당대회에서 在籍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토록 되어있다.

나까소네 國會연설

蘇軍事力증강에 대비 日도 자위력향상 도모

【東京=宋孝彬특파원】 나까소네 일본수상은 24일 하오 정기국회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美日외교를 주축으로 아시아·太平洋제국과 우호를 증진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 訪美에 앞서 한국을방문, 全斗煥대통령과 한일정상회담을 갖게되었다』고 말했다.

나까소네수상은 또 소련의 군사력증강에따라 일본도 자위력을 증강, 대처해 나가야 할것이며 美日안보조약과 평화헌법의 테두리내에서 방위력증강5개년계획을 착실히 추진, 자위력의 질적향상을 도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韓·EC 高位실무자회담 올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盧載源외무차관은 24일 訪韓중인 레스리·필딩EC(歐洲공동체)對外관계총국장의 예방을 받고 금년부터 韓·EC고위실무자회담을 매년 정기적으로 갖자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社会漫評

거 뭐라고 읽는거요?…

地平線

「神農本草經」이란 일종의「약물사전」이 있다. 중국의後漢때(기원후25~220년)만들어진 책으로 약초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광물질의 약물도 다루고있다. 기원전 8세기초에 시작되는 춘추시대, 그뒤 전국시대이래 쌓여온 약물에 대한 지식을 집대성한 것이다. 나아가서 하나의 약초보다는 몇가지를 배합해서 쓰는게 좋다는 것을 알게돼「약재」란는 처방학이 비슷한때 나왔다.

▼本草經에 遼東에서 생산되는 고구려의 蔘이 기록돼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불로장생을 꿈꾸는 우리가 아득한 옛날부터 산삼을 靈藥으로 써왔다는 증거다. 그러나 산삼은 이제 한국땅에서는 거의 멸종상태다. 세계최대의 산삼수출국은 이제 미국이다. 한해 3천9백만달러(80~81년도)어치나 수출하고 있다. 그 84%가 홍콩으로 팔려가고 있다.

▼인삼의 종주국인 한국은 그러나 세계최대의 녹용수입국이다. 세계녹용거래량의 약80%를 한국이 수입해오고있어 한약재 수입액의 58%가 녹용·녹각이다. 81년의 경우 녹용을 수입하기위해 쓴 돈은 자그마치 8천2백만달러나 됐다. 보약 좋아하는 한국사람의 식욕은 여기에 그치는게 아니다. 뱀도 우리 일부에서 좋아하는 강장·정력제의 하나다.

▼부산에 코브라탕 음식점이 생긴 것은 작년10월이었다. 무서운 독을 지닌 코브라를 통째로 고아 한마리 5만원에서 10만원씩 받고있다는 보도였다. 지난 연초에는 독없는 큰 뱀을 해마다 5백내지 1천마리씩 수입하겠다고 미국정부쪽에 신청한 업자도 나섰다는게 알려졌다. 길이 1m52㎝이상, 무게 1kg이 넘어야 된다는 조건이었다 한다.

▼뿐만이 아니다. 눈살 찌푸려지는 얘기지만 산모의 태반이 정력제로 팔리고있다는 사실도 밝혀지고있다. 서울시내 병원에서 나오는 태반을 하나에 3백원씩 주고 사서, 말린뒤 한약방에 8백원씩 받고 팔아온 사람들이 작년말 붙잡혔었다. 반달곰동장이 인기를 끄는 것도 보약때문이다. 쓸개 한냥쯤 나오는 5년생 반달곰이면 1천만원가깝다고 한다.

▼보약 좋아하는 우리네는 드디어 독을 먹게됐다. 코브라독을 먹은 사람이 중태에 빠졌다고한다. 보약좋아하고, 정력제 좋아하는 우리 풍토를 부끄러워하지 않을수없다. 돈좋아하고 권세좋아하고, 건강좋아하는것은 사람의 본성이라고 할지모르지만 먼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평범한진실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세계최대의 녹용수입국의 체모도 이쯤되면 얼굴붉힐 일이요, 보건행정당국도 정신 차릴 일이다.

한국일보

우리의權益은連合한新聞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 총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야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전 화 : (B)(416) 497-8900
(R)(416) 633-7892 (David Chae)
* 주택·대지·상가·사업체·투자처·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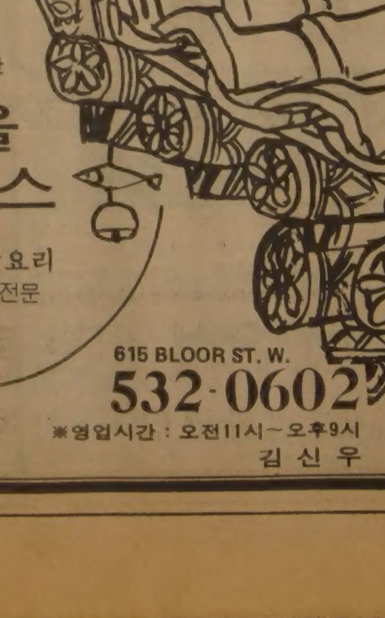
— 경 력 —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 무역회사 경영(벵쿠버)
◆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 현재 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채 준 성

〈개업4주년 특별봉사〉
금번 일류 중국요리사(류지달씨)를 모시고 제가 다시 가게를 인수, 새로 다양한 메뉴(한·중식)로 모시겠사오니 1차 왕림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김 신 우 올림.

特별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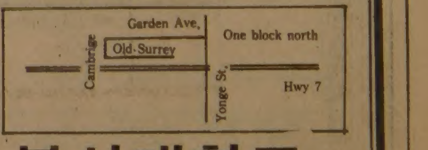
볶은밥	$3.25
비빔밥	$3.25
곰 탕	$3.25
짜장면	$3.25
짬 뽕	$3.25
빈대떡	50¢
에그롤	50¢

함경도식 명물 식혜백반 $3.50



고향의 맛
서울 하우스
한식, 중국요리
— 각종 국수전문
615 BLOOR ST. W.
532-0602
※영업시간 : 오전11시~오후9시
김 신 우

부산대학교동창회
신년파티
일 시 : 1983년1월30일(일) 오후6시
장 소 : 175 Old Surrey Lane 〈Richmond Hill〉Hwy7 북쪽
연락처 : 731-0460 Mr. 김
530-0522 Mr. 조



부산대학교
동창회

안테나

蘇 對日비판 계속극렬 나까소네 韓美방문후

소련은 나까소네(中曾根康弘)일본수상이 한국과 미국을 방문한후 연일 매스컴을 동원, 극렬한 對日비판을 전개하고있다고 일본의 아사히(朝日) 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모스크바발기사에서 소련 매스컴의 對日비판은 미국과 한국의 군사블록化에 일본이 적극적인 역할을함으로써 극동의 군사적균형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게되었다는데에 그 초점이 모아졌다고밝히고 對日비판배경에는 극동지역에서의 미국과 일본의 군사력증강을 더이상 묵과할수 없다는 소련軍部의 강한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東京=聯】

胡中共당총서기 訪日 올가을 投資協定체결

중공당총서기 胡耀邦이 올가을 1주일동안 일본을 방문할것같다고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이신문은 정부소식통들을 인용, 胡耀邦의 일본방문중 양국간 2중과세방지협정과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胡는 스즈끼·젠꼬(鈴木善幸) 前일본수상이 중공을 방문했을때 訪日초청을 받은바있다. 【東京=聯】

레이건支持 38%불과 뉴스위크 就任후최저

미국인들의 레이건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취임이후 최저수준인 38%로 떨어진 것으로 22일 시사주간 뉴스·위크지가 공개한 여론조사결과 밝혀졌다.

뉴스·위크가 7백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38%만이 레이건대통령이 훌륭하게 직무수행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6개월전 조사에서는 48%, 그리고 지난81년에는 60%가 그같이 응답했었다.

이에반해 50%가 그의 대통령직무수행에 불만을 표시했고 나머지 12%는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뉴욕=AP】

人民公社해체를完了 北京 鄕·鎭廳등으로

北京직할시는 인민공사의 개혁계획에 따라 北京市산하의 30개 인민공사를 각기①鄕·鎭黨委員會와 ②鄕·鎭廳 그리고 새로운 경제조직인 農工商總公社로 해체하는 작업을 모두 완료했다고 23일 大公報가 北京발로 보도했다.

北京市는 기왕의 인민공사에 대한『政·經분리』계획의 실험시로 지정됐었는데 公社해체후 이미 지방黨과 鄕의 지도력및 건설과 경제개발에 초보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大公報는 전했다.

이 신문은 또 중부지방인 江蘇省도 오는 2월중순까지 산하 68개縣과 시의 농촌인민공사에 대한 개혁을 벌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홍콩=聯】

"경제위기단결로克服" 社會主義國頂上회합

7개국社會主義정부지도자들은 23일 파리에서 비공식회합을 갖고 공산주의와 보수주의적인 해결방안은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타개하는데 실패했으나 사회주의는 선진국과 제3세계국가 모두를 위해『국제적인단결』을 이룩하는데 유효할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社會黨의 초청으로 이날『변화의 행동자』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인 사회주의정부지도자들은 사회주의라해서 경제위기를 해결할수있는 기적의 묘약은 될수없으나 단결을 통한 위기타개에는 도움이 될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파리=UPI】

蘇의 對日비판엔 極東의 美·日군사력증강을 묵과할수 없다는 의도가…

美·蘇 軍縮협상 再開

休會2개월만에 27일 제네바서

◇유럽執權 社會黨 頂上들 한자리에 프랑스執權社會黨 주관으로 23일 파리에서 열린 유럽7개국 社會黨 정부지도자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의 모습. (左로부터) 파판드루 그리스수상, 소르사 핀란드수상, 팔메스 웨덴수상, 모르와 프랑스수상, 조스팽프랑스社會黨 제1서기, 크라이스커 오스트리아수상, 곤살레스 스페인수상. 【파리23일AP電送=聯】

나토의 核兵器배치 움직임에 蘇선 협상보이콧 위협

【제네바聯=聯】美·蘇군축협상대표들은 2개월간의 휴회기간을 끝내고 오는27일제네바에 다시모여 유럽배치核미사일감축규모에 관한 회담을 속개한다.

지난12일 미국측 수석대표로 새로 임명된 폴·니츠씨는 27일 유리·키친스키蘇수석대표와 제네바에서 처음대좌, 14개월간 끌어온 군축협상의 타결을위해 마지막활동을 벌이게된다.

이번 제네바군축협상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오는12월에 순항및 퍼싱Ⅱ미사일 5백72基의 유럽배치를 강행할 계획으로 있어 12월이전에 타결돼야 한다는 시한에 쫓기고 있다.

核미사일 배치일자가 다가옴에 따라 일부 西歐정치인들은 미국이 타협안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종래의 강경자세를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와함께 소련관리들도 서방측의 유럽核미사일 배치계획에 대한 비난을 강화하고있으며 새중거리미사일 배치가 강행될 경우 전략무기감축협상 (START)도 보이코트하겠다고 위협했다고 美관리들이 전했다.

蘇聯내부 腐敗심각 軍部 쿠데타 可能

【東京=聯】영국에 망명한 前소련국가보안위원회(KGB) 간부였던 블라디미르·쿠지치킨씨는 23일부터 영국선데이·그라픽紙에 게재하기시작한 「안드로포프·KGB·소련의부패」라는 제목의 수기에서 「안드로포프서기장은 黨의 부패라는 문제를 안고있어 결국 소련이 가는곳은 軍部에의한 쿠데타밖에없을것」이란 견해를 피력했다고 일본의 지지(時事)통신이 24일런던발로보도했다.

이통신에 의하면 쿠지치킨은 소련당간부의특권과 부패상은 일반국민에게 공산주의이데올로기가 완전히 환상으로 끝나버렸다는 생각을 갖게해 주고 있으며 이러한 소련내정세의 악화때문에 소련軍장교들중에는 黨이 이미 국가권력을 담당할힘이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있는 추세에있다고 말했다.

쿠지치킨은 특히 소련중견장교들가운데에는 최근들어 『소련에 언젠가는 쿠데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소리가 늘어나고있다고 강조하고 이때문에 KGB내부에서도 소련군내질서유지를 위해 극단주의자나 反體制派, 부패黨간부등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있다고 덧붙였다.

蘇軍철수實現모색 아프간·파키스탄 접촉중

蘇고위관리가 밝혀

【로마聯=聯】소련의 한 고위관리는 23일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이 소련군의 아프가니스탄철수를 실현키위한 정치적해결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소련공산당 국제국의 부국장이며 공산주의 이론가이기도한 바딤·자글라딘은 이날 이탈리아의 親共產일간지 파에세·세라와의 회견에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양국정부가 외세의 개입없이 아프가니스탄문제 소련군의 철수문제를 정치적으로 타결짓기위해 현재 접촉을 갖고있다고 밝히면서 아프가니스탄사태는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소련군철수문제의 정치적해결이 언제쯤 이루어질것인지에 관해 언급치않으면서 다만 소련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양국간의 협상과정에 절대 관여치 않을것이라고 다짐했다.

爆發사고 1명부상

레바논協商호텔 50m 지점서

【할데(레바논)UPI聯=聯】신원을 알수없는 테러리스트 한명이 24일 오후5시(한국시간) 미국 레바논 이스라엘 3국협상대표들이 레바논주둔 외국군철수를 위한 제9차회담을 개최하기위해 레바논 해안호텔에 도착했을때 바주카포를 호텔에서 1백여m떨어진 이스라엘군초소에 발사, 이 사고로 이스라엘군 1명이 경상을입었다.

이 사고는 발생 처음에는 호텔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않았던 폭발사고로 생각되었으나 기독교우익 팔랑헤 방송은 이사고가 단순한 폭발사고가 아니라고 보도했다.

韓·印협력强化 兩國外相회담 合意

【뉴델리PTI·AP=聯】한국과 印度는 23일 양국 협력관계를 강화·확대하고 印度의 對韓무역逆調를 시정하기로 합의했다.

3일간 印度를 공식방문하기 위해 22일밤 뉴델리에 도착한 李範錫외무장관은 이날 나라시마·라오印度외상과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하는 한편 南北韓통일문제를 포함한 양국 국내문제에 관해서도 토의했다.

美核戰 어려워 前美장성들 전망

【호놀룰루AP=聯】대부분의 전직美軍고위장성들은 전면전이든 제한전이든 일단 核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국이 승리할수 없을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와이의 호놀룰루·스타紙가 23일 45명의 퇴역美軍장성및 제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방문제에 관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면核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이길수있을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5명에 불과한반면 이길수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30명이었던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한核전쟁의 경우에는 14명이 이길수 있다고 응답했고 20명이 이길수 없다고 응답한것으로 나타나 미국의 核戰승리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美·蘇간에 제한核전쟁이 발생했을경우 전면적으로 비화될것으로 보느냐는질문에 대해서는 贊·反이 모두 18명으로 同數였다.

產業基地 사장에 李喜根씨를 임명

정부는 24일 산업기지개발공사 사장에 李喜根前공군참모총장을 2월1일字로 임명했다.

人事異動

서울大 ▲경영대학장 沈炳求 ▲사범〃 金宗西 ▲가정〃 林元子 (24日字)

記者의 눈

코스모스 1402號

때 아닌 核공포가 83년 벽두부터 지구촌을 술렁이게했다. 核공포를 몰고온 소련의 핵추진첩보위성 코스모스1402호는 다행히 인구조밀지역에 떨어지지 않고 24일 상오7시21분(한국시간)印度洋에 떨어져 인명피해는 없는것으로 밝혀졌다. 일단 한숨을 돌리게된 셈이다.

그러나 아직 원자로부분은 지구주위 궤도를 돌고있다. 2월초에 추락할 것이라는 원자로부분은 45kg의 우라늄235를 싣고있어 위험하다고는 하지만, 대기권에서 타버릴 것이라는 관측이고보면 그다지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같다.

코스모스호의 사망진단이 내려진 때는 지난4일. 그때부터 미국과 소련은 추락가능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으며, 결국 소련도 추락사실을 시인했다.

이에 따라 세계각국은 비상대책을 세우기에 골몰했다. 우리나라도 8일 상황검토반을 조직했고, 이어 방사능방재대책반과 기술지원단이 결성됐으며 14일엔 관계부처별로 협조사항을 토의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위성궤도를 정확히 측정하여 이에 대비하는 것이었다. 우리의 위성궤도추적반은 19일에야 비로소 위성궤도를 분석,발표했다. 우리나라에 떨어질 확률이 3만7천분의 1이라는 발표도 이때에야 있었다. 그것도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美항공우주국(NASA)으로부터 입수한 6개위성궤도기본자료에 근거할 수밖에 없었다. 전산원2명등 5명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외신발표도 서로 엇갈렸지만, 우리 위성궤도추적반의 발표도 엇갈리곤했다. 22일하오에는 23일~24일 이 위성이 한반도상공을 5차례나 통과한다고 했다가, 22일엔 다시 우리나라를 벗어났다는 엇갈린 발표로 국민들을 당혹시키기도 했다. 22일엔 延大 일산천문대에서 위성사진을 찍었다는 통보가 있어 한때 긴장하기도 했지만 정확성여부는 확인되지않았다. 유기적인정보교환이부족했기때문이다.

국민들은 발표가 나올때마다 전전긍긍하기만 했다. 어린 소녀들은 집밖에 나서기를 두려워했고, 국민학생 2명은 위성을 보기위해 가출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어찌보면 극히 희박한 확률에 너무 과도하게 대처했던 것은 아닐는지.

지구주위에는 현재 4천8백개의 커다란 물체들이 떠돌고있다. 언제 또 하늘로부터의 날벼락이 떨어질지 모를일이다. 미·소양국은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기를 꺼려하고있다. 우리힘으로 이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선 고성능스카이카메라·우주전파망원경등 장비의 설치와 인력을 확보해야함은 물론, 좀더 천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이번과 같은 해프닝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金周彥과학부기자】

社說

對話증폭이 最高과제

—두野黨총재의 새해政局觀을 보고

새해들어 政治에 걸어보는 희망의 이유에는 두가지가 두드러진다. 우선 與野에 공통적인 對話증폭의 다짐이 있고, 또하나는 解氷기운을 바라게하는 기대감이다.

國政指標의 첫째가 民主主義의 土着化란는것은 누구나 다 알거니와 국민의 소리없는 소리에 진정인 그롤기찬 요청이 政治人의 先導作用으로 충족된다고 할적에 우리는 보다 밝은내일을 맞을수 있겠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對話창달의 해로 특기되기 바란다. 民主主義의 本領은 批判과 多樣性을 용인하는 前提위 對話를 통한 調整과 創造를 부단히 추구하는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이점 全斗煥대통령이 1·18國政演說에서 對話政治와 公開政治를 力說한 사실이 평가되거니와, 그후 두野黨총재가 주장한 내용도 기조에 있어 공통점이 두렷하였다.

民韓黨의 柳致松총재는 22일 年頭記者會見을 통해 11代國會가 후반에 들어서는 올해를「民主制度정비의 해」로 설정했음을 밝혔다. 이경우 與野간의 對話만에 그치지 않고 국민 각계각층과도 폭넓은 대화가 진행될것을 제의한다고 하였다.

柳총재는 또 平和的 政權交替의 4가지 조건으로서 국회법 개정, 언론기본법 개정과 언론기관에 대한 간섭의 철폐, 與黨의 정치자금·조직·선전기능 獨占배제, 선거법 개정등을 요구한 것이다. 동시에 앞으로 정치활동 解禁者들을 迎入하여 제1野黨의 진용을 한층 강화시킬것이라고 다짐하였다.

한편 국민당의 金鍾哲총재는 24일 創黨2주년 기념식에 즈음하여 「政治活性化가 政治人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生產的 對話의 先導作用이 與野政黨에 있음을 지적한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民權의 極大化와 民生의 安定化」 그리고 「舉黨的 迎入」 자세등을 다짐했다고 한다.

총체적으로 새해의 政界는 對話와 解氷에 걸쳐 퍽 긍정적인 징조를 관측케 한다. 與野 政治人들의 先導作用에 관한 自省의 일깨움도 당연히뒤가된다. 구시대의 獨善的先入見을 탈피하지 못한 일부 政治圈外인사들이 경솔하게 國會無用論이니 政黨의 存在意義에 대한 懷疑論등을 운위한다는 것은 民主政治發展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푸념에 불과하다. 民主政治는 議會政治요 議會政治는 政黨政治일수 밖에 없는데다가, 그 發展추세의 진단은 현상형태를 맴돌것이 아니라 前向的動態에 유의해야하는 법이다.

오늘의 세계에서 「先進國」이란 흔히 工業民主國家라고 불려진다. 高度의 經濟力과 產業技術수준으로 지탱되는 工業化의 指標와 더불어, 參與및 福祉의 균형있는 확대로 증명되는 民主主義의 伸張이 필수적 요청으로 된다는 것이다. 先進祖國의 創造를 향한 不退轉의 長征에서 우리 모두가 깊이 유념할바라고 믿는다.

현재 韓國의 教育文化보급水準은 통계상 西歐의 이탈리아와 비등하다. 政治意識수준을 보아도 民主政治에대한 보편적 價値觀體系는 결코 과소평가되는바 아니다. 보태서 韓國에는 여러 世紀에걸친 會議體 國政運營의 전통이 있다.

이러한 主體的條件은 거시적으로韓國民主政治의 건전한 발전을 내다보게하는 樂觀의 근거로 될수 있다고 본다.

하나 지난날의 우여곡절을 관찰할적에는 때로 開放的·生產的인 對話政治와는 어울리지 않는 어두운 獨走와 극한투쟁의 소용돌이가 산견된바적지 않았다. 그연유는 주로 불행했던 역사로 말미암은 自治경험의 부족과 餘裕感의 결핍때문이라고 분석되거니와, 지금은 그 푸념을 졸업할 시기가 도래한 느낌이다.

이미 本欄이 年頭에 제의했던것처럼 多樣性을 전제로하는 생산적 對話社會의 活性化가 곧 民主主義이다. 세련되고 온화한 신사적 對話가 우선 政治의 先導作用에서부터 확인되는 가운데 모든 문제가 順理대로 풀려나가기 바란다.

強化되는 美對韓전략

—마이어將軍 核사용示唆와 그안팎

에드워드·마이어美육군참모총장이 22일 밝힌 韓半島군사정세에 관한 전반적인 見解는 우리의 至大한 관심을 끈다.

그가 美육군참모총장으로서 83년초 韓半島군사정세를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한일도 注目거리이지만 특히 韓半島有事時의 美核무기 대응책에 言及한 대목은 우리의 각별한 눈길이모아 지지않을수 없게한다.

그는 우선 레이건행정부의 기본전략개념은 전쟁이 발발했을때 끝까지 在來式전쟁으로 장기대응하다가 불가피해지면 전술核무기를 쓰는것이며 이개념은 北韓이 侵攻해오는 경우 韓半島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서울에서 가진 한 기자회견에서 말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核무기전략에 관해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관리들이 기자회견에서 논평하지 않는것을 상례로 삼고있다.

한데 기자질문에대한 응답에서 나왔다는 그 核대응전략에 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있으나 北韓이 南侵을 했을경우 재래식무기로 방어를 끝까지하다 사세가 만부득이하여 核무기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韓美양국대통령에게 그 사용을 건의하게 될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마이어장군으로서는 필요할경우 이때에서 전술核무기 사용을 배제하지않는다는 전략을 직접, 간접으로 밝힌것이 분명한것 같다. 그뿐이니라 유사시 長期대응전략으로의 전환과 그에따른 軍需물자비축, 美軍의 계속주둔, 對韓軍事지원의 증강, 韓·美·日 3각협력관계 전망등을 밝히면서 북괴군의 對南포진이「명백한 공격형」임을 지적한것도 매우 시사적인것이라 하겠다.

이는 분명히 美육군의 對韓방위결의와 그를위한 확고한 대비방침을 읽을수 있게한다. 또 韓半島를 둘러싼 요즘의 정세환경으로보아 시기적으로 적절한 고무와 격려를 우리들이 실감케도 하는것이다.

지난 연초 나까소네 일본수상이 서울을 방문했을때 소련과 北韓은 韓·美·日의 3각군사협력체제문제를 계속 비난 하기 시작했다. 일본 열도를 소련에대한 不沈航母化하겠다는 나까소네수상의 워싱턴발언이후 소련은 더 나아가 일본이 소련의 核공격목표가 될수있다고 위협했다.

마이어장군의 발언은 소련이 美·日에 대해 비친 이같은 위협론 입장에 가한 하나의 「반격」같은 측면도 일응 생각할수 있는것이다.

우리는 北韓이 南侵을 감행할수 없도록 韓·美·日 3각安保체제를 반석처럼 굳힐것을 바란다. 하나 만일 南侵이 있을경우엔 마이어장군이 지적한대로 우선 재래전으로 반격을 다하도록 해야 할것이며 核무기사용은 만부득이한 경우에 限해야한다는 점에서 또한 공감 할수있을것 같다.

물론 마이어장군이 말한 부득이한 상황에서의 核사용 건의발언은 아직도 군사모험주의로만 치닫고 있는 北쪽의 金日成집단에 대한 경고적 뜻이 짙게깔려있는것으로 보인다. 또한날 미국의 對韓방위공약이 더한층 굳건해져 가는것을 바라보게 하는데서 韓半島와 東北亞의 평화안전에도 한 보탬이되리라고 보겠다.

그러나 미국의 84~88년도 방위지침서에서도 소련이 페르시아만을 侵攻하면 北韓도 그 反擊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듯이, 韓半島를 둘러싼 美日대 소련의 긴장관계가 고조될 가능성은 점점 짙어보인다. 엄히 경계돼야 할 상황이다.

이는 우리의 방위자세를 튼튼히하는 한편, 國益과 平和증진을 위한 전략에 온갖 지혜를 동원해야할것을 가리킨다 하겠다. 경제·군사·정치·외교등 여러분야에서다.

政局往來

◆盲目的 정부비난이 愛國은아니다

24일 상·하오에 걸쳐 民正黨의 釜山西區(위원장郭正出의원)와 南·海雲臺區지구(李興洙의원) 개편대회에 참석한 權翊鉉사무총장은 黨政관계에 언급,『과거의 여당은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고 정부의 侍女的 역할을 했으나 民正黨은 그렇지않다』고 거듭강조.

權총장은『일반국민들 가운데 정부와 民正黨이 국정운영에 마치 손발이 잘안맞는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것』이라면서『그것은 黨이 국민의 의사를 정부정책에 반영키위해 노력하는데서 비롯된것으로서 民正黨은 지금 새로운 정치질서를 구현하고 있다는점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西區에서 權총장은 이지역의 과거 정치적 因緣(?)을 의식했는지『과거 정치에서는 집권자나 정부정책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는것이 애국인것처럼 생각돼왔으나 정부를 헐뜯고 정부의 일을 방해하는것이 애국은 아니다』고역설.

또 郭위원장도『釜山西區지역이뒤진채로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으며 야당도시라고 자랑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고 강조. 【釜山=李以春기자】

◆노력없이 疾視하는풍조 버려야

民正黨지구당개편대회에 참석중인 중앙당 黨職者들은 與黨붐을 올리기위해 주요정책발표를 하는한편 이따금 對野공격을 퍼부어 注目.

24일 상·하오에 걸쳐 열린 慶北金泉(위원장 鄭鎭東)·龜尾·善山(朴在鴻의원) 지구개편 대회는 蔡汶植국회부의장, 尹碩淳사무차장 韓炳宋무공위원장 朴權欽·李憲琦정책위부의장등이 당원들을 격려하는한편 정책내용과 관련한 黨의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尹차장은 격려사에서『일부 정치인중에는 여당이 모든것을 獨走하는듯한 발언을 하고 있으나 우리는 10·26사건이후 같은조건아래서 창당했으며 그뿌린 씨앗을 전당원이 피땀으로 가꾸어왔다』고 거듭강조.

그는 이어『노력없이 疾視하는풍조는 버려야 하며 어느정당이나 정치인이라도 잘한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박수를 보내주는 새로운 정치풍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전면조치라면환호성했을것"

「총재 單一化」가 확정된 가운데 民韓黨의 지구당 개편대회는23, 24일 이틀동안 木浦·務安(위원장林鍾基의원) 咸平·靈光(李震淵 당무위원) 羅州·光山(李載根의원) 井邑·高敞(金在映의원)서울의 龍山(金元基의원) 九老(金炳午의원)등 6개지구에서「막바지 熱氣」속에 續行.

柳致松총재는 24일 井州와 錦城지구개편대회에서『民韓黨은대통령 國政연설에서 解禁부분이 언급될때 박수한번 안치더란』는 民正黨간부의발언을 겨냥,『選別解禁이 아니라 전면해금이 언급됐다면 우리는 박수가 아니라 환호성을 울리며 열광했을것』이라고 반격했다.

그는 또 木浦대회에서 劉沃祐부총재가 韓民黨이래 야당생활을해온 옛 동료들을 만나 눈물을 흘리자『70 老정치인의 눈물은 숱한 슬픈사연을 담은「木浦의 눈물」처럼야당의 길이 얼마나 험겹고 괴로운길인가를 절감케 해주는 피눈물』이라고 말해 분위기를 숙연케하기도.

특히 柳총재는 院外인 咸平·長城지구에서『多黨制는 野黨의 票를 分散시키려는 전략에서 태어났다』고 공격했는데 劉부총재와 林鍾基총무, 金元基의원등은 오는85년 總選은「제1당의 해」로, 88년 대통령선거는「受權정당의 해」로 만들자고 高唱. 【井州=金永煥기자】

◆현실벽을 뚫기엔 벽이 너무 두껍다

創黨 2주년을 맞은 국민당은 24일 기념식에 앞서 가진 당무회의에서 申喆均사무총장의 提請에 따라 金鍾哲총재를 單一총재후보로 만장일치로 의결.

이에앞서 총재 競選의사를 강력히 시사해왔던 李萬燮 부총재는 성명을 통해『현실을 뚫고나가기엔 가로막은 벽이 너무 두껍다』면서『내개인이 비록 희생되더라도 黨이 결속된다면 기꺼이 후퇴하겠다』고 競選포기를 선언했다.

李부총재는 이어 당무회의서도 같은내용의 신상발언을 했는데 당무위원들은『殺身成仁의 어려운 결심을 했다』며 박수로 격려했고 金총재도 일어나 李부총재를 껴안으며 악수.

한편 金총재는 총재후보제청을 수락한뒤『李부총재의 愛黨愛族的인 결단에 큰 감명을 받았다』며『이러한 결단은 나를위한 선물이라기보다는 黨을위한 차원 높은것으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70 老정치인 눈물은 숱한 슬픈사연 담은 木浦의 눈물…"

할렐루야 '83연합대부흥성회

주제: 생동하는 신앙

□ 강사 : 김중기목사

82년도 북미주 교역자 연합수련회 강사.
현재 한국인 신앙계에 불길을 일으키고 있는 능력의 종.

강사약력 : 1. 연세대 및 동대학원 졸업(B. TH. TH. M)
2. 하바드대학및 보스톤대학 신학대학원 졸업(ST. M)
3. 맥코믹신학대학원및 노스웨스턴 대학원 졸업(PH. D)
4. 보스톤 한인교회및 미드웨스트장로교회, 호노룰루기독교회 다년간목회
5. 현재 미연합장로교회 목사로서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교수

대상	일정	요일	시간	장소	
성인	83.2.17~18~19	목금토	오후7시30분	펜티코스탈교회	300 Queen's Dr. Tor.
성인	83.2.20	일	오후7시30분	한인장로교회	1183 Davenport Rd. Tor.
청소년	83.2.19	토	오후2시	새한장로교회	105 Wilson Ave. W. Tor.

□ 주최 : 토론토장로연합회

□ 후원 : 교역자협의회, 교사연합회, 기독여성회연합회, 펜티코스탈교회, 한인합창단

日 政局 다시 회오리

24일 국회開院 나까소네訪美 日 不沈航母化 발언 불씨로

"美전략에 말려들었다" 野圈

蘇서도 한몫… "日蘇냉각" 警告

"不信任땐 衆議院해산" 나까소네

【東京=宋孝彬특파원】 일본 政局이 다시 세찬 회오리에 빠져들 전망이다. 24일 개원한 일본의 정기국회는 앞으로 1백50일 會期동안 나까소네(中曾根) 수상의 訪韓 및 訪美결과를 둘러싼 「후유증」으로 파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나까소네수상은 국회 개원식에서의 시정연설을 통해 그의 외교성과로 訪韓과 訪美를 들면서 서방진영과의 유대강화가 이뤄졌다고 自讚했다. 그러나 사회당을 비롯한 야당은 수상의 「일본列島 不沈항공모함化」와 무기의 對美공여및 對日공동운명체論을 들고나와 『일본이 미국의 세계전략에 휘말려 전쟁의 渦中에 뛰어들게 되었다』고 비난을 퍼붓기시작한 것이다.

이같은 분위기속에 일본의 정국은 오는 4월의 지방선거및 6월의 참의원선거와함께 나까소네수상 訪美에따른 여야격돌로 衆議院해산이 불가피할 운명에 놓였다.

또한 26일에는 다나까(田中角榮)前수상의 록히드사건 관련 구형공판에서 유죄논고가 확실시 됨에 따라 야당은 다나까前수상의 의원사직 결의안을 제출하는등 정치유리 확립을 위한 일대 정치공세를 펼 기세로있어 예산국회는 처음부터 難航을면치못하게됐다. 이러한 상황을 예견이라도한듯 나까소네수상은 지난주 『야당의 對與공세로 예산심의가 어렵게되고 내각 불신임안이 제출되는등 어쩔수없는 상황이 벌어져 중요법안심의가 암초에 부닷칠경우 국회해산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바 있다. 그렇지만 야당도 이에 맞서 『다수의석을 가진 여당이 법안심의가 어렵다고 해 바로 국회해산을 놓고 나오는것은 정국운영을 위한 귀중한 국회해산권을 가지고 놀고있는格』이라 비난하고 『나까소네수상이 국회해산을 단행하면 이에맞서 국민의심판을 받도록하겠다』고 응수했다.

이번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예산과 몇가지중요관계법안을 통과 시키려 하고있고 야당도 아직 總選준비가 돼있지 않아 섣불리 빠른시일안에 국회해산까지 가기는 어렵겠지만 정기국회 직후인 6월 參議院선거에 맞춰 국회해산이 이뤄질전망은 클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야당이 정기국회에서 나까소네 내각에대해 공격의 제1차적 목표로 삼고있는것은 바로 나까소네수상의 워싱턴·포스트紙와의회견내용이다.

나까소네수상은 지난 18일 訪美도중 워싱턴·포스트紙 그레험社主와의 조찬을겸한 단독인터뷰에서 『일본열도는소련 백파이어폭격기의 침입에 대항하는 不沈항공모함과 같은 거대한 방파제가 돼야하며 일본열도주변의 4해협을 완전히 관리, 소련의 잠수함과 함정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제압해야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이 있자 소련은 19일 타스통신을 통해 『핵공격앞에 「不沈 항공모함」이란 존재하지않으며 일본은 앞으로 핵공격의 목표물이 될것』이라고 나까소네 발언을 즉각 공격했다.

「不沈航母化」論의 영향은 꼬리에 꼬리를 이었다. 나까소네수상은 워싱턴·포스트紙와의 회견내용이 의외로 큰 반발을 일으키자 19일 저녁 내외기자회견에서 워싱턴·포스트紙보도는 『그 일부가 잘못 보도된것』이라 해명하고 이어 열린 일본기자와의 회견에서도 『不沈항공모함이란 말과 4해협이란 단어는 사용한적이 없다』고 회견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했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紙는 나까소네수상의 이같은 부인발언에 대해 『회담내용이 테이프에 녹음되어 있으며 이는 엄연한 사실이다』고 다시 주장했다. 궁지에 몰린 나까소네수상은 귀국도중 특별기 내에서 이례적인 해명발언을 통해 워싱턴·포스트紙와의 회견내용을 또다시 전면시인 하는 前代未聞의 오점을 남긴 것이다.

나까소네수상은 진상설명을 통해 ①워싱턴·포스트紙와의 회견에서 「不沈항공모함」이란 말을 사용한것은 사실이며 이를 말하지 않았다고 발언한것은 착각이었다. ②「不沈항공모함」이라 말한것은 미국의 안보功過論에 대한비판에 대항하는 의미로서 사용한것이었다. ③스즈끼내각이 「고슴도치방위론」을 들고 나온것처럼 앞으로의 일본방위는 「不沈항공모함論」이 될지도 모른다. ④4해협봉쇄론은 3개해협의 잘못이었다. ⑤일본인 기자와의 회견에서 「不沈항공모함」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부언한것은 워싱턴·포스트紙와의 회견이 아니라 레이건 대통령과의 회견을 잘못착각한것이었다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

이같은 사실들이 계속해서 신문에 보도되자 사회당과 公明黨등 야당은 나까소네수상의 이같은 회견내용에 대해 「두입을가진 믿을수없는 바람개비首相」이라 지적하고 『예산국회에서 철저히 추궁해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고 벼르기시작 한것이다.

특히 나까소네수상의 訪美 후유증이 불러들인반응은 모스크바가 나까소네수상의 訪韓과 訪美를계기로 對日비판자세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韓美日 3角협력에 의한 「反共블록」의 적극적 구축이 전면적으로 표면화됐다』고 비난하고 있는것.

타스통신은 『나까소네정권의 매체적성격이 극동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韓美日군사동맹결성을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그렇기때문에 日蘇두나라는 급속히 냉각관계가 될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기도했다.

「말보다는 行動」을 앞세우고 진취적인 外交를 주창하고 나선 나까소네 수상이긴했지만 최근의 해외나들이 특히 미국 방문을 통해 일본의 일부 여론과 野黨街를 자극시킨 몇가지의 발언들때문에 앞으로 1백50일간으로된 정기국회는 파란에 파란이겹칠것이 분명해졌다.

◇『이것이 「운명공동체」라는 별이요!』 不沈航母化발언으로 議會에서 궁지에 몰린 나까소네수상。 【일본朝日신문】

메아리

序列경쟁

어제 대부분 대학이 예·체능계 합격자를 발표했고, 후기대학의 원서접수가 시작됐다. 후기대학에 응시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좀 안됐지만, 이쯤해서 금년도 大入을 한번 결산해봤으면 하지않을까 한다.

지금의, 학력고사와 內申성적을 기준으로한 입시제도는, 그 뼈대만큼은 옳은것이라 생각한다. 우리처럼 公正이 大入의 第1命題이며, 過熱課外의 열풍을 경험한 나라에서 그 이상의 代案이 있는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지금의 제도를 운영하여 드러난 흠집은 하나 둘이 아니다. 그렇다고 제도의 뼈대를 또다시 바꿀수가 없다면, 그 운영방식을 보완하여 결점을 최소한으로 줄일수밖에 없다.

현행 大入제도의 가장 근원적인 흠은 劃一性이다. 劃一的인 시험, 劃一的인 평가로 대학의 학생 選拔기능을 거의완벽하게 배제하고, 대학과 학과, 그리고 응시생 전원을 一連번호 매기듯 序列化하는것이다. 게다가 점수를받아들고 학과를 선택하는 「先시험·後지원」이 원서접수창구 앞의 혼란을 더 하고 進路지도를 무색케 한다.

이가운데 가장 심각한것이 대학과 학생의 序列化다. 大入過熱의 원인은, 얼핏 생각하는대로, 그저 「누구나가 대학에 가려한다」는데 있다기보다는 「누구나가 좋은 대학에 가려한다」는데 있기때문이다. 그것은 단순한 學歷경쟁이 아니라 學校歷경쟁이요, 序列경쟁이다.

더구나 지금의 이경쟁은 남보다 特出하려는 先頭경쟁이 아니라, 남 못지않은 사람이 되리란 同調경쟁의 경향이 강하다. 그경향이 지나쳐 자칫 脫落恐怖에 이르기때문에 경쟁은 더욱 처절하고 음산해진다.

만일 大入熱氣가 「누구나 대학에가려 한다」는데서만 온다면, 그것은 대학정원을 늘려서 잡을수가 있다. 그러나 그 熱源이 「더 좋은 대학」에 있기때문에 序列경쟁은 대학진학자가 늘수록 과열된다. 마찬가지로 어떤 大入제도를 써도 序列경쟁은 없어지지않는다.

하지만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그런 경쟁은 있어 마땅하고, 또 바람직하다. 요컨대 그것은 정도의 문제다. 지금 아쉬운 것은 그 같은 序列경쟁을 管理可能한 정도로 떨어뜨리는 방도다.

길게 본다면 그 방도는 대학의 격차를 없애는 것이 으뜸이다. 그러나 高校平準化의 弊害이 있는터에, 大學平準化가 몇년사이 이뤄지리라 생각할 사람은 없다. 다만 지금 大入제도처럼 대학과 학생의 序列을 매긴다면 몇년뒤 대학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은 뻔한 일이다. 大入제도의 보완은 그같은 大入제도와 대학간 격차확대의 악순환을 단절하는것이어야 한다.

학자들의 말을 빌면 시험제도의 기능은 학업성취도의 評價와 選拔이다. 같은 말루로 하면 지금 大入제도는 選拔기능이 약화된 대신 막강한 序列化기능을발휘하고 있다. 이 것을 바로 잡는 것이 보완의 안목이다.

따지고 보면, 학업성취도의 評價는 內申으로 가능하다. 그러므로, 학력고사의 評價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느니, 오히려 학력고사의 選拔기능을 강화함만 못하다. 內申과 학력고사의 기능을 分化시키고, 그 둘이 합쳐 온전한 大入제도가 되게 하는 것이 옳다.

다음은 학력고사의 序列化 기능을 축소하는 일이다. 「先지원·後시험」이 도움 된다면, 그렇게 바꾸어도 무방하다. 거기에 配點의 「差別的適用」을 加味할수도 있다.

이중 뒷것은 학력고사의 과목을 따라, 대학재량으로 配點을 달리하거나 加點을 주는 방식이다. 이로써 시험의 劃一性을 덜고, 대학의 선발기능, 대학과 응시생의 특성을 조금은 살릴 수가 있다. 대신 得點기준이 다양해지므로 序列이 덜 돋보이게된다. 「先지원·後시험」을 떠나서도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大入제도를 보완하는 안목만 선다면, 그 보완의 방향은 스스로 뻔하다. 大入論議가 한 겨울 一過性 푸닥거리에 그치지 않게, 좀더 꾸준한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할것을 생각한다.

金昌悅 <編輯委員>

한숨돌린 「蘇 核위성恐怖」

胴體 떨어졌지만 原子爐는 아직 방황

지난해 12월28일 美국방성이 소련의 핵추진첩보위성 코스모스1402호의 기능이상을 발견한후 한달남짓 세계각국을 긴장시켜온 「코스모스공포드라머」는 그胴體부분이 인도양상에 추락함으로써 일단은 한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아직 제2막이 남아있다.

이위성의 원자로부분이 현재 우주공간의 미아가되어 방황하고 있다. 이 부분은 45~49㎏으로 추산되는 우라늄235등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고있어 지상에추락할경우 胴體에비해 더위험스러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美국방관계자들은 이 원자로부분의 추락예상 일을 오는 2월중순으로, 소련당국은 3월3~8일로 보고있다.

이원자로가 추락하면 과연 지구를 얼마만큼 방사능에 오염시킬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련 타스통신은 원자로부분은 대기권진입시 불타 소실될 것이며 방사능오염도는 위험치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美우주과학자나 국방성 관계자들도 방사능오염에 대한 우려는 떨쳐버리지못하고 있으나 인명에 위험을 줄만큼 심각한 방사능 피해를 줄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이같은 견해는 꼭 5년전인 78년1월25일 캐나다 북부에 추락했던코스모스954호의 경험에 근거하고 있다.

그당시 캐나다북부전역에 코스모스954호의 약 2천7백㎏의 잔해가 뿌려졌지만 대기권진입시 방사능물질이 대기권에 녹아 오염도는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었다.

이번코스모스 1402호 추락사건은 954호때와 비교해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첫째 소련측의 태도변화이다. 954호때 소련은 추락 7일전에 경고만 했을뿐 아무런 발표나 통보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위성의기능상실을 시인하는가하면 유엔에 추락예측시일과 장소를 통보해주는등 다소 개방적인자세를 보였다.

이같은 변화는 美蘇와 공방전을 벌이고있는 核논쟁에서 궁지에 몰리지않기위한 속셈으로 풀이되고있다.

둘째는 추락시기와 장소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히 예측하는 놀라운 과학성을 보여줬다는 점이다.

미국의 한연방우주연구기관은 코스모스 1402호의 동체가 대기권에 재돌입하기 12시간전에 그시각을 24일 상오7시(한국시간)로 예측했는가 하면 北美防空사령부(NORAD)는 처음에는 7시7분~7시37분으로 예고하다가 수시간전에 7시22분에 인도양에 떨어질것으로 발표, 美국방성이 발표한 추락시간과 단1분의 오차만을 남겼다.

또한 소련도 추락 만3일전인 지난 21일 『추락궤도 및 코스모스1402호가 24일상오8시~하오3시사이에 아라비아해상공에 재진입할 것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소련의 이같은 예측은 이미 통제를 상실한 위성을 대상으로한 것을 감안할때 놀라운 것이아닐수 없다.

가장 중요한 추락장소가 아라비아해를 조금 지나친 인도양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코스모스 1402를 추적하라 北美防空司令部 우주방위작전센터 궤도분석담당자인 프레디·스튜어트소위가 스크린으로 蘇의첩보위성 코스모스1402호의 궤적을 관찰하고있다。【콜로라도스프링즈22일UPI=聯合】

美·蘇 "放射能 위험은적다" 損賠문제、國際논란 일듯

세째는 反核물결이 전세계로 확산되고있는 시점에서 미국은 코스모스1402호를 물고 늘어져 核공포에대한 책임을 소련측에 전가해보려는 정치선전에 열을 올렸다는 점도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美국방성은 3천6백㎏가량의 동체가 대기권에서 불타 소실됐는지아니면 파편으로 떨어졌는지 아직확인 하지못하고 있다.

美국방성은 동체가 英領 디에고·가르시아島 동남방 1천8백14㎞로 밝히고 있으나 호주의 국가재난기구는 가르시아남방 1천6백㎞라고 발표했다. 추락시간도 美국방성은 상오7시21분으로, 소련측은 상오7시22분으로, 호주당국은 7시30분으로 각기다르다.

즉 아직 과학성은 진상을 적나라하게 밝혀주지못하는 불확실한 상황임을말해주고있다.

한편 이번 코스모스1402호추락을 계기로 앞으로 빈번하게 일어날것으로 예상되는 위성추락사고에 대한 손해배상등 국제법문제가 논란이 될것으로 보인다. 즉 소련은 이번사고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이나 방사능제거를 위한 지원등에관해 침묵하고 있고 현국제법역시 그에관한 확실한 손해배상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崔海雲기자】

"대기권突入때 40초간불꽃에 휩싸여" 목격한 디에고 가르시아 美軍들

코스모스號추락 世界표정

○…인도양상의 영국령 디에고·가르시아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당국자들은 코스모스가 대기권으로 돌입하는 순간 약 40초동안 불꽃에 휩싸인 물체를 목격했다고 전했다.

추락전 美상공 누벼

○…美연방긴급사태처리반(FEMA)의 과학자들은 이날 코스모스1402호의 주요 동체가 플로리다 앨라배마 조지아 노드캐롤라이나 사우드캐롤라이나 웨스트버지니아 펜실베이니아 뉴욕등 미국여러주의 상공을거쳐 캐나다 스칸디나비아제국 소련 이란을 지난뒤 인도양에떨어졌다고 밝혔다.

아라비아國들 초비상

○…코스모스 1402호가 인도양상에 떨어지기 앞서 이 위성파편들의 추락예상지점인 오만등 아라비아 해연국가들은 23일 휴교및 통금령을 내리는등 초비상사태에 들어갔으며 스리랑카에서는 22일 코스모스1402호의 파편일지도 모르는데니스공 크기의 이상한 물질이 추락, 핵처리반이 긴급 과견되기도 했다.

미국및 서유럽등 기타 전세계국가들도 위성파편추락의 마지막 순간까지를 대비하기위한 비상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나 이번 소동의 장본인인 소련만은 이에관한 보도관제를 강화하는등 굳게 입을다물었다.

中共도 추락시간발표

○…중공도 23일밤 新華社통신을 통해 중공자체의 인공위성 추적망이 코스모스를 추적한결과 코스모스가 24일 상오5시~9시30분사이에 추락할것이라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경각심을 촉구하기도했다.

蘇、UN에 사전통보

○…소련이 코스모스號추락에 대한 사전정보를 유엔에 통보한 사실은 78년 코스모스 954호가 캐나다에추락했을때보여주었던 태도와 좋은대조를이루고있다.

당시 소련은 유엔과 캐나다에 아무런 사전통보를 하지 않아 국제여론의 큰 빈축을 산바있다. 소련이 코스모스 추락에 대한 사전통보를 유엔에 한것은 국제여론의 비난을 면해보자는 속셈으로 풀이되고 있다.

작년發射 70개중하나

○…24일 상오 7시21분(한국시간) 인도양에 추락한 소련의 군사첩보위성 코스모스1402號는 82년중에 지구궤도로발사된 인공위성 70개가운데 하나.

미국도 현재 군사목적의 위성을 약40개 정도 지구궤도에 띄워두고 있는데 그가운데 12개정도가 첩보임무를 수행하고있다.

미·소첩보위성들은 고도2백50㎞의지구궤도를 돌면서 지구상에 있는 자동차의번호판을 판독할수 있을 정도의 촬영능력을 갖고있다.

미국방성은 이들 첩보위성들의 수명도 미국것이 약10년정도인데 비해 소련것은 그보다 훨씬 짧은 수개월에 지나지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같은 사실은 이번 문제의 코스모스 1402號가 82년8월30일 발사됐다는점으로 명백히 입증되고 있다.

이코스모스1402號의 비운은 지난달 소련과학자들이 코스모스1402號의 진로를 바로잡아주지못하고 우라늄49㎏이들어있는 핵추진체를 보다 높은 궤도에 올려놓지 못한데서부터 시작됐다.

◇泰전통의 結婚서약 스웨덴의 테니스스타 비외른·보리와 부인 마리아나가 20일 방콕의 로즈가든에서 타이의 전통의식에 따라 그들의 결혼서약을 새롭게 다짐하고있다. 보리는 시범경기와 휴가를 겸해 타이를 방문중이다. 【방콕AP=聯合】

海外토픽

레이건딸 曲취입

★秘密裡에…곧 公開

레이건美대통령의 딸패티·데이비드양(30)이 최근 비밀리에 런던에서 취입한 레코드앨범이 곧영국시장에 선을 보일 것이라고.

영국의 음악전문지 뮤직·앤드·비디오가 전한바에 따르면 데이비드양이 6인조영국밴드와 함께 극비리에 취입한 이음반은 데이비드양의 첫번째 앨범으로서 취입곡대부분은 그녀가 직접 작곡했다는것.

『데이비드양은단지 대통령딸이라는 후광을업고 장난삼아 이음반을 만든것이 아니다. 그녀는 진정한 로크가수다』라는게 그녀의 연출가인 애드리언·러치씨의 변. 【런던=UPI】

英마거리트、또염문

★로열발레단 연하남자와

영국 엘리자베드 여왕의동생으로 이혼의 경력까지 갖고있는 마거리트공주(52)가 또다시 영국로열발레단 소속의 남자 무용수와 우정을 꽃피우고 있다고 데일리·익스프레스지가 보도.

이 신문의 윌리엄·히키가십란에 실린바에 따르면 마거리트 공주와 무용수 데렉·딘(29)군이 지난 해 로열발레단의 베네치아 공연장에서 처음 만났으며 이번 주에는 런던 극장에 함께 모습을 보였다는.

마거리트 공주는 지난60년 사진작가 앤터니·암스트롱·존즈와 결혼, 그에게 스노든 경의 칭호까지 부여되는 영광을 안겨주었으나 78년 결국 이혼으로 끝나버렸었다. 【런던=AP】

딸의코 물어뜯어

★아들못낳아서분통

아들을 못낳아 분통해하던 중공의 한 아버지가 생후 6개월된 딸의 코를 물어 뜯었다고.

춘상이란는 여인이 天津신문에 알려온바에 따르면 어느날 그녀가 시장에 갔다오니 평소에도 딸을때려 타박상을 입히곤했던 남편이 딸의 코를 물어뜯어 버렸더라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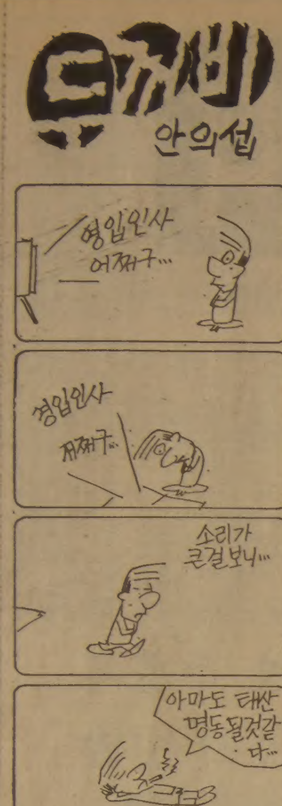
天津신문은 이사건이 딸보다 아들을 중시하는 낡은 생각의 표본이라고 개탄. 【北京=聯合】

한국식품이라면!
제일식품
항상 싱싱한 야채와
맛있는 젓갈류와 밑반찬이
준비되어 있아오니
가족식탁을 위해서는 물론
각종 파티및
잔치상을 차리실 때는
언제나 제일식품을
찾아주세요.
뒷편에 넓은 주차장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아리랑 식당옆〉
532-1054

격월간 신앙지 개혁자 창간호
발간 토론토개혁장로교회
…도도한 배교의 물결이 전세계 교회들을 휩쓸고 있고 인간의 교회와 사탄의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자태를 흐리고 이즈러뜨려 놓고 있으며, 수없이 많은 교회들은 거짓 가르침과 인간종교적 감흥에 술 취하듯 취해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 빠져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처해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복음신앙을 견지하고 전파하며,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교회들 뒤에 숨어서 움직이고 있는 사탄의 궤계를 폭로하는데 이 「개혁자」지가 중요히 쓰여질 것이다….
(개혁자 창간사, "개혁자의 자세"에서)
주요내용 : 예수그리스도 우리주님(강설), 개혁신앙의 기본강령들, 신앙의 기본도리(강해), 교회의 연합운동—교회의 배교와 타락, 범람하는 성서번역판들—그 실상과 문제점, 인간종교와 성령운동—그 허위와 기만성, 로마교회—얼마나 비성경적인가?
가 격 : 무료
구독방법 : (전화)492-9889, 498-0241
(서신) Toronto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P.O. Box 2603, Station "F" Agincourt, Ont., CANADA

Caeser's Discount Market
□일반인들에게 직접 OPEN됐읍니다.
○공장제품, 수입품 또는 도매물품
○렌트할 작은 장소 있음.
☎ 288-1800
(오전10시~오후5시)
1921 Eglinton Ave. E. (at Warden)
*영업시간 : 화, 수요일 : 오전10시~오후6시
목, 금요일 : 오전10시~오후9시
일요일 : 오전10시~오후5시
※월요일은 Close함.

동우회원들께
친애하는 동우회원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강황규동우께서 1년여의 긴 세월동안 현대의 의술을 총동원하여 투병을 하였으나 병세는 점점 악화일로… 거주지인 BARRIE에서 지난 1월20일 이곳 토론토 GRACE 병원(650 CHURCH ST. at BLOOR ST.)으로 옮겨 왔읍니다.
동우회원 여러분!
20여년전에 맺어진 형제애와 동지애로써 문병하여 강동우께서 투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문병시 일체의 음식물은 지참치 마시고 회원들께서 소속한 교회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는 신부님을 모시고 와서 기도해 주기를 본인이 원하고 있음.)
동우회



집보던 어린이 3명 被殺

부모 祭祀간사이 얼굴등 10여군데 무참히 찔려

釜山서

◇辛임열군

◇辛영숙양

【釜山】부모가 제사를 지내러간 사이 집을지키던 형제등 어린이3명이 무참히 흉기에 찔려 피살됐다。

23일 밤11시30분께 부산影島區蓬萊洞5街71 辛東栢씨(39)집에서 辛씨의장남 원열군(8) 2남 윤열군(6)과 조카 영숙양(13·봉학국교6년)등 3명이 얼굴을 알아볼수 없을만큼 마구 흉기에 찔려 숨져있는것을 아버지辛씨가 발견,경찰에 신고했다。

辛씨에 의하면 이날 하오 9시30분께 이웃에 사는 조카딸 영숙양을 데리고와 원열군등과 집을 보게한뒤 부인 宋옥순씨(32)와함께 影島區青鶴洞99 아버지 辛봉석씨(72)집에 가서 할머니 제사를 지내고 돌아와보니 이들이 머리 가슴 허리등 10여군데씩 흉기에 찔려 숨져 있었다는것。

2남 윤열군이 숨져있던 단칸방에는 장롱이 열려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흩어졌고 범인이 사용한 과도와 피묻은 타월 한장이 대문옆 마당에 버려져 있었다。

辛씨집은 蓬萊洞간선도로에서 불과10m떨어진 골목길 막다른집으로 辛씨는 8년전부터 인근 가게에서 N라면 총대리점을 경영하고 있다。

경찰은 부산影島경찰서 蓬萊파출소에 수사본부를설치, 이날 사건현장에버려진 칼과 장롱등에서 10여개의 지문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아버지 辛씨와 집안문제로대립, 평소 술만 마시면 辛씨집을 찾아와『아이들을 몽땅 죽여버리겠다』며 자주 행패를 부려온 친척 李모씨(45)、인근 공장에 근무하는 불량배 金모씨(22)등에 용의점을 두고 알리바이를캐고 있다。

경찰은 또 辛씨가 전날 수금한 50만원이 장롱밑에 그대로있고 사건현장 50m거리의 인근 폐품처리장에서 피묻은 장갑을 찾아내고 이곳 지리를 잘알거나 辛씨주변에 연고가 깊은 면식범의 단독범행이라는 전제아래 원한관계살인및 강도에의한 우발적 범행등 두갈래로 수사를 펴고있다。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택시、화물차와충돌 新婚부부등 셋絕命

【昌原】23일 하오 3시50분께 경남昌寧郡桂城面鳳山里 구마고속도로 59·49㎞ 하행선에서 진주 일진 콜택시 소속 경남1사1310호 택시(운전사 문형곤·33)가 앞차를 앞지르려다 중앙선을넘는 바람에 마주오던 호남화물 소속 전남8아1033호 트럭(운전사 이정채·21)과 정면충돌, 택시운전사 문씨와 택시에 타고있던 신혼부부 하재열(28·晋州市望京南洞557의18)이경자씨(24·晋陽郡大谷面瓦津洞157)등 3명이 숨졌다。

前妻소생딸 용변못가린다고 연탄집게로 때려 숨지게

【蔚山】24일 蔚山 경찰서는 전처소생의 딸을 연탄집게로 때려 숨지게한 황보모씨(28)의 부인 정정숙씨(25·蔚山市方魚洞)를 폭행치사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따르면 정여인은 지난23일하오3시30분께 자기집 작은방에서 전처 소생의 딸 황보주희양(4)이 대소변을 가리지않는다고 방안에 가둔후 연탄집게로 머리와 가슴등을 마구때려 숨지게한 혐의다。

7旬아내찔러 殺害

【光州】전남和順경찰서는24일 70대아내가 다른 남자와 놀아난다고 살해한후 읍사무소에 찾아가 장례비까지 요구한 曺圭善씨(66·和順郡和順邑新基里170)를 살인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曺씨는 지난21일 상오9시께 자기집에서 연상의 부인 孫聖任씨(77)를 같은마을 허모씨(66)등과 좋아지낸다고 칼로 목을 찔러 숨지게 했다는것이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後期대학 願書접수

31일마감 36개大서 3만3천여명 모집

83학년도 후기대학 입학원서접수가 24일부터 시작됐다。

오는 31일까지 8일동안 원서접수를 하는 후기대학은 서울의 明知大、光云大、德成女大등 10개교이며 지방의 大邱大등 26개교로 모두 36개대학이 3만3천2백95명을 모집한다。

대학별 면접은 2월2일、합격자발표는 2월9일에 있으며 예능계전형은 2월3일~7일에 실시된다。

수험생들은 후기대에서도 전기대와 같이 1개대학만지원、동일대학안에서 복수지망을 할수있으나 전기대 합격자는 후기대에 지원할 수 없다。

맬다이브 석방船員 11명 내일歸國

지난21일 맬다이브 정부의 赦免令으로 석방된 思潮산업소속 五龍37호 선원23명중 駐스리랑카 대사관에 신병이 인계된 11명이 오는26일 AL편으로 귀국한다。 K외무부당국자는 24일『五龍37호 선원들이 맬다이브 여러섬에 분산수용돼있기 때문에 이들이 동시에 귀국하기는 어렵다』면서『나머지 12명도 오는 29일까지는 귀국하게될것』이라고 전망했다。

訂正

23일자 본보11면에 실린「不具이유入學불허」2단기사의 제목중 朝鮮大는 全南大의 誤記였으므로 바로잡습니다。

女裝남자「호스티스」原色의 교태

「퇴폐술집」盛業

日「게이바」흉내… 西歐향락主義 찌꺼기

奇怪奇風

게이 바(Gay Bar)가서울에도 등장했다。문자 그대로 男子들이 女裝을 하고 술시중을 드는 술집을 말한다。서울시내에서만도 20여개소가「성업중」이라고 들린다。일본 東京의 게이바、구라파나 미국의 남창(男娼)이나 호모클럽의 모방판인데 퇴폐풍조가 낳은 차가운性(Cold Sex)의 한 형태로 西歐향락주의문명의찌꺼기。

세계적인 성개방풍조의 영향을 우리사회가 피할수없다고는 하지만 이같은「쓰레기장산」까지 끼어든대서야 곤란하다。위법성이 있고 없고를 따지기 전에「한심하다」는 반응이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는게 이사회의「마음」인 것이다。

주말인 22일 밤11시께、서울中區仁峴洞 유흥가 골목길에 있는「C-X번」。

지하계단을 내려서자 여느 술집과 마찬가지로 요란한 음악과 호스티스들의 간드러진 웃음소리가 손님들의취한 목소리와 어우러져 흥청거린다。

20평 남짓한 실내에는 2평정도의 낮은 무대가 있고 무대주위의 테이블 6개에는 손님이 꽉차 있다。

20대후반의 남녀3명이 40대신사2명과 30대후반의 여자 1명 30대초반의 남자2명이 일행인 팁둥이 1~2명씩의 호스티스들의 서비스를받고있었다。

테이블사이를 오가며 갖은 교태를 부리는 호스티스들은 한결같이 짙은 화장에 웃음을 온통 드러내다시피한 옷차림에 귀고리、목걸이、반지등 장신구도 요란하다。모두 7명。속살이 훤히 내비치는 드레스아래로 드러난각선미도 일품이다。

「미스X」라고 소개한 아가씨는 서구적용모의 미인、루즈를 짙게 칠한 입술、붉은 매니큐어를 칠한 고운손、뽀얀 살결、호리호리한 몸매、늘씬한 다리를 모로꼬고 앉은 자태와 입을 가리며 웃는 모습들이 자못 매력적이기까지한다。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의말투로 영락없는 여자다。

조금 이상한게 있다면 모두가 1m70㎝를 넘는 장신이고 어깨가 조금넓다는점。

그리고 대부분 앞가슴이별로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것이 눈에 띈다。

이들이 손님들에게하는 서비스는 여느술집에서와 다름이 없다。스스럼없이 손님들의 뺨에 입을 맞추는것등은 오히려 한층더 대담하다。

밤12시가 가까와지자 호스티스들은 번갈아 무대에서서「흘러간 노래」등을 간드러지게 부른다。분위기가 고조되자 일본가요도 흘러 나온다。모두가 상당한 수준급。

흥에 겨운듯 손님들도 무대로올라가 이들을 껴안고함께 노래를 불렀고 이어 부르스곡이 나오자 마주잡고 돌아가기도 한다。객석에 있던 30대후반의 여자손님도 이들과 어울려「진한 분위기」를 연출한다。호스티스의 가슴속에「팁」을 찔러넣어주는 여자손님들도 눈에띈다。

호스티스들은 연신 내실을 들락거리며 드레스와 한복、궁중의상등을 바꿔입고 나와 디스코、화관무、스페인풍의 춤등 갖가지춤으로 손님들을 즐겁게한다。

시간이 흐르면서「미모」와「몸매」가 가장 뛰어난 미스X란 호스티스가 나비날개같은 드레스차림으로 무대에서 흥과 괴상한 포즈의 춤을 춘다。옷가지를 하나씩 벗는 이른바 스트립쇼。결정적인 순간이 되자 갑자기 10대후반의 미 소년이 나타나 파트너가 되어 어울린다。

이들 한쌍은 갖가지 묘한 동작과 자세를연출、소위 라이브쇼 흉내도 낸다。

이런식으로 새벽3시께 까지 기상천외한 각종 쇼가 이어진다。

술값은 일반술집보다 비싸다。맥주1병에 2천원。안주는 1만원선이다。

◇게이·바의「남자미녀」들이 펼치는 스트립쇼의 한장면。이들 업소들은 이른바「라이브 쇼」등 갖가지 음란한 쇼까지 연출하고있다。

美女빰치는 용모에 음란한 쇼까지

團束규정없어 無防備

이곳은 서울에등장했다는 게이 바의 하나。

이같은 미모의 호스티스들은 실제로 모두 남자다。겉모습은 영락없는 여자이고화장실도 여자화장실을 드나들지만 내실에서 옷을 갈아입는것을 보면 틀림없는 남자란다。

본인들이나 업주도 굳이 이들이「남자」임을 숨기려하지않는다。고객들도 이들의 정체를 미리알고 있는듯 하다。

이곳의 여장(女裝) 남자 호스티스들의 정체는 동성애(同性愛)자들인것 같다。

大邱출신으로 K중을 나왔다는 미스(25)는 어릴때부터 괴상한 외모에다 여자기질이 짙었는데 몇년전 우연히 이들사회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직업적인 길로들어섰다고 털어놓는다。

「議政府E중학교를 나온미스J」金모씨(21)도 비슷한 경로로 호스티스가 된 M소년。23일낮에 만났을때도 짙은 화장은 없었지만 여자에 가까운 옷차림에 말투와 태도는 여자성향이 짙었다。

이들에 의하면 이같은 변태업소를 찾는고객들도 대부분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거나 이런 분위기를 즐기려는 중년부인들이 대부분이라는것。

하룻밤에 10만원정도의 팁을 별도로 주는「경우」까지도 발전할수있다。

이들 사회의 속어로는「더터바」로 불리는「게이바」는 서울에 이밖에도 梨園洞한리우드극장 뒷골목의 C、梨泰院의 G、L등이 있다。

이중 대표적인업소가 梨泰院뒷골목의 L。3년전 처음 생긴 이곳은 허름한빌딩3층에 은밀히 자리잡고「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내부를 들여다보면「별세계」다。

30평남짓한 실내는 한쪽벽면 전체가 미켈란젤로의「천지창조」에 나오는 남녀 나신상그림으로 가득차있고 객석은 고급소파로 꾸며져있다。

15명의 호스티스가 모두여장남자들。저녁6시부터 다음날 새벽7시까지 역시 갖가지 쇼로 페스티벌을 펼친다。

이곳의 특징은 다른곳과는 달리 단골만을 받는 회원제 클럽형식으로 운영되는점。

일본인등 외국인들이 많이 찾기도 하지만 모디자이너·유명가수등이 이곳의 단골이라는 귀띔이다。

◇梨泰院에 있는 게이·바「L」의 여장(女裝) 남자호스티스들。짙은 화장과 용모、옷차림들이 영락없는「여자」이고 美女를 능가하는「미모」도 끼어있다。

이들 여장(女裝)남자들은 스스로를『남자도 여자도 아닌「제3의 성(性)」을 가진 본성때문』이라고 변명하기도 하고「장미족」이라고 미화해 부르기도하지만 실제로는 변태성을가진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나선것에 불과하다는게 전문가의 진단。

이들은 구미에서의 게이의 권익주장과 이에따른 사회적 반응등의 영향을받은듯 스스로「인간으로서의권리」등을 조심스럽게 내세우기도한다。

그러나 이들「지하세계」가 건전한 사회기풍과는 거리가 멀뿐아니라 일반적인 퇴폐풍조와는 또다른 형태의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밑바닥에 스며들고 있는점。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할뿐 아니라 이들을 치유불가능한「변태성」쪽으로 몰고가는것도 심각한 폐해다。

한편 이들「게이바」에대한 단속은 현행법규의 적용이 어려워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서울용산경찰서보안과장宋一淳경정은 지나친 장발과여자옷차림등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준다는사실을지적、구류나 벌금형에 처하는외에는 달리 단속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 업소자체에 대해서는이들이 미성년자를 출입시키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보호법위반으로 형사입건할수 있지만 실제적발이 어렵다는 것。또 이들이 윤락행위를하는 경우에도 윤락행위방지법이「부녀자의 윤락행위」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있어 처벌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姜秉泰기자】

專門家들 의견

고려병원 정신신경과장 李時炯박사는 이같은 현상에대해『성의 일탈(逸脫)행위가 사회적병으로 퍼져나갈때 이들사회의 각종 범죄행위의 증가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염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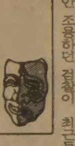
정신신경과전문의 鄭東哲박사는『개인적으로는 성장과정등에서「性의 주체성」을 갖지못한 이상성격 자들이 호모로 발전한다』고 분석하고『인간의 본능속에 잠재해있는 동성애행위가『영업적인 차원』으로 까지 타락해갈경우 사회의 통념적인 가치관은 해탈뿐아니라 이들의 왜곡된 심리상태로 인한 자살율의 증가、범죄의 증가등이 필연적인 해악』이라며 역시 우려를 나타냈다。

또 金駿洙변호사는『호모나 레즈비언등 동성간의 성관계를 현행법률로 다스릴근거는 없다고 본다』고 말하고 외국의 예처럼 크게성행、사회문제화되기 전에계도책이 마련돼야 할것이다』고 말했다。

「기지개」

「處斷的기능」발휘 金錫輝 검찰총장

"感잡고 가는 칼"…잇단瀆職 도려내



80년대 들어와 확고한 俗語가 된것이「감(感)잡는다」는 유행어다。군대 통신병들이 무선교신을하면서「감 잡았다。오버」하던것이 어느사이 일반화 됐을까。「감잡는다」는 말은 웃사람의 의중을 알아차린다든가、소용돌이속에서 本流를 찾는다든가、다른사람이 놓친의중의 말을 혼자 채뉘왔다든가 하는투로 여러방면에 두루 쓰이는 모양이다。

한때 우리나라 검찰은「감잡는데」서툴렀다는 평을 들은적이 있다。해방 이후 30여년간 권력과의 함수관계에서「溫室화초」처럼 지내보니 그렇게 됐었다던가…。한동안 조용하던 검찰이 최근들어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는 소리가 들린다。땅에 떨어진 士氣가 다소 올라가기 시작했더라는 후문도 들리고있다。

그런 소리들은 金錫輝 검찰총장(48·사진)이 취임한지 6개월지난뒤에 들려 오고있다。「6개월」은 그에게있어 무슨 뜻이있다는 것일까。

金총장은 검찰이 갈팡질팡했다던 시절 서울지검장으로 있으면서「저질연탄파동」을 겪은 장본인。그때를 전후로 검찰에는 鄭仁永씨사건、白仁鎬씨 사건들이 엄룩졌었다。

서울고검장으로 전보됐다가 검찰총장으로 권토중래하면서 그는 국가정책목표에 바탕을둔 검찰권 행사와「눈치수사의 탈피」를 강조했다。그러더니 6개월쯤지난 어느날 칼을 뺐고 법원、철도청、시교위관계인사의 독직사건을 연달아 도려내「처단적 기능」을 부각시키고 있다。

자조감에 빠져있는 식구들에게원기를 불어넣은뒤 해가 바뀌면서 所信의 눈을 밖으로 돌릴수 있게됐다는 것일까。

그러나 모처럼의 활기는 검찰의 대응기관인 법원에서「피의자」들이 연이어 나오는 팔이어서 구설수가 적지 않다。

대법원장비서관、서울민사지법경매계장이 잇달아 구속된데이어 법원일반직의 비위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있다는 소문이 꼬리를 물어 법관들의 표정이 처연해보이기도한다。

더우기 매사에 무리가 없다해서 법원쪽에서는 바람직한 검찰총수라는 평을 해오던 터여서 검찰로서도 당혹감이 없지는않은 모양。

그러나 크게 봐서 지나친 신경쓰기는 바람직 하지 못하다는게 국외자들의 평이다。「경제안정」「사회안정」이 강조될때마다 그름바구니에서 독버섯이 기생해온 관례가 지금도 現存한다면 예외를 둘수는 없을것이기에 나오는 말일것같다。

【崔奎植기자】

●백학같이 우아한 미!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사진등.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MILLWOOD FLOWER SHOP)——실비아·원

「겨울」이 없다

—프로야구 強訓현장을 가다 ①

여름을 준비하는 프로야구스타들에겐 「겨울잠」이 없다. 한 여름 달콤한 승리를 맛보기위해 지금 프로야구 선수들은 강추위를 잊고 強訓에 온몸을 던진다. 연고지로, 혹은 따뜻한바닷가로 장소를 옮겨가며 프로야구 6개구단은 저마다 83년시즌에 대비한 전지훈련에 바쁘다. 새 시즌을 준비하는 프로야구단들의 강훈현장을 돌아본다. 【편집자註】

롯데자이언츠 (上)

『쏴-철썩, 쏴-철썩』 겨울파도는 지나간 여름의 우울했던 흔적을 씻어내고사나이의 가슴에 새로운 욕망의 불씨를 키운다. 한여름의 몽쾌한 웃음을 위해 지금은 피같은 땀이 필요하다.

『자-힘을 내서 또 한번 뛴다. 준비-뛰엇』

해운대, 모래밭 허리를 롯데 자이언츠의 힘찬함성이 갈라놓는다. 구령소리에 맞춰 25m가량을 질주, 모래밭위를 두번 구르고, 다시 25m가량을 달려 두번 구르고, 다음 출발 대기선까지 25m를 또 달려 나간다. 머리, 목, 가슴, 신발속으로 보드라운 모래가 파고든다. 어느결에 입속에도 우지직 우지직 모래가 씹힌다.

『지난해엔 창단준비가 늦어 시즌전에 겨우 20일 훈련했지요. 많이 훈련이지 겨우 얼렁한번 모아보고 손발 맞추다 게임에 나선거죠. 여름내내 체력이 달리지 부상이 잃지, 정말 혼이 났읍니다』

해운대 모래밭 "勝利" 새기며 巨人의 큰발 "번개"로 다듬어

알루미늄 배트를 휘두르던 타자들은 미처 나무배트의손질착도 할틈이 없었다. 볼을 놓고 쉬던 투수들 역시 손가락에 굳은 살이 풀린채 마운드에 돌아, 피가맺힌 손가락을 깨물며 눈물을 삼켜야 했다.

巨人의 큰 걸음엔 시간이 걸리게 마련. 롯데 자이언츠는 금년 겨울 새로이 창단된듯한각오로준비하고있다.

지난10일부터 14일까지 4박5일동안 서울에서 극기정신을 기르기위한 정신훈련을 가졌다. 마지막 날엔 泰陵에서 議政府에 이르는 40㎞코스를 줄과 줄로 몸을 연결, 한덩어리가 되어 행군했다.

15일부터 釜山에서 시작된 합동훈련은 체력강화, 기동력강화를 위한 훈련이다. 九德운동장 육상트랙에서 스피드와 지구력을 강화하기위한 육상훈련이 계속되고 사흘에 한번씩은 해운대모래밭에서 체력강화훈련이 펼쳐진다.

『최대의 약점은 기동력강화입니다. 어느팀도 우리처럼 좋은 포수를 갖지못했으니 그약점을 찔러야 이길게 아닙니까』

롯데 자이언츠는 노련한포수 車東烈에다가 국가대표주전 沈載元, 대학을 졸업하는 신진 韓문연·金鎬根을 보강했다. 아무리 발빠른 주자라도 롯데와의 경기서만은 2루를 넘보기 어렵다.

롯데의 아쉬움은 이와는반대로 2루를 제대로 견제할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다른팀 포수들의 약점을 느린 걸음때문에 활용치 못한데있다.

21일부터는 1백m 아시아 최고기록을 가진 徐末九(부산은행)가 롯데 자이언츠의 합숙훈련에 참가한다. 24일간 약60시간동안 롯데 巨人들의 다리는 아시아에서 제일빠른 徐末九에 의해 조련된다.

『몸은 나눌수는 없겠지만 상오중 하체훈련은 徐末九에게 맡기고 하오에는 야구에 필요한 체력훈련과 야구기본기훈련에 들어가게 됩니다』

투·아웃후라도 1루진출의 험로만 뚫으면 2루를 훔치고 한방의 결정타로 결승점을 만들겠다는것이 朴永吉감독의 욕심이다. 지난해 롯데는 주자를 1·2루에 두고서도 1점, 또는 2점의 벽을 넘지못해 고배를 들었다. 기동력이 부족했던탓이었다.

2월14일부터는 日本 가고시마(鹿兒島)에서 日本프로야구의 자매팀인 롯데 오리온즈와 함께 본격인 야구 실기훈련이 시작된다.

2주간의 전지훈련이 끝나면 3월1일부터14일까지 釜山에서 팀전술훈련이 실시된다. 83년시즌에 선보일 롯데 자이언츠의 모습을 마지막 단장하는 시간이다.

3월15일부터 시즌오픈때까지는 팀전력을 분석·보완하는 자체평가전과 시범경기에 들어간다.

롯데의 시즌 오픈 경기는 4월3일 釜山 九德구장에서 벌어지는 對 三美전. 三美는 82년 첫시즌 초반 선두를 달리던 롯데에 치명적인 타격을준 팀이다.

『상대가 누구든 첫게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三美도 필승의 각오로 틀림없이 새로 구한 에이스 張明夫를 선발로 내세우겠지요. 체인지·오브·페이스에 능한 張明夫를 연구해 83년시즌의 멋진 출발을 보여 드리겠읍니다』

해운대에서 숙소 태양호텔을 향한 8㎞ 로드웍을 준비하는 선수들 사이사이로 사인첩을 손에든 꼬마팬들이 기습한다.

『金用熙、金容哲、金眞洙、盧相守…』

스타들의 사인을 받아낸 꼬마들이 환성을 지르며 달려간다. 지는 노을을받아 오륙도 일대의 바다물이 벌겋게 타고있다.

【方錫鮪기자】

533-2363 World Book 백과사전

「排球中興」 까마득하다

대의원 資格싸고 두동강… 난장판總會 5시간30분

누구를 위한 배구협회인가. 대한육상경기연맹 파문의 상처가 채 가시지않은 가운데 이번에는 배구인들이 정기대의원총회서 양파로 갈려 옥신각신, 「배구인의 밤」을 양쪽에서 개최하는등 낯뜨거운 해프닝을 연출했다. 뜻있는 배구인들은 배구협회 주도권을 둘러싼 이번 분규에 대해 한결같이 개탄하면서 배구인들이 私利를 떠나 스포츠맨다운 의연한 자세로 경기력 향상에 헌신,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에 대비할것을 촉구했다.

22일 열린 대한배구협회 정기대의원총회는 5시간 반에걸친 마라톤회의끝에 趙錫來회장단을 유임시키고 나머지 임원개선은 차후 임시총회에서 매듭짓기로하고 일단 폐회됐다. 그러나 앞으로열릴 임시총회에서 趙회장측과 반대파가 임원개선및 협회운영문제등에서 異見을 좁히지 못할경우 파국으로 치닫을 가능성도 없지않다.

22일 총회는 벽두부터 실업연맹과 배구계원로들로 주축을 이룬 趙회장반대세력에서 4명의 중앙대의원 자격을놓고 발언하기, 처음부터 사태가험악했다. 趙회장반대파는 인격을 갖추고 다년간 배구계에종사한 인물로 중앙대의원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趙회장측이 대의원표확보를위해 자격없는 인물을 중앙대의원으로 선정했다고 공격했다.

중앙대의원 자격시비에 대해 현집행부가 구체적인 해명없이 어물어물넘기자 82년도 업무및 회계감사를 보고할 감사 2명의 불참을 들고 나왔다.

감사보고를 받기위해 첫번째 휴회가선언됐으나 李來炘、金仁泰씨등 두명의 감사는 끝내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감사보고없는 총회는 무효다』『아니다』로 또다시 시끄러웠다.

양측은 표대결끝에 13-7로 감사보고만 차후로미루기로 합의, 회의가 속개됐으나 임원개선 과정에서 또 브레이크가 걸렸다.

◇金明洙부회장

◇趙錫來 회장

결국 3번째 휴회도중 양측은 회장선출만 끝내기로하고 나머지 임원개선은 임시총회서 감사보고를마친후 매듭짓기로했다. 양측이 한발씩 양보하여 총회는 끝났으나 회의도중 현집행부 金明洙부회장의 폭탄발언과 회장소동으로 살벌한 분위기가 계속됐다.

金부회장은 『배구계 원로인 내 의견이 협회운영에 반영된게 없다』『감사보고가 이루어지지않은 총회보고서는 위조다』고 발언, 파문을 일으켰다. 총회직후 「배구인의 밤」 행사도 양쪽으로 갈려 거행됐다. 프레지던트호텔서는 趙회장측이 마련한 행사가 열렸고 뉴국제호텔서는 배구계원로·실업연맹측 임원·현역 코치들이 따로 모였다.

이번사태에 대해 뜻있는 배구인들은 현집행부가 반성할 점이 많다고 지적, 앞으로 협회운영에 경기인들의 의사가 대폭 반영되고 국가대표선수들에대해 성의있는 지원을 해 배구중흥의 기틀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반대파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있다. 분별없이 현집행부를 마구흔드는 식의 태도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이다. 배구인들의 뿌리깊은 파벌의식을 바로잡지않는한 한국배구의 도약은 불가능하다는 극단론도 나오고있다.

이번 정기총회서의 진통이 배구발전의 밑거름이되도록 배구인들이 뜻을 모아야 하겠다.

"元老외면" 불씨 「배구인의 밤」도 낯뜨겁게 두곳서
"陸上聯파문 아물기도전에 또…" 非難의 소리 빗발

張吉山 <1648>

黃晳暎 作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08)

『곡식 두 되라면 능히 사람을 몇이라도 죽일 때가 아닝읍니까. 서로 뺏고 뺏기고 하노라니 고갯마루에서 돌로 치고 박아 서넛이 쓰러졌는데, 아직도 저 아래에서는 유민들의 무리가 자루를 빼앗으려 이리저리 몰리면서 달려 내려가 머랍니다』

전생이가 고개를 떨구고 있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여환 스님이 그럽디다. 백성들을 위하여 죽은 산지니나, 백성들에게 죽음을 당한 그 처자나 모두가 산 것들 때문이랍니다. 일테면, 혼례도 산 사람들을 위해 올려 준다지요』

묘옥이가눈물이그렁그렁해지더니 일어서며 말하였다.

『세상에 사는 모든것들이 다 죽은것들 먹이라지요』

묶치가 눈치도 없이 전생이에게 농을 걸었다.

『자네 같은 산놈들은 장가를 못가는데 그 총각 죽어서도 호강일세』

『글쎄 살지니 같이 살다 죽으면 그때에나 좋은 연분이 생겼지…』

묘옥은 얼른 돌아서더니 이내 밤부엌을 열고 나가버렸다. 이경순은 모른척하고 있었으나 묘옥의 감정의 변화를 너무도 잘 느끼고있었다. 어째서 이렇게 시시껄렁한여염의 생활을 해나가는 아낙네로서 수수하게 되어지지못하는 걸까. 젊어 죽은넋들의 혼례는 그여자의 가슴 어느구석을 건드렸던 것인가. 이경순은 미간을 찌푸리고 혀를찼다. 아무도 그들의 기분을 알아챈 것같지는 않았다. 묘옥이 안방으로 건너간 뒤에도 남정네들끼리 오랫동안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더니밤이 이슥해서야 그들은 바깥채로 물러갔다.

이경순은 혼자 사랑에남아 곰방대를 물고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제 자신과 묘옥이 지어낸 문산포에서의 삶의자취가, 갑자기 덧없는 바람이나 수면의 파문처럼 스러져 버릴것만 같았다. 그러한 자취나 자신이 얻어낸것은 안개자욱하던 여주강변에서 숨져 간던 아내의 비명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청룡사에서 달근네행중을 따를적부터였는지 몰랐다. 또는 묘옥이라는 창기가 해주 바닷가에서 참수 죄인의 넋과 이별하고 남녘으로 정처없이 떠나올적부터 였을까. 아니, 여문이는 분명히 자신들의 삶과 뼈로 이루어낸 생명이었다. 그런데도 경순은 무슨 까닭인지 이것이 자꾸만 현실이 아닌듯이 여겨지는지 모를 일이었다. 어쩌지 훅불면 허공중에 흩어져버릴 연기처럼 이생활이 믿기워지질 않았다. 혹시 그들 두사람에게서 모든것을 빼앗고 나머지로 주어진 생활은 아니었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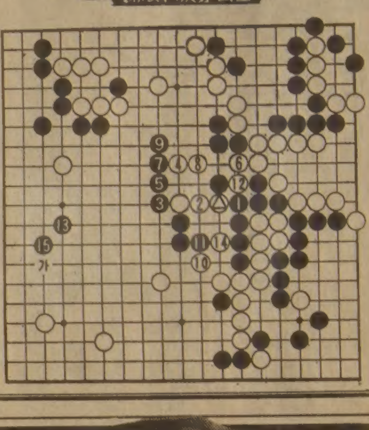
그는 아까부터 묘옥이 안방에서 뒤척이는듯한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는 불을 껐고 미닫이를 열었다. 캄캄한 가운데 차츰 마당이며 삽작이며 먼 산의 거뭇한 모양이 눈에 익어왔다. 풀벌레가 울고 들녘에서는 요란한 개구리 울음 가운데서 맹꽁이들이 사이 사이마다 장단을 넣고 있는듯 하였다. 벗겨지는 구름 사이로 한두 점씩 별이 가물거렸다. 맹꽁이는 흉황에 굶어 죽은 어린 것들처럼 울다가는 그치고 그쳤다가는 다시 생각난듯이 울었다. 저렇게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남기고 세상에 무수히 널려있는 정한들이 별수없이 스러져 가고있는 짙은 밤이었다.

名人戰

제14기 挑戰者決定리그

第8局 第7譜 101～115 (각5시간·덤5집반)

白(6段) 徐能旭〈1敗〉
黑(7段) 徐奉洙〈1勝〉



전보白100、본보△표로 들여다보고 白2로 이을때 徐6단은 앞으로 숙인 움몸을 동그라니 움크렸다. 승부수를 던질때는 으레 이런자세로 힘을 뻗치는것이다. 徐7단은 지극히 편한 모습으로 6분가량 생각했다. 그리고 서서히 黑3。전문가는 이수를 틀렸다고 평했다. 아마추어는 당장 이해하기 어려울만큼 중앙黑을 白12、14까지로 죽인것이 굉장히 크고, 따라서 白의 대성공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중앙黑7점을 버리는 대신 黑3에서 9까지 좌속에 막강한 長城을쌓고 黑13、15로 좌변에 광대한 새영토를 형성해서는 중앙의 손실을 갑이로 보충한것이 분명하다.

대규모 捨石작전

黑3때 이미 결정한 대현 「버림돌작전」을 徐7단은 보기좋게 성공한 셈인데、이과정에서도 黑白간 재검토가 필요했던 점은 있었다.

우선 黑은 13에와서 黑7점을 살리는것이 선수의뜻도 있어서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13쪽 절호의곳에 매력이 더컸던 것이다.

한편 白도 14의 수로는 좌변을 「간」자리까지 전개켬 육박하는 것이 유력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白으로서는 黑7점이 선수로 달아나면 하변白대마도 미생이므로 아주잡아버리는것이 역시 크다.

이때 黑15。이정도로 대만족이다. 【一凡】

DINNER·SHOW·DANCING

장학의 밤

□ 일시 : 1983년 2월 5일(토) 오후 6시
□ 장소 : Downtown Holiday Inn (토론토 시청뒤) 89 Chestnut St., Toronto
□ 회비 : 1인당 $30

KOREAN CANADIAN SCHOLARSHIP FOUNDATION 한인장학재단

카나다 한인장학재단
☎ : 533-7923 · 278-9886

초대의 말씀

구정을 앞두고
2월의 첫 주말을
즐거운 쑈
경쾌한 뮤직
푸짐한 경품이 있는
「장학의 밤」에서 보냅시다
그리고
그날 쓰시는 당신의
귀한 돈의 절반을
이 땅의 젊은 학도와
고국의 가난한 학생의
면학을 위해서 쓰십시다.
이사장 강공선

▶팝송 히트 가수 장미라

▶"38선의 밤"의 주인공 최갑석

▶노래와 코메디 양철

■사회 : 백용빈
■Dinner Music : 윤호섭
■4인조 라이브밴드
Bass 정철하
Drum 이계민
Organ 김종덕
Guitar 신영하

□ 장학금으로 도와주신 분 □

실업인협회	$500	Academy T.V. 김정운	$100	볼투아안경	$50
카나다한국외환은행	$300	Roger's Garage 변달원	$100	오명균	$50
주식회사 신의상사	$300	Video Machine 백운산	$100	차상범회계사무소	$50
조흥은행 이원순소장	$200	Park Avenue Academy 이춘호	$100	Oriental Bazaar 장해웅	$50
한일은행 한철환소장	$200	Dr. 이은숙	$100	앵코자동차 송창섭	$50
동우회	$200	하루빈한약상사	$100	동궁식당	$50
토론토한인 Lions Club	$100	임윤식 황용현부동산	$100	현영일 공인회계사	$100
상공인협회 조병역회장	$100	삼복식품	$100	박원모	$50
Mississauga Auto Collision	$100	Black Sea Fish 심용웅	$100	Palmer's Air Con. 김봉균	$50
Richvale 냉동회사 오현구	$100	남강레스토랑 이영규	$100	아세아한약방	$50
이영철 회계사무소	$100	운중태치과	$100	무명씨	$10
칠성인쇄소 이인용	$100	정필주 회계사무소	$100		
거구장 이한영	$100	곽석용 Royal Trust	$100	소계(1월25일 현재)	$4,460
한국민속예술후원회	$100	Joe Micieli(RJR McDonald Salesman)	$100		

□ 경품으로 도와주신 분 □

서울왕복 항공표 1매($1,490 상당) 한국여행사
3년 Membership과 도복장비 일체($865 상당) .... 박종수태권도장
여우목돌이($600 상당) ... 미도파백화점
영문타자기($300 상당) ... Skyway 김인환
이조백자($300 상당) .... 고려보석
민중신문영구구독권($250 상당) 민중신문사
쌀 44Lbs 15포($240 상당) 한국식품(4점포)
Rocking Chair($200 상당) ... 에코시가구점
고급커튼($200 상당) ...... Lucky Darpery
경품2점($200 상당) Bloor Hardware 변의섭
신용적금 첫불입금 $3,000계약($154.44) 한인신용조합
경품2점($150 상당) ... Noor Es International
골프클 Putter($150 상당) .. Munami Trophy
불란서제고급화장품1셋트($150 상당) 토마미용실
흑백T.V. 1대($150 상당) 주식회사 금성사
남자양복기지와 여자드레스감($150 상당) .... 이상남이사
쌀25Lbs 10포 .... 금성무역
한국일보 1년구독권($110 상당) 한국일보사
경품1점($100 상당) .... Dr. 왕운린
Clock Radio($100 상당) .... 한국관 나옥녀
벽시계($100 상당) .... 영리무역
경품1점($100 상당) ...... O.K. Auto Body
Dinner for 4 .... Oriental Palace
경품1점($100 상당) .... Korea House
Dinner for 4 .... 호심
벽시계($100 상당) ...... 아리랑하우스
상품권($100 상당) .... North York 김병권
전기밥솥($75 상당) .... 고려식품
성인용남자양말 2타($60 상당) 한밭식품
Korean Journal 2년구독권 ... 코리안저널사
경품1점($50 상당) ..... 김종조종합보험
벽시계($50 상당) ..... 거북이선물센타
쌀 50Lbs 2포 .... 서울식품
소계(1월25일현재) ... $7,044.44

□ 장학금·경품·티켓문의 □

장공선 구상회 김무호 김병권 김병극 김창갑 김흥량 마보훈 문인식 박영재 박인순 박종수 배형도 서동준 오원균 오현구 유영갑 윤태순 이건길 이근우 이동일 이상남 이성욱 이양섭 이영일 이영현 이정우 이창복 임윤식 임칠원 장추국 장한영 전윤식 정창헌 조병역 조한철 차선겸 최등영 최복기 한상훈 한용식 황용현 (이사)

◇당일 수익금은 전액 장학기금으로 적립됩니다.
◆세금공제영수증을 우송해 드립니다.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전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쎌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그라나다(GRANADA)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사시미·생선초밥·덴뿌라 등…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쵸 레스토랑
각종한식·중국식·양식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스카보로) 498-1300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일요일 정상 영업(오전 11시~오후 8시까지)함.
★교회, 동창회, 결혼, 회갑, 피로연등 단체구입손님에게 특별할인봉사.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실 내 장 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석 흥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김승수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 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Enco Mechanical 냉동기·히팅(전기·개스) 수리·설비.
Lic. Mechanic, Engineering Technician
전화: 769-5956 김명근.

RASCO 냉동 -★에어콘, 히팅, 워킹쿨러, 후리저,
Washers, Dryers, Stoves등등 시설·판매수리.
전화: 439-0047 Mr. 최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921-7486(R) 유문원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이삿짐센타

이사하실 분은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전화 : 533-9233 Mr. 유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불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4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 번 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A-1 Safety Driving School
자상하게 성의껏 잘지도함. 어디든 가서 Pick-Up함.
1레슨: $11. Road 테스트: $22. 전화 : 763-3593, 766-0860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Minit-tune Gain gas station
We do all repairs ◉334 Dundas St. E. Mississauga
전화: (B)273-3920 (R)273-9821 이태경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장 의 사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 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20%~30% OFF
(B)252-4857, (R)252-6602 Mr. 유(분납 가능)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Stewarts 카페엣 Land(70%까지 세일중)
무료설치, 스폰지 무료, 무료배달.
1200 Kennedy Rd. Scarboro(Tel. 757-2811)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路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이명윤회계사무소 - 스카보로
◉1974년도 욕대학 경제과 전공 ◉1976년도 욕대학 경영관리학 회계학전공 ◉현 캐나다최대의 컴퓨터회사의 어카운터 메니져 ◉소규모사업체 회계사무 6년경험
44 Gil Roy Dr. Scar. Ont. M1P 1J9
전화 : 752-9332(R) (오후 5시30분이후)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Grade 7에 재학중인 성적좋은 학생임. 높은 Level의 영어, 수학 가르쳐 주실분 구함. 스카브로 지역.
전화 : (B)921-4466, (R)291-0117 Mr. 신

시외 그로서리 가게 메니저 구함.
Barrie 근처
전화 : 1-(705)-458-4326

도넛숍 카운더 헬퍼 구함.
(1)밤12시~아침8시 (2)주말 아침8시~오후4시
전화: (B)690-3920, (R)491-8734 Mr. 김

급구: ◉도넛츠공장 맡아서 운영하실분
(판로가 있음)
◉도넛츠 숍에서 일할 여자분 구함.
(Weston 지역과 Finch 지역)
◉도넛츠 숍 메니저 구함.
전화 : 665-0790(낮) 731-1641(저녁) Mr. 최

입주하셔서 애기 돌봐주실분
(Markham & Sheppard)
전화 : 284-3031 Mrs. 성

Kitchen Helper 구함.
5304 Yonge St.(영 남쪽, Finch지하철서 10분거리)
전화 : 221-1621(오후4시 이후), 826-7676(오후6시 이후)

한국요리사, 웨이트레스 구합니다.
내방 요망합니다. 538 St.Clair Ave. W.
전화 : 654-6609 Mr. 유

Restaurant Kogil Kwan
한식요리사 1명, 일식요리사 1명, 중식요리사 1명. 10년이상 경력및 자격증 요함. 전화 : 532-7421 Mr. or Mrs. 차

5 일에 $ 15로
원하시는 것을
찾으실 수 있읍니다.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남자친구를 찾고 있읍니까?
24살의 남자가 18세~30세 여성을 찾고 있읍니다.
전화: 532-3465 Marshall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금호실업	224-2491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51-8835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44-3716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88 올림픽후원회	622-3674
승공문화협회	444-3658
온타리오한인맹인후원회	593-8943

개 인 지 도

피아노 교습생 모집
성심껏 지도, 초보자 환영, DIXON & KIPLING
전화: 249-7752(749-1316(낮·Answering Service) Jennifer Hong.

피아노 레슨
Royal Conservatory 시험준비, All Level.
전화 : 221-2556 Mrs. 리(Finch & Yonge 근처)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짧은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광고문의 533-2361

매 매

가게 급매.
리스: 3년+옵션. 아스킹: $8,000 or Best Offer
전화: 531-1023 Ralf

해밀턴에 성업중인 가게 급매.
전화 : 1-389-9755 Jimmy (오후2시에서 밤12시)

버라이어티 스토아(Tuck Shop) 매매
아스킹: $20,000+스탁 주매상: $2,500~$3,000
전화: 1-561~1911 Mr. 정(저녁7시 이후)

◉주매상: 약 1만불의 도넛숍.
권리금: 33만불. 리스: 26년
◉주매상: 약 4천불의 버라이어티 스토아.
권리금: 3만9천.
렌트: $450. 4년+5년, 이층아파트 입주가능
이훈모 부동산 전화 : 225-1204, 636-1697

매매 (Tuck Shop)
100% Cash Deal
전화 : 242-2630 Mr. Park(밤 10시30분 이후)

Van Truck - 77년도 Dodge 흰색
6만5천 Km, Excellent Condition
전화 : 533-2363 Mrs. 김

에드몬톤에 있는 주유소 급매.
정비공장 가스스테이숀, 자동차 Part Shop, 토잉설비
Asking: $125,000(설비+Part+토잉트럭 완전포함)
연 Net Income: 7만불
연락처: 1-403-475-9613, 1-403-475-1631 Mr. 박
(Collect Call도 무방함)

COIN LAUNDRY
28 Washers, 2 Heavy Duty Washers, 11 Dryers
1 Pop Vending Machine, 1 Soap Machine.
Lease august 31, 1988, extention possible.
Yearly net income $24,000(Minimum)
Asking price $50,000(one price)
Address: 3412 Dundas St. W. Tor.(in Plaza)
Telephone: 762-1264

(1)Drive in Restaurant 매매(•4년된 독립빌딩과 비즈네스)
◉$75,000 down, $100,000 주인이 모게지 잡음.
◉좌석44, 주류허가, 45대이상의 주차장. ◉대지1에이커는 6년간 리스가 있고, 전물확장·신축·비즈네스 전환도 가능함. (2)버라이어티 년평균 주매상: $5,500 렌트: $800
Royal Trust 곽 석 용(전화: 752-3111)

다이아몬드·반지 4부 VS. H; Color
Appraised $1,900 Sale가격: $950 ◉Band(가락지)와 한쌍
전화: 767-1702 박(오후6시 이후)

Health & Bulk Food 가게매매(Dry Fruit, Nuts, Tea, Coffee, Candy, Chocolet) ★ 짧은시간·좋은이익.
전화: 783-6464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3 Pcs. Wall Unit. $199
2)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거울달린 화장대 $79
4)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5 pcs. Kitchen set(식탁 + 4개의 의자) $89
6)쇼파 4pcs. set $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전화 : 364-0984

World Book—Childcraft of Canada
A division of SFZ International, Ltd.
자녀들의 필수교과서 "WORLD BOOK" 백과사전 총 22권 • Special 가격으로 판매.
문의처 : 533-2364 김
767-1702 (오후 6시이후)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여자 룸메이트 구함. 1 Bed Rm. 아파트
Finch & Bathurst
전화 : 630-7594(저녁 6시이후)

1Bed Rm. 방세 놓습니다.(부엌 포함)
월: $200. 653A Bloor St. W.
전화: 533-0168(Mr. 김) 오후1시~밤10시사이 전화 요.

가게 렌트 (1700 Sq.feet)-런던지역(Dochester)
Walk-in 쿨러가 있으며 버라이어티나 take out food으로 적당.
전화 : 624-5817

컴퓨터 식자 서비스 : 533-2361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출장지도및 주말지도도 함.)
◉개인·소구룹·단체. 문의: 742-4208 김유수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팍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용)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꽃집 욕-다운(York Downs Florist) -◉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송원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767-1702(6시이후)(Mrs. 김)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532-7094(B) 138-0628(R) Mrs. Oh

스타미용실(Mrs.김) ◉남녀커트·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화·토: 9am~8pm. (B)741-4410. 매주월요일만 동부영업: 10am~7pm
일요일 휴업. 전화: 267-0333(동부한국식품 플라자 내)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 생일, 파티케익등 전문(배달가능)
534 St. Clair Ave. W. 653-1149 Mrs. 배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타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 학 수)
전화 : 868-0922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얄 LIFE (김흥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임윤식 (R)638-6919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246-4384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일·월요일 휴업"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훠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빈청 있음.
○아구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 W.
535·9541 MR 김